

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2015년 한양대 HK 2차 국내학술대회

“카프카스 지역의 학적체계와 담론 :
역사, 문화, 그리고 지정학”

일시 : 2015년 5월 29일(금요일)

장소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화상회의실(6층)

주최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후원 :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 제 1세션(10:30 - 12:30) : 전쟁의 기억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그 담론
사회: 민경현(고려대)

발표자

신동혁(국민대)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담론

이정하(서울대) : 러시아 제국군 총참모부의 카프카스에 대한 지정학적 구상: A.I. 바라
틴스키(1815-1879)를 중심으로

정세진(한양대) : 19세기 북카프카스의 친러시아 담론 :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을 중심으로

토론자: 홍응호(동국대), 이완종(동국대), 황영삼(한국외대)

- 오찬 (12:30-14:00)

- 제 2세션(14:00 -16:00) : 남카프카스 학적 체계와 담론 : 제국, 종교, 지정학

사회: 고상두(연세대)

발표자

기계형(한양대) : 러시아제국의 아르메니아 지배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아르메니아
이미지의 변화

김정훈(배재대) : 아르메니아 종교 문화의 정체성

이영형(한양대) :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구조와 개입 · 확산지정학

토론자: 정세진(한양대), 석화정(공군사관학교), 우준모(선문대)

- Coffee Break(16:00-16:20)

- 제 3세션(16:20 -17:40) :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전통 및 정치 공간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발표자

현승수 :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에 관한 소고

정재원 :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전통과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의 관계

토론자: 김신규(한국외대), 김정기(한양대)

목 차

제 1세션

신동혁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담론	13
이정하	러시아 제국군 총참모부의 카프카스에 대한 지정학적 구상 : A.I. 바라틴스키(1815-1879)를 중심으로	15
정세진	19세기 북카프카스의 친러시아 담론 :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을 중심으로	23

제 2세션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아르메니아 지배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아르메니아 이미지의 변화	45
김정훈	아르메니아 종교 문화의 정체성	55
이영형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구조와 개입 · 확산지정학	67

제 3세션

현승수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에 관한 소고	89
정재원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전통과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의 관계	103

■ 제 1세션(10:30 - 12:30)

전쟁의 기억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그 담론

· 사회: 민경현(고려대)

· 발표자

신동혁(국민대) :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담론

이정하(서울대) : 러시아 제국군 총참모부의 카프카스에 대한 지정학적 구상: A.I. 바라
틴스키(1815-1879)를 중심으로

정세진(한양대) : 19세기 북카프카스의 친러시아 담론 :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을 중심으로

· 토론자: 홍응호(동국대), 이완중(동국대), 황영삼(한국외대)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담론

신동혁(국민대)

러시아 제국군 총참모부의 카프카스에 대한 지정학적 구상 : A.I. 바라틴스키(1815-1879)를 중심으로

이정하(서울대학교)

I.

역사상 모든 시기의 엘리트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법적-구조적 틀과 감지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인적 관계망의 산물이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을 통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서, 점차 당시 러시아의 엘리트 내에서도 식민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후반 새롭게 등장한 제국군내 ‘식민지 엘리트’의 인적관계망에서 중요했던 인물은 전쟁장관 D.A. 밀류틴(Dmitrii Alekseevich Miliutin, 1816-1912)과 카프카스 총독 재임시 밀류틴을 자신의 참모장으로 기용하였던 A.I. 바라틴스키(Aleksandr Ivanovich Bariatinskii, 1815-1879)이었다. 이 두 인물은 1859년 카프카스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지도자인 샤밀(Imam Shamil, 1797-1871)을 사로잡는 등 러시아 군부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 휘하에서 근무했던 장교들뿐만 아니라 카프카스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전략문제와 관련하여 이후 식민지에서 복무할 새로운 세대의 장교들의 사고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의 가장 오래된 귀족가문의 자손이었던 바라틴스키는 알렉산드르2세의 어린 적 친구이기도 하였다. 애초에 바라틴스키의 부모는 아들이 외교부나 재무부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그는 ‘계몽주의적’ 교육을 받기도 했으나,¹⁾ 아버지의 사망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해 1835년에 카프카스에서 장교로 복무하였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꾸준히 승진하고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또한 카프카스 지역의 ‘안정화’와 전략적 의미를 연구하는데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바라틴스키의 카프카스 지역의 전략적 구상에 영향을 준 것은 당시 군부 내의 ‘군사적 슬라브파(Slavophile)’ 운동이었다.

크림 전쟁 이전에 슬라브파는 러시아의 서구 문화 수입에 반대했던 일군의 보수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가 고유의 역사와 종교 그리고 독특한 러시아적인 삶의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림전쟁의 패배와 알렉산드르 2세의 자유화 조치는 수많은 슬라브파로 하여금 추상적인 철학적 논의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동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에 관심을 갖게 만들

1) 바라틴스키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A.L. Zisserman, *Fel'dmarshal kniaz Aleksandr Ivanovich Bariatinskii, 1815-1879*. 3 vols. (Moscow, 1890); Alfred J. Rieber ed., *The Politics of Autocracy: Letters of Alexander II to Prince Bariatinskii 1857-1864* (Paris, 1966).

었다. 이러한 변화는 범슬라브주의(Pan-Slavism) 운동을 낳았고, 러시아의 정치가와 지식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²⁾

소위 ‘군사적 슬라브파’는 군사기술상 발전을 받아들였던 프랑스나 독일의 교리가 아닌,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군사교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장교들을 의미한다. 크림 전쟁에서 패배해 치욕을 당하고, 국내외 사안과 군사(軍事)에서 급속하면서도 때때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경험한 장교들 다수는 영광스러웠던 러시아의 과거라는 낭만적인 관점에서 러시아가 봉착한 기술-전략적인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였다. 이들이 보기에, 러시아의 군사술은 서유럽의 군사술을 차용하지 않고, 표트르대제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만의 ‘그 어떤 것’이었다. 기동력 있고 수적으로 우세하기는 하지만 군사 기술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고 기율이 약한 토착민들에 대항하여 방어적이고 밀집대형의 사각방진을 이용하거나 거점 방어를 주내용으로 하는 카프카스 전역에서 벌인 군사 활동은 이들에게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군사술의 모범으로 간주되었다.³⁾

II.

바라틴스키의 ‘슬라브파’적인 경향은 카프카스에서 자신의 휘하에서 근무했던 일군의 장교들에게 끼친 영향에서 잘 드러난다. 바라틴스키는 다양한 전략적, 외교적, 군사적 프로젝트를 구상하였고,⁴⁾ 이후 러시아가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취해야 할 전략적 입장을 정리하였다.⁵⁾ 하지만 바라틴스키의 가장 큰 영향은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제국군의 다른 작전지역과는 차별적인, 독특한 이익과 주의를 요하는 단일한 전략적 지역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흑해지역에서 약화된 러시아의 영향력과 인도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던 영국의 영향력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였다. 즉 그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은 헤라트(Herat)⁶⁾를 관통하여 이어진다”⁷⁾를 이해한 최초의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2) Andrzej Walicki,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trans., Hilda Andrews-Rusiecka (Stanford, 1979), pp. 92-114; Hans Kohn, *Pan-Slavism: Its History and Ideology* (Notre Dame, IN., 1953), pp. 110-66.

3) 군사적 슬라브파의 영향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주의의 많은 측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장교는 M.D. 스킴벨로프(Mikhail Dmitrievich Skobelev, 1843-1882)와 E.P. 코발레프스키(Egor Petrovich Kovalevskii, 1809-1868) 등이었다. 스킴벨로프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Hans Rogger, “The Skobelev Phenomenon: The Hero and His Worship,” *Oxford Slavonic Papers*, no. 9 (1976), pp. 46-78. 같은 시기 외교부 아시아국 책임자(재임기간: 1856-1861)이었던 코발레프스키도 중앙아시아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옹호하여 범슬라브주의 잡지를 창간하였다. 여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I.S. 악사코프(Ivan Sergeevich Aksakov, 1823-1886)였다. M.B. Petrovich, *The Emergence of Russian Pan-Slavism, 1856-1870* (New York, 1956), p. 115, pp. 120-121. 군사문제와 슬라브파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ris Bellamy, “Heirs of Genshis Khan: The Influence of the Tartar-Mongols on the Imperial Russian and Soviet Armies,” *RUSI*, no. 128 (1983), pp. 56-59.

4) V.G. Chernukha, “Imperator Aleksandr II i fel'dmarshal kniaz' A.I. Bariatinskii,” *Rossiiia v XIX-XX vv. Sbornik statei k 70-letiiu so dnia rozhdeniia Rafaila Sholomovicha Ganelina*. A.A. Fursenko (ed.) (St. Petersburg, 1998), p. 113.

5)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Zisserman, *Fel'dmarshal kniaz*, vol. 3, pp. 343-345; MacKenzie, *The Lion of Tashkent: The Career of General M.G. Cherniaev* (Athens, GA, 1974), pp. 26-28.

6) 서부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주의 주도. 헤라트는 아랍, 인도, 중국과 유럽의 교역로에 위치하며,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마자르이샤리프와 칸다하르로 가는 길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7) Rieber, *The Politics of Autocracy*, p. 73.

이 문제에 대한 바라틴스키의 초기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크림 전쟁(1853-1856)이었다. 크림 전쟁은 바라틴스키에게 최소 1870-1880년대까지 지속될 러시아 제국군의 주된 전략적 문제, 즉 ‘가장 먼 변경지역에 대한 유럽연합군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변방인데다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⁸⁾ 물론 크림 전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전략적 의미도 중요했다. 그러나 크림 전쟁이 단지 크림 반도와 카프카스에서만 수행되지 않았으며, 세바스토폴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 활동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함대가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요새에 함포사격을 한 것이 또한 바라틴스키에게 영향을 주었다.⁹⁾ 변경지역에서 영국 혹은 영국과 다른 국가들의 연합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서부 국경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던 러시아의 방위체계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바라틴스키는 투르크멘과 화의를,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¹⁰⁾ 이를 위해 바라틴스키는 이후 1858년 이그나티예프(Nikolai Pavlovich Ignat'ev, 1832-1908)가 이끌 사절단(*Missiia v Khivu i Bukharu*)의 효시가 될, 군사-과학 사절단을 중앙아시아의 칸국들에 파견토록 하였다.¹¹⁾ 바라틴스키는 이러한 군사-과학 사절단을 통해 이후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질 지도 모를 영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에서 필요한 여러 군사, 지리, 경제적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에 이그나티예프는 카프카스,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페르시아와 관련된 보다 나은 정보획득의 필요성을 논하는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보냈다.¹²⁾ 결국 이그나티예프 사절단은 전쟁부, 외교부 아시아국(*Aziatskaia otde*) 그리고 제국 지리학회(*Imperatorskoe Russkoe Geograficheskoe Obshchestvo*: IRGO)를 중심으로 해 카프카스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군사대비를 위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그나티예프가 사절단의 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라틴스키가 직접 황제에게 그를 천거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이그나티예프는 바라틴스키의 카프카스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구상의 주된 후계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 훗날 외교부 아시아국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그나티예프는 전쟁장관 밀류틴과 함께 중앙아시아 병합의 초기단계를 지휘하였는데, 중앙아시아의 병합은 이전부터 바라틴스키뿐만 아니라 이그나티예프가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조치 중 하나였다.¹³⁾

또 바라틴스키는 1857년에 자신의 휘하에 있던 세 명의 참모장교에게 참모연구를 지시했다. 이 세 명의 장교가 바로 카프카스 군관구의 A.A. 네베로프스키(Aleksandr Andreevich Neverovskii, 1818-1864), E.I. 치리코프(Egor Ivanovich Chirikov, 1805-1862) 그리고 S.A. 흐

8) William C. Fuller, *Strategy and Power in Russia 1600-1914* (New York, 1992), pp. 265-268, 458; Andrew D. Lambert, *The Crimean War: British Grand Strategy, 1853-1856* (Manchester, 1990), pp. 341-347.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J. Stephan, "The Crimean War in the Far East," *Modern Asia Studies*, vol. 3, no. 3 (1969), pp. 257-277.

10) Zisserman, *Fel'dmarshal kniaz'*, vol. 2, pp. 120-121.

11) 사절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John W. Strong, "The Ignat'ev Mission to Khiva and Bukhara in 1858," *Canadian Slavonic Papers*, vol. 17, nos. 2-3 (1975), pp. 236-260; N.A. Khal'fin, *Tri Russkie Missii. Iz istorii vneshnei politiki Rossii na Srednem Vostoke vo vtoroi polovine 60-kh godov XIX veka* (Tashkent, 1956).

12) David MacKenzie, *Count N.P. Ignat'ev: The Father of Lies?* (New York, 2002), pp. 13-18.

13) N.S. Kiniapina, "Sredniaia Aziia v planakh i deistviiakh Rossii v 60-80-e gody XIX veka," *Rossii i strany blizhnego zarubezh'ia: Isoriia i Sovremennost'*. S.L. Tikhvinskii ed. (Moscow: 1995), p. 130.

룰료프(Stepan Aleksandrovich Khrulev, 1807-1870)였다. 이들 모두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참모장교들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바라틴스키 휘하의 카프카스 군단에서 근무한 이후 총참모부 아시아국에서 근무하면서 제국군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국군 전체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칠 인물들이라는 점이었다. 1838년 참모대학을 졸업했던 네베로프스키는 1840-1845년까지 카프카스에서 근무하였고, 전쟁부가 발행하던 *Voennyi zhurnal*에 “Isoricheskii vzgliad na Dagestan”과 “O nachale bespokoistv v severnom i srednem Dagestane” 등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치리코프 또한 아시아문제에 식견이 있는 참모장교였고, 1828년부터 1년간 러시아-튀르크 전쟁에 참전했고, 그 후 각각 1848년과 1853년에 러시아-튀르크와 러시아-페르시아간의 국경설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치리코프의 초기 연구는 튀르크와 페르시아 국경과 관련된 96개의 계획과 함께 메카, 메디나 그리고 바레인까지 이르는 도보 행군로 계획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치리코프가 담당하고 있었던 국경선 설정업무를 넘어서는 이러한 계획들은 러시아의 당시 군사-정치적 이익이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지역에 걸쳐있음을 바라틴스키뿐만 아니라 제국군 군부가 상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¹⁴⁾ 흐룰료프는 1856년 이후에 카프카스 군단에서 복무하였다.

영국의 인도 정복이 가져온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바라틴스키는 카프카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영국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도 구상했다. 즉, 네베로프스키는 바라틴스키의 명령 하에 인도 침공안도 작성하였는데, 이는 인도를 러시아의 직접 지배하에 두거나 혹은 영국군을 인도로부터 몰아내는 안 모두를 상정했다. 네베로프스키는 한동안은 유럽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러시아가 페르시아를 동맹으로 하고 영국에 대항하는 반란이 인도에서 발생할 시에는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치리코프는 카프카스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영국의 경쟁을 정치, 상업 그리고 군사 세 분야로 나누고, 우즈베키스탄의 코칸트(Kokand)와 부하라(Bukhara)를 영국에 대항한 러시아 제국군의 보급기지와 전진기지로 상정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틀 속에서 페르시아에 상륙할 수 있는 카스피해 소함대의 건설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페르시아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조치일 수 있음도 명시하였다.¹⁵⁾ 어쨌든 러시아군이 콘스탄티노플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했던 동방위기(1875-1878)에 대한 대응으로 1878년 인도 침공계획이 제안되었을 때 바라틴스키는 이러한 침공에 적극 찬성하였다.¹⁶⁾ 흐룰료프의 연구는 러시아의 아스트라한에서 지금의 파키스탄의 페샤와르(Peshawar)¹⁷⁾에 이르는 원정은 행군속도에 따라 82일에서 109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행군은 히바(Khiva)와 페르시아로 행군할 때를 상정했다.¹⁸⁾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자면, 참모들의 이러한 연구들은 러시아 참모장교들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복속하기 훨씬 이전부터 카프카스 인근지역의 지정학적 의미와 이를 관리하는데 따른 어려움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¹⁹⁾

14) I.V. Alekseev, E.I. Zelenev & V.I. Iakunin, *Geopolitika v Rossii. Mezhdru vostok i zapadom (konets XVIII-nachalo XXv.)* (St. Petersburg, 2001), pp. 70-71.

15) P.M. Shastitko ed., *Russko-Indiiskie Otnosheniia v XIX v. Sbornik arkhivnykh dokumentov i materialov* (Moscow, 1997), pp. 87-93.

16) T.N. Zagorodnikova ed., *'Bol'shaia Igra' v Tsentral'noi Azii: 'Indiiskii Pokhod' Russkoi Armii. Sbornik arkhivnykh dokumentov* (Moscow, 2005), p. 30.

17)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에 위치한 도시이다.

18) Shastitko ed., *Russoko-Indiiskie Otnosheniia v XIX v.*, pp. 128-135.

19) Milan Hauner,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Boston, 1990), p. 79.

III.

바라틴스키의 영향은 전략적 측면에서 끝나지 않았다.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제국군의 다른 작전지역과 다른 특별한 이익과 주의를 요하는 단일한 전략적 지역으로 인식하였던 바라틴스키의 기조는 군사행정에서도 드러난다. D.I. 로마노프스키(Dmitrii Il'ich Romanovskii, 1825-1881)에 대한 그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로마노프스키가 참모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경험을 쌓고자 카프카스에 도착했던 1847년에 이 둘의 인적관계가 시작되었다.²⁰⁾ 로마노프스키가 참모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바라틴스키는 그와 함께 카프카스에서의 전술과 관련하여 토론을 즐겨하였는데, 이 당시 참모대학에서 카프카스 전역에 관한 강의를 했던 인물이 바로 밀류틴이었다. 카프카스에서의 복무경험으로 로마노프스키는 카프카스 지역에 관한 전략에 눈을 떴다.²¹⁾

밀류친과 바라틴스키 사이의 인적관계는 로마노프스키의 군 경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1860년에 카프카스에서의 전투에 관한 저작을 쓰면서, 로마노프스키는 바라틴스키를 카프카스의 행정 문제를 포위공격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유일한 지휘관으로 찬양하였다.²²⁾ 이러한 저작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부분적으로 로마노프스키가 경험한 카프카스에서의 군 경험과 1859년 총참모부 아시아국의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샤밀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에 기초했다.²³⁾ 바라틴스키가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리학과 민족지학 그리고 경제에 대한 강조가 반영된 일종의 '군사-통계학적'²⁴⁾인 성격이 로마노프스키의 저작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어였을 것이다. "만일 표트르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러시아가 유럽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부수고 넘어갔다면, 지금 우리는 카프카스를 '안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랜 무기력에 빠져있는 서아시아 전체,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라는 창문을 부수고 넘어가고 있다."²⁵⁾

밀류틴이 전쟁장관으로 임명되고 군제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에도, 바라틴스키와 밀류틴이 단행한 카프카스에서의 행정개편 작업은 의미심장하였다. 훗날 밀류틴이 제안한 군사행정 합리화 방안의 주된 특징은 중앙에 의한 군사행정 재조직과 함께 새롭게 각 지역의 행정기구를 군관구 단위로 정비하는 것이었다.²⁶⁾ 밀류틴은 군관구 제도를 통해 군사행정의 지역적 차별성을 인정하고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독립적인 군사행정을 도입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제도는 1857년에서 1860년 바라틴스키의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카프카스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었다.²⁷⁾ 그들은 보다 효율적인 보급과 지휘체계를 통해 카프카스의 군사체제를 조정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밀류틴의 개혁을 통해 러시아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카프카스와 중

20) D.I. Romanovskii, "General Fel'dmarshal kniaz Aleksandr Ivanovich Bariatinskii i Kavkazskaia voina, 1815-1879," RS, no. 30 (1881), pp. 268-270.

21) 로마노프스키를 자신의 참모장으로 임명해주기를 청했던 바라틴스키가 밀류친에게 보낸 1856년의 편지는 다음을 보라. Zisserman, *Fel'dmarshal kniaz'*, vol. 2, p. 105.

22) D.I. Romanovskii, *Kavkaz i Kavkazskaia Voina* (St. Petersburg, 1860), pp. 412-413.

23) Romanovskii, "General Fel'dmarshal," p. 286.

24) Romanovskii, *Kavkaz i Kavkazskaia Voina*, p. 2.

25) *Ibid.*, p. 48.

26) P.A. Zaionchkovskii, "Vydaiushchiisia uchenyi i reformator russkoi armii," pp. 36-37.

27) P.A. Zaionchkovskii, *Voennye reformy 1860-1870 godov v Rossii* (Moscow, 1952), p. 50, pp. 83-85; Dietrich Beyrau, *Militaer und Gesellschaft in vorrevolutionaren Russland* (Cologne, 1984), p. 229. 1856년 3월 한 보고서에서 밀류틴은 군사행정의 분권화와 군관구 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을 주장하였다. 바이로이는 1859년 샤밀의 체포가 알렉산드르 2세에게 군관구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양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들을 여타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와는 다른 체제, 즉 카프카스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했다.²⁸⁾

정리하자면, 군관구 체제는 그 지역에 배치된 참모장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달된 명령을 각자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였다. 군관구의 이러한 성격은 비록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바라틴스키가 샤밀의 반란을 진압할 당시에 카프카스에서 운용하던 체제였다. 밀류틴 자신도 그의 회고록에서 카프카스에서의 경험이 이러한 체제를 발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²⁹⁾

IV.

바라틴스키와 1860년대 이전 카프카스에서 근무했던 장교들이 동방으로의 팽창이 가져올 지정학적 이점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결국 정복 그 자체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수행되지는 못했다.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바라틴스키의 생각은 전쟁장관 N.O. 수호자네트(Nikolai Onufrievich Sukhozant, 1794-1871)에 의해 거부되었다. 수호자네트는 차르에게 보낸 장문의 보고서에서 당시 러시아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러시아의 인도에 대한 침공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수호자네트가 보기에, 지나치게 길게 뻗은 보급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이전에, 영국은 페르시아, 터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을 회유하면서 직접적인 전투행위를 계속 피할 능력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헤라트 정도를 점령하는 것도 러시아에게 영국을 자극할 여지를 주는 것에 비해, 그다지 큰 전략적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⁰⁾ 그가 보기에 보다 효과적인 조치는 폴란드 지역을 포함한 서부국경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아스트라한과 바쿠지역에 군수물자 기지를 만들고 카프카스 군단에 강선총과 뇌관 총류 등의 새로운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불가 지역에 제4군단과 제6군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예비대를 두고자 하였다.³¹⁾ 이러한 병력들은 주로 서부 국경선 방어를 위한 예비대로 사용될 터였지만, 카프카스 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빈약한 철도가 아닌 불가 강과 카스피아 해의 해운을 통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호자네트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바라틴스키의 생각이나 영향이 제국군의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바라틴스키와 카프카스에서의 활동은 총참모부의 카프카스 전역의 전략적, 행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시아 지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줄 새로운 그룹을 창출하였다. 이후 전개될 중앙아시아의 정복은 카프카스에서의 경험과 바라틴스키의 구상에 상당부분 의존했다. 바라틴스키와 밀류틴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러한 ‘식민지’ 장교들은 이후 전개될 중앙아시아 정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복의 주창자들이었다. 중앙아시아 정복의 초창기에 이미 카프카스 정복에 참여했던 장교들은 새로운 중앙아시아 군을 창설하고 카프카스 전역에서 받은 훈장이나 기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기도 하였다. 심지어 중앙아시아군은 과거 카프카스 군단이 부르던 군가를 카프카스 전쟁 영웅들을

28) Romanovskii, *Kavkaz i Kavkazskaia Voina*, pp. 407-408.

29) L.G. Zakharov ed., *Vospominaniia General-Fel'dmarshala Grafa Dmitriia Alekseevicha Miliutina 1860-1862 (Moscow, 1999)*, p. 266; David A. Rich, *The Tsar's Colonels: Professionalism, Strategy, and Subversion in Late Imperial Russia (Cambridge, MA, 1998)*, p. 71.

30) Shastitko ed., *Russoko-Indiiskie Otnosheniia v XIXv*, pp. 94-100.

31) 이러한 조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마지막 군사배치였던 1910년에 결국 시행되게 된다.

이름을 빼고 자신들의 지휘관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하였다.³²⁾ A.P. 에르몰로프(Aleksei Petrovich Ermolov, 1777-1861)같은 ‘카프카스 장군들(*Kavkazskie generaly*)’은 1820년대 이후로 카스피아 해 동안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관심을 표했고, 이후 이러한 지휘관들이 중앙아시아의 주요한 행정직에서 근무하였다. 예를 들어 카프카스 산악 민족의 관습법 전문가였던 A.V. 코마로프(Aleksandr Vissarionovich Komarov, 1830-1904)는 투르케스탄의 트랜스-카스피 주의 책임자가 되었다.³³⁾

이들 새로운 ‘식민지’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아시아지역에서 복무하였던 장교들의 열정적인 후원자였던 K.P. 폰 카우프만(Kontantin Petrovich fon Kaufman, 1818-1882)이 1867년 투르케스탄의 총독으로 근무할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 카우프만은 바라틴스키가 카프카스에서 보여준 것과 흡사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휘하의 장교들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카우프만 휘하 장교중 대표적인 인물이 후일 전쟁장관이 될 A.N. 쿠로파트킨(Aleksei Nikolaevich Kuropatkin, 1848-1925)이었다.³⁴⁾ 쿠로파트킨이 1880년대 유럽에서 수행할 러시아의 전쟁계획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지라도, 밀류친과 바라틴스키와 마찬가지로 쿠로파트킨은 아시아에서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은 “중앙아시아적 전술의 주창자”³⁵⁾였다.

따라서 19세기말 카프카스 지역에서 근무하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전역까지도 경험한 장교들은 제국군내에서 중책을 맡고 군부 엘리트로 성장했다. 바라틴스키와 차르와의 관계에 더해, 전쟁장관이었던 밀류친의 영향 하에서 식민지에서의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식민지’장교였던 쿠로파트킨이 1898년 전쟁장관이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군내 영향력은 적어도 러일전쟁 이전까지 극에 달했다. 이들의 영향력은 러일전쟁 이후 감소하게 되었는데, 쿠로파트킨 그 자신이 전쟁수행의 총체적인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 러일전쟁에 참모장교로 참전했고, 혁명 이후 소연방 적군(*Krasnaia armiiia*) 총참모대학 교관이었던 A.A. 스베친(Aleksandr Andreevich Svechin, 1878-1938)은 쿠로파트킨의 군사적 실책을 다름 아닌 그의 ‘식민지’ 장교에게서 흔히 보이는 개인적인 특질에서 찾았다. “쿠로파트킨이 경험했던 식민지 전쟁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위협요소로 가득 찬 장소 혹은 어둠속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데 있다. ... 쿠로파트킨에게서 식민지 전투 지휘관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군대의 보급과 관련된 업무에서 그가 보여준 그의 경험, 선견 지명 그리고 조직운영의 재능은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원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즉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하면서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고자 하였다.”³⁶⁾

32) RGVIA, f. 165, op. 1, d. 1741, l. 28, 67.

33) N.S. Kiniapian, M.M. Blied & V.V. Degoev, *Kavkaz i Srednaia Aziia vo vneshnei politike Rossii (Vtoraia polovina XVIII-80-e gody XIXv.)* (Moscow, 1984), pp. 221-226.

34) 쿠로파트킨의 미간행 회고록의 상당부분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카우프만의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쿠로파트킨의 미간행 회고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간행되었다. "Iz vospominanii generala A.N. Kuropatkin 1867-1882 gg." *Istoricheskii Arkhiv*, no. 4 (1994), pp. 185-195.

35) G.N. Curzon, *Russia in Central Asia in 1889 and the Anglo-Russian Question* (London, 1889), p. 331.

36) A.A. Svechin, "Strategiia XX veka na pervom etape. Planirovanie voyny i operatsii na sushe i na more v 1904-1905 gg." *Pre rassudki i boevaia deistvitel'nost* (Moscow, 2003), pp. 170-171.

19세기 북카프카스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연구 :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을 중심으로

정세진(한양대학교)

I. 서론

19세기 러시아는 제국의 기치를 내걸고 러시아 남부로 급격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제정러시아는 19세기 들어 러시아 남부의 상당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북카프카스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1816년 제정러시아의 예르몰로프 총독이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부임하면서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북카프카스를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카프카스 민족은 제정러시아의 군사력 사용에 맞서 전쟁을 불사하였다. 소위 ‘카프카스 전쟁’ (1816-1859)이 벌어졌으며,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제정러시아의 북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군사력 사용에 강력히 대처했던 세력은 이슬람 수피즘 종단이었다. 특히 1대 이맘인 가지 무하마드, 2대 이맘인 함자트 벡,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인 3대 이맘인 샤밀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지하드를 선포하고 군사 저항을 하였다. 특히 이맘 샤밀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신정국가를 건설하고 제정러시아에 맞섰는데, 그는 군사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종교권을 장악하고 러시아에 대항하였다. 즉 이맘의 위치로서 그는 종교적인 영역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 영역까지 망라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력한 통치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즉 강력한 군사력에 대항하여 동일하게 군사력으로 맞선 투쟁이 카프카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의 우세로 기울어나가던 시기에 쿤타 하지를 비롯한 카다리아 수피즘 종단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공존과 평화를 모색하던 이슬람 그룹이 등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친러시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쿤타 하지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슬림은 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신이 제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러시아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화해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벌였다. 그의 수피즘은 카다리아 종단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그것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본 논고는 19세기 중반기에 등장한 북카프카스의 친러시아 경향을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시도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와 북카프카스의 군사적 상황이나 국제관계,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이 당시 북카프카스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II.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에서 나타난 북카프카스의 친 러시아 경향

1. 러시아 제국의 확장에 맞선 낙쉬반디야 수피즘 종단의 저항적 인식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을 보기 전에 먼저 북카프카스 수피즘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피즘은 ‘낙쉬반디야’종단과 ‘카디리야’종단이 주요 2대 종파이다. 수피들은 신앙적으로 완전성을 향하여 성장하며, 영적 인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신비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¹⁾ 수피들의 특징은 금욕주의이다. 자신을 정화하면서 자신의 삶을 매우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욕망을 얻을려고 하지 않으며, 신의 인도에 따라 순명의 삶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과의 합일’은 매우 중요하다.²⁾ 수피즘을 신봉하는 수피들은 세계를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즉 이들은 인식론적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즉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³⁾

북카프카스에서 수피즘은 평등의 철학을 강조하면서 외부 점령자에 대항하는 동력이 되었다. 수피즘은 셰이흐(шейх; 스승)-무리드(мурид; 제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자가 스승에 절대복종하는 체계를 가졌다. 이런 이유로, 카프카스 전쟁 때에 무리드(제자)는 스승, 즉 이맘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의견을 충실히 복종하고 성전이라는 고귀한 이상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 저항한 무슬림 등을 가리킬 때에 총체적으로 ‘무리디즘(Muridism, Мюридизм)’이라 불렀다. 무리디즘이란 용어는 아랍어인 ‘무리드’에서 유래되었다. ‘무리드’는 ‘순종자’ 혹은 ‘자발적인 헌신’, 또는 ‘고통 받는 자’ 등으로 해석된다. ‘무리드’는 이슬람 수피 종단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무리드는 ‘타리카’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절대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스승인 수피를 따라가는 제자의 무리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이 용어에서 나온 ‘무리디즘’을 이맘들의 명령에 복종, 러시아에 저항하는 모든 카프카스 산악 민족들의 저항운동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북카프카스에서 수피즘은 19세기에 들어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특히 낙쉬반디야 수피즘 종단이 북카프카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신비주의 이념으로서의 수피즘은 낙쉬반디야 종단에서도 원래부터 강력히 추구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정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이들은 매우 강력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슬람을 일종의 저항정신의 수단으로 삼아 러시아에 맞섰다. 즉 이들은 제국러시아가 북카프카스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면서,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들을 중심으로 단일한 전선을 펼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제국주의 통치가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낙쉬반디야 종단은 정치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세기 북카프카스 민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종교적, 정신적 이데올로기는 수피즘이었는데, 이들은 수피즘 이론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을 제국러시아에 저항하는 지하드 정신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낙쉬반디야 종단은 수피즘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신조를 가지고, 다게스탄과 체첸이 속한 북-동 카프카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대 군사 항쟁

1) Fereshteh Ahmadi Lewin, Development Towards Wisdom and Maturity: Sufi Conception of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Vol. 5, No. 3. 2000, p. 137.

2)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20호, 2000, p. 277.

3) 정세진, “북카프카스 수피즘 연구 - 신비주의의 관념과 반러시아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 논문집 19-1집, 2009, pp. 5-6.

에 돌입했다. 이들에게 이슬람은 전통적인 종교적 서열 및 기득권에 반대하고 저항의 신조로 받아들여진 문화 요소였다.

낙쉬반디야 그룹은 세속적인 경향의 이슬람을 추구했으며,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지하드를 선포하고 군사 항쟁을 하였다. 3대 이맘인 샤밀은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종교적 수반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무리디즘(Muridism)이라고 불리는 전투적인 무슬림 교도들은 러시아에 맞서 치열한 군사 항쟁을 벌이고 있었다. 소위 '나이브 무리드'라고 명명된 이들은 지하드를 선포하고 이슬람을 투쟁의 아이콘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다 성전(聖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카디리야 수피즘은 원래의 수피즘의 원칙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그리고 절대자인 신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적 인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명상적인 카디리야 수피즘 종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다. 지하드의 이념은 매우 강력했으며, 이맘 샤밀이 대 러시아 항쟁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전투적인 무리디즘에 경도되었다. 샤밀은 1834년에 이맘의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대 러시아 항쟁은 매우 강력히 전개되었다. 샤밀은 이맘의 위치에 올랐을 때 카디리야 종단의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샤밀은 저항의 아이콘으로서 대 러시아 투쟁의 수단으로 이슬람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디리야 종단은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샤밀은 북카프카스 민족을 이슬람이라는 단일한 정신적 가치 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항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단결된 이념이 필요했다.⁴⁾

러시아는 1783년 예카테리나 여제시기에 크림 칸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이후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았다.⁵⁾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군사 침략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1820년대 후반부터 북카프카스 민중들은 이맘을 중심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특히 이맘 샤밀은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종교적 수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무리디즘이라는 전투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하였다. 샤밀의 제자들은 러시아에 저항했다. 이들은 스승인 이맘 샤밀의 영적 권위아래 있었다. 이들은 지하드를 선포하고 이슬람을 투쟁의 아이콘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제정러시아에 적의를 가지고 지하드를 추종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북카프카스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투쟁의 가치가 이슬람의 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수피즘 교의 자체가 투쟁의 가치를 가장 높은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슬라브 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정복의 꿈, 정복의 이상을 가지고 침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산악 지역에서 부족 간, 씨족 간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던 북카프카스 거주민들도 투쟁의 타깃을 제정러시아에 두기 시작했다. 지하드의 이념은 매우 강력했으며, 이맘 샤밀이 대 러시아 항쟁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전투적인 무리디즘에 경도되었다. 1816년부터 1859년까지의 카프카스 전쟁 기간에 샤밀은 1834년에 이맘의 자리에 올랐으며, 이후 대 러시아 항쟁은 매우 강력히 전개되었다. 샤밀은 러시아와의 공존을 주장하던 카디리야 종단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샤밀 자신만이 예배와 설교,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 유일한 이슬람 이론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쿤타 하지가 제정러시아와의 투쟁에 맞서지 않고 러시아와 공존과 평화라는 친러시아 담론을 펼치자, 이맘 샤밀은 이를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쿤타 하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샤밀은 쿤타 하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순응적이며,

4) Lesley Blanch, *T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London : TPP, 2009, pp. 60-62.

5) Shreen T. Hunter,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Armonk, New York, London:M.E.Sharpe, 2004, p. 11.

전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샤밀은 쿤타 하지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매우 강력한 적인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방도를 찾고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⁶⁾ 샤밀에게 쿤타 하지는 이슬람 신정 국가 건설에도 크게 관심이 없으며,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수피즘 종단이 바로 카디리야이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샤밀이 보기에 그들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존과 평화였으며, 무엇보다도 쿤타 하지는 자신과 친족들의 삶을 보호하는 노력이 그들 삶의 전부라는 비판을 전개하였다.⁷⁾

샤밀은 이맘의 위치에 올랐을 때 심지어는 카디리야 종단의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샤밀에게 이슬람은 저항의 아이콘이었다. 이슬람은 대 러시아 투쟁의 수단이었다. 카디리야 종단이 추구하던 이슬람은 지하드 수단이 아니었다. 샤밀은 북카프카스 민족을 이슬람이라는 단일한 정신적 가치 아래 단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카디리야 종단의 예배 방식으로는 러시아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샤밀 자신만이 예배와 설교, 그리고 이슬람 삶의 방식에 있어 유일한 이슬람 이론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⁸⁾

제정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보다는 전쟁과 투쟁, 저항의 가치를 더욱 더 중요하게 수용하고 있었던 무리디즘 이데올로기는 진리의 길, 신에게로 향하는 타리카 신앙, 그리고 영원성, 즉 구원의 가치로서의 수피즘 이데올로기보다는 투쟁의 수단으로서의 이슬람 가치에 대해 더 몰두하고 있었다. 이들은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을 압박하였다. 쿤타 하지의 종교적 가르침도 군사적 저항으로서의 무리드 세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한 이들은 저항주의자들이었다. 샤밀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정러시아의 제국의 확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었다.⁹⁾

2. 쿤타 하지의 활동과 친러시아 담론

그러나 이맘 샤밀이 군사적 저항을 한 것과는 다르게 쿤타 하지의 당시의 입장은 무엇이였을까?

세이흐 쿤타-하지 키쉬에프(Kunta-khadzhi Kishiev) (이하 쿤타 하지로 표기)는 러시아가 제국 전쟁을 치르면서 남부 지역으로 세력권을 확장하면서, 북카프카스 민족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슬람 성전을 외치던 이맘 샤밀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 그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이슬람 메시지는 평화, 공존의 키워드였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이 종료되던 해인 1859년 이전에 이슬람 교의를 설교하기 시작했다. 쿤타 하지의 이슬람 설교는 아다트(전통적 관습법)에 기반을 두면서도 이슬람 초기 시기의 정통적인 칼리프 시기의 이슬람의 원칙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⁰⁾ 그는 1840년대에 하지를 행했고 당시에 수피즘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당시 수피즘 카디리야(Qadiriya)종단의 3명의 세이흐로부터 이슬람 신앙 교육을 받았다.¹¹⁾ 쿤타 하지는

6) 현시대에도 체첸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친러시아 경향을 가진 체첸 인들은 체첸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러시아와의 전투를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국가 독립을 획득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7) Алексей Малаш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Гендальф, 2001, С. 31.

8) Алексей Малаш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Гендальф, 2001, С. 31.

9) Л.А.Баширов,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ыпуск 39, Москва, 1989, С. 49.

10) M. Aglarov, Andiitsy (Makhachkala, 2002), p 120.

11) А.К.Аликберов, Эпоха классического ислама на Кавказе. Москва, 2003, С. 686.

카디리야 수피즘 종단의 지부를 세웠고 체첸, 잉구세티아, 서 다게스탄 등 북카프카스에서 종단 세력은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1847년 5월에 잉구세티아 지역에 수피즘을 포교하기 위해 들어왔다. 오늘날 잉구세티아 공화국의 스타니차 아시노프스카야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잉구시 인들에게 수피즘을 설교하였으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11일에 그는 산에서 매우 경건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산정의 기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3일 낮밤을 기도로 보냈는데, 현재 이 장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동시에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¹²⁾ 그는 잉구세티아 이외에도 다게스탄과 체첸에서 활동하였다. 원래 그는 쿠믹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게스탄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만, 다게스탄보다는 체첸에서 포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쿤타 하지는 영적 스승인 자말 에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 자말 에딘은 북카프카스 수피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쿤타 하지 뿐만 아니라 가지 무하마드, 샤밀 등에게도 수피즘 교의를 전파하고 교육시킨 이슬람 스승이다. 그는 처음에는 저항으로서의 수피즘 보다는 진리추구와 자기완성으로서의 수피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고, 쿤타 하지도 이러한 그의 입장을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 쿤타 하지는 이슬람 신앙 교육을 받은 직후에 타리카 교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단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제국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모든 이들이 다 성전(聖戰)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쿤타 하지는 러시아와의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했다. 체첸의 많은 무슬림들은 명상적인 카디리 타리카(Kadiri tariq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사회적 수동성과 영적인 자기완성을 주창하였다.¹³⁾ 쿤타 하지의 가르침에는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인 순니 종단이 아닌 시아 종단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아 종파를 탄생시킨 칼리프인 알리에 대한 회상이 빈번히 등장하였다. 쿤타 하지는 수피즘 종단 중 샤밀이 이끌던 낙쉬반디야 종단이 아닌 카디리야 종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카디리야 종단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노래와 춤이 동반되었다. 그리고 ‘지크르’(zikr)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는 큰 소리로 신을 찬미하는 외침이었다. 지크르 행위의 목적은 자신과 사회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쿤타 하지는 제정러시아와의 공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였다. 카디리야 종단이 추구한 수피즘은 절대 진리와 신에게로의 귀의를 목표로, 현존 질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쟁이 아닌 평화롭고 순수한 종교적 믿음을 설파하고 제정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군사 항쟁 보다는 평화와 화해로 러시아 측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종단의 교의 자체가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적이었다. 그들은 ‘타리카’의 순수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신에게 절대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그 어떤 세속적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종교적 헌신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즉 현실의 세계와 싸우지 말고 화해와 평화로써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에 몰두하며, 러시아제국의 군사적 공격에도 맞서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슬람은 평화의 교의”라는 것이 이 종단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다. 쿤타 하지의 출현을 민중들은 기적처럼 받아들였고 그의 설교를 생생하게 수용하였다. 그리고 민중들은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설교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받고자 했다. 그의 설교는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아주 먼 마을에서도 그의 명성을 듣게 되었다.

12) Julietta Meskhidze,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2006) 25(1-2), p. 181.

13)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bat to Jihad*, Santa Barbara, Denver, Oxford : Praeger, 2011, pp. 69-71.

한참 후에야 쿤타 하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이맘 샤밀은 자신의 통치기 중 후기 시대에 이르러 이 새로운 설교자는 이단자는 아니며, 기본적인 이슬람 원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수용해주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대 러시아 투쟁의 가치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으며, 쿤타 하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비주의와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타리카 교의에 몰두하고 제정러시아와 공존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쿤타 하지를 대했다. 이들은 쿤타 하지가 아주 고유한 이슬람 원칙들에 위배하는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직자들은 일반적인 이슬람 의식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크르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지크르 행위를 주장하는 쿤타 하지를 비난하였다. 지크르는 수피즘 종단 예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적 제스처이며, 노래를 부르고 고향을 지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지크르 행위는 천사를 매개체로 하여 알라와의 직접적인 교통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이슬람법에 위배된다고 간주한다. 이슬람 성직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쿤타 하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슬람 정신은 순니 이슬람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이슬람 도그마와 의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열의를 가지고 공식적인 예배를 인도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쿤타 하지는 지크르는 수피즘 타리카 교의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예배 의식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쿤타 하지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북카프카스의 순니 이슬람 성직자들과 순니 사상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순수하고 일반적인 무슬림에게는 쿤타 하지의 설교 자체가 수니파 종단 지도자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쿤타 하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쿤타 하지의 설교 자체가 대중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낙쉬반디야 수피 종단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쿤타 하지를 반대하고 그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북카프카스에서 샤밀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쿤타 하지의 입장은 명료했다. 카프카스 전쟁을 치르면서 체첸 민족은 많은 희생을 겪었다. 체첸 인들의 상황은 매우 힘들었다. 제정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카프카스 민족의 저항은 약화되었으며, 1850년대 들어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민중들도 늘게 되었다. 일부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식된 이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은 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모든 무슬림 교도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형제들과 더불어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슬람은 러시아에 저항의 교의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무슬림 교도는 신과의 합일, 신에 대한 복종, 그리고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¹⁴⁾

그의 가르침은 체첸을 포함한 북카프카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체첸의 인근 민족인 잉구시 민족에게로 쿤타 하지의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잉구시 민족은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러시아와의 지하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비주의와 이슬람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던 쿤타 하지의 신앙에 감복하였다.¹⁵⁾ 쿤타 하지의 설교로 일반 무슬림 교도들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쿤타 하지의 삶을 따르고자 하였다. 쿤타 하지는 빈자는 아니었지만, 매우 검소하게 살았으며, 수피들처럼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쿤타 하지의 권위는 그가 이슬람 선생, 즉 몰라(mullah)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더 큰 인정을 받은 경향이 있었다. 샤밀과 공식적인 성직자들은 그를 폄박하기 시작했다. 쿤타

14) А.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 1984, С. 132.

15) А.А. Саламов, Правда о святых местах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и. Сб. статей Чечено - Ингушского НИИ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ЧИ АССР. Грозный, 1964, С. 161.

하지의 삶과 설교에는 저항의 교의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종교적 신비주의는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 어떤 종교적 능력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¹⁶⁾

쿤타 하지는 수피즘이라는 신비주의 정신으로 이슬람 종교 이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는 무슬림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이슬람 물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 러시아 군사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입장과는 배치되게 도덕적-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쟁의 전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에게 있어 순종의 이념은 상호 존중과 상호 원조이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불행한 민중들을 돕고 그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신앙 본질의 우선으로 여겼다. 민중들의 운명은 신에게 의탁되어야 하며, 러시아인들로부터 받은 불행과 고통도 어루만져주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만약에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벌을 받을 것이다. 현실은 모든 것이고, 현실의 삶은 부패하는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의 삶이 지나가지만, 미래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¹⁷⁾

쿤타 하지는 메카에서 돌아 온 직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다.¹⁸⁾

형제들이여. 짜르의 권력은 매우 강력히 우리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강화되고 있다. 나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술탄이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희망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술탄 자신은 다른 아랍의 통치자들처럼 압제자일 뿐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향후 러시아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모스크로 가라고 말한다면, 성전(聖殿)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작은 철로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당신의 여인들이 언어, 문화, 관습을 잇으라고 압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기를 바란다. 민중의 자유와 명예는 언어, 관습, 문화, 우정이며 상호 이해이다. 서로의 행위 중에 남을 괴롭힌 일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해주고,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 연설을 통해 쿤타 하지는 육체적으로 아주 소진된 민중들의 사회적, 도덕적 상태와 삶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민중들의 운명을 동정하였으며,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는 이미 확립되어 있던 러시아의 제국 권력에 대한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삶의 모습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의 연설을 본다면, 쿤타 하지의 순종은 일종의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러시아가 여성들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산악 민족들의 언어, 관습을 강제인 방식으로 막게 된다면, 바로 그 때까지만 러시아에 순종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쿤타 하지는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자신들을 폭력적 행위로 다스린다면, 마지막까지 침입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쿤타 하지는 전쟁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불사한 무리디즘의 이념과는 대치되는 입장을 명확히 가졌다. 상기에 언급했듯, 무리디

16) A.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ь, 1984, С. 132.

17) X.Б. Мамлеев,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 и провести занятие по теме мюридизм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я и его реакционная роль. Грозный, 1974, С. 14.

18) X.Д. Ошаев,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секты толка "кадирия" или "зикристы")//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к - Ростов на Дону, 1930, No. 9-10. С. 61.

즘 운동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와 식민 정책에 반대하고 끝까지 군사적 항쟁을 주장했던 북카프카스 이슬람 제자 운동이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군사적 항쟁의 유무에 있었다. 쿤타 하지의 결정적 가르침은 순종이라는 종교적 철학이었다. 쿤타 하지는 1862년에 다시 메카를 방문하였다. 그는 당시 메카에서 동방의 신비주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매우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동방의 신비주의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방향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지크르 등 수피즘의 인식과 신에게로 향하는 신비주의적 종교성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가졌다.

쿤타 하지는 빈곤한 이들의 마음에 이슬람의 가치를 심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삶에 있어서 빈한한 모습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항상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녔으며, 제자인 무리드로부터 필요한 물품들을 받지 않았다.¹⁹⁾ 그런데, 이후의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쿤타 하지의 이러한 외양적인 행위에 대해 속임수라고 평가절하하고 이러한 모습을 취한 것은 일종의 나쁜 의도로 자행되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9세기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쿤타 하지의 금욕주의는 어떠한 인기를 획득하기 위한 허영심 많은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쿤타 하지가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당시 북카프카스 사회의 내적 확신으로서의 그의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총을 드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무슬림은 진정한 사랑과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 쿤타 하지는 다른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억지로 수령하도록 강요가 될 시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의 행적이다. 쿤타 하지의 도덕적인 원칙들은 휴머니즘적인 성격이며, 선한 마음의 행위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북카프카스의 민중이 겪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절에 쿤타 하지는 영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민중들을 도덕적인 고양함과 청결로 이끌었다. 쿤타 하지는 체첸, 잉기쉬, 다게스탄 민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종교 지도자이다. 체첸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쿤타 하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노래 등이 많다. 그의 아우라를 인정하는 추종자들은 그가 천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제자인 무리드와 무슬림을 신의 내세의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쿤타 하지는 타리카 교의를 통해 잉기쉬 민족이 샤리아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무슬림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체첸과 잉기쉬 사람들은 19세기에 이슬람의 기본적인 교리 중 수피즘을 수용하였다. 쿤타 하지는 1859년 카프카스 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다.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편지를 통하거나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1859년에 샤밀 군대는 러시아 군대에 항복했고 샤밀은 포로가 되었다. 당시에 아랍에 있었던 쿤타 하지도 바로 카프카스로 돌아왔다. 이후에 점차로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²⁰⁾

3. 카프카스 전쟁 이후의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

1859년에 카프카스 전쟁이 종식되었다. 공식적으로 카프카스 전쟁은 1864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859년은 이맘 샤밀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해였고, 이로써 러시아에 격렬하게 저항한 북카프카스 민족의 저항은 결정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 물론, 카프카스 전쟁 이후에도 저항으로서의 수피즘, 즉 무리디즘을 추구한 무슬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전쟁 이후에도 수피즘 종단 내에서는 이슬람의 교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2개의 수피즘

19) Ислам.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С. 134-135.

20) Халид Ошаев,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1930, No 9-10, С. 50.

그룹이 존재했다. 하나의 그룹은 쿤타 하지 자신이 이끌고 있었으며, 상기에 언급했듯이, 추종자들은 신비주의 이슬람으로서의 수피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들은 쿤타 하지를 새로운 이مام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적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다른 그룹은 세속적인 경향의 이슬람, 즉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지하드를 선포하고 군사 항쟁을 한 이들이었다.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러시아에 저항하던 이들을 ‘나이브 무리드’라고 칭하였다.

체첸의 모든 지역은 구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종교-정치 구성체로 분할된 체제였다. 카프카스 전쟁 이후 대부분의 마을에는 쿤타 하지 추종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비주의적인 수피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쿤타 하지 추종자들은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인들과의 공존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의 평화로운 교의를 설파하는 데 애썼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투쟁을 통해 제정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는 수피 그룹들은 존재했다. 그들은 가자바트, 즉 지하드 이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공공연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제정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해 종교적 교의를 이용하였다.

쿤타 하지의 추종자 중 책임자를 러시아어로 타마드(Тамад)라고 언급하는데, 타마드는 신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베킬’에 종속되어 있었고, 서로에게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연결되어 있었다. 타마드는 자신의 휘하에 두르크흐를 둔다. 두르크흐는 책임자들의 명령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카프카스 전쟁 이후에 쿤타 하지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체첸 민족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그것이었다. 쿤타 하지는 영적으로 권위자였으며, 이러한 영적인 권위로서 북카프카스 인들을 다스리고자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체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쿤타 하지에게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도 있었다.

샤밀이 러시아 군에 항복하고 카프카스 전쟁이 종식 되고 난 1859년 이후에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은 급증하였다. 1860년대와 1870년대 동안, 정치적 경향을 가진 무리디즘, 즉 낙쉬반디아 수피즘의 전투적 모습은 거의 약화되었다. 주지하트, 낙쉬반디아 수피 종단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통치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투쟁을 벌였던 종단이다. 그 대신에 제정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을 주창한 카디리야 수피즘, 특히 쿤타 하지 종파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즉 이것은 러시아가 카프카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정러시아에 투쟁한 낙쉬반디아 수피 그룹의 세력은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에 참여한 수천 명의 낙쉬반디아 수피즘 종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북카프카스 거주민들은 오스만 제국으로 전격 이주하기도 했다. 일부 낙쉬반디아 수피 종파도 차르 정부의 비밀경찰의 활동으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있었다. 종파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졌다.²¹⁾ 살아남은 낙쉬반디아 무리드들은 카프카스 전쟁과 연관되지 않은 기타 타리카 종단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산악 지역으로 숨어 은거하였다. 그리고 일부 낙쉬반디아 그룹은 쿤타 하지의 카디리야 종단에 참여하였으며, 쿤타 하지 종단은 가장 큰 수피 종단으로 부상하였다.²²⁾ 다게스탄의 낙쉬반디아 그룹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체첸, 다게스탄의 낙쉬반디아 수피 종단의 후손들은 1870년대에 다른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카디리야 수피즘 종단의 추종자들의 수는 1863년까지 급속히 급증하였고 5,000명 이상을 헤아렸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성이었다.²³⁾ 종단의 정신적, 정치적 기반으로

21) Galina M. Yemelianova "Sufism and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Vol. 29, No. 4, 2001, p. 664,

22) 위의 글, p. 664,

23) Вахит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 Н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35. 42.

서 쿤타 하지는 일종의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했다. 체첸과 잉구세티아는 소위 ‘나이트’ 구역으로 나누어졌으며, 획정된 구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는 자신의 가신이였다. 그러나 이맘 샤밀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이 늘어나자, 러시아 정부로서는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역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쿤타 하지의 권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테렉 유역의 총독-사령관인 스바토폴크 미르스키는 1862년에 그의 활동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쿤타 하지와 가족은 러시아정부의 감시 하에 있었다. 1864년 1월 3일, 쿤타 하지는 새로운 총독-사령관인 로리스-멜리코프에 의해 아르군 지역에서 체포되었다.²⁴⁾ 그는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노보체르카스크로 수감되었고, 특별한 감시를 받았다. 이후 노브고로드 주로 수감되었다. 쿤타 하지는 일명 “성스러운 편지”라고 불린 편지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남겼다. 수감되어 있는 도중에 그는 기적을 많이 베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심지어 쿤타 하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물위로 걸어가는 신비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설이 있었다.²⁵⁾ 그가 체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은 러시아 정부에 그가 다시 체첸 지역으로 석방되어서 돌아오기를 요구했지만, 러시아정부는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쿤타 하지의 체포 이후 카디리야 종단도 몇 그룹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플리에보 마을에서는 후세인 하지(Huseyn Hajji), 나시르-코르트 지역에서는 하이르베그 하지(Hayrbeg Hajji), 수르코키 마을에서는 바탈 하지(Batal Hajji) 등이 카디리야 수피 종단을 각각 이끌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피즘 추종자들은 원래의 쿤타 하지의 전통성을 따랐으며, 이들은 쿤타 하지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후 카디리야 종단은 분화 과정이 있었으며, 각각은 고유의 지크르와 이슬람 의식 등을 행하였다. 카디리야 종단 중에서 가장 큰 종파는 체첸 출신의 세이흐인 바마트 기레이 하지(Bammat Girey Hajji)가 이끄는 종파였다.²⁶⁾ 바탈 하지는 쿤타 하지의 추종자가 되었다. 1864년 쿤타 하지가 노브고로드로 유형을 떠난 이후에 그는 독립성을 가지고 수피즘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카디리야 종단에서 자신이 설립한 종파를 운영하였는데, 쿤타 하지의 종단에서 이탈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쿤타 하지의 추종자였던 바마트-기리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종파에도 잉구시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잉기쉬 민족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 있어서 카디리야 종단은 눈에 띄는 활약을 하였다. 이 종단은 민중의 연합, 관습과 전통의 유지,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였다. 쿤타 하지 종파는 지금 체첸에서 가장 강력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수피즘 조직은 카디리야 종단의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완성하고 있는데, 영적, 도덕적, 신비주의적 자기완성을 획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온 쿤타 하지의 영성을 충분하게도 이어오지는 못했다.²⁷⁾

24) Julietta Meskhidze,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2006) 25(1-2), p. 181-182.

25) Вахит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 Н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200.

26) Julietta Meskhidze,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2006) 25(1-2), p. 182.

27) 오늘날의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은 자주 수피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쿤타 하지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빈곤한 자, 고아, 과부 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었으며, 현대 체첸 사회에서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이러한 그의 선한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쿤타 하지의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 체첸과 잉기쉬 민족 등 바이나흐 민족계에서 이슬람을 영적, 도덕적, 정신적 삶에 있어서 표본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것은 산악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아다트와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샤리아와 아다트의 충돌은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로 이슬람은 민족적인 모습을 띠고 발전해 나온 것도 사실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다게스탄에서는 체첸어로 115권이 저술이 출판되어 나왔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랍어로 저술이 이루어졌는데, 이 체첸어 저술은 대부분 아랍

쿠타 하지의 체포로 인해 그의 추종자들과 러시아 군대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났으며, 쿠타 하지 측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살리 마을에서 그들은 투마노프를 사령관으로 하고 러시아 군대에 맞섰으나, 전쟁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쿠타 하지 측은 오로지 신의 도움만 구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전쟁 결과로 100명 이상의 무리드들이 전사하였다.²⁸⁾ 이때부터 쿠타 하지 추종 세력도 약화되었으며, 그 수도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슬람 성직자들은 제정러시아와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쿠타 하지는 1867년에 유형 중에 사망하였는데, 이후 체첸과 잉구시 민족의 카디리야 종파의 세력은 더 많이 확산되었다. 제정러시아는 북카프카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일단의 지하드를 주장하던 세력이 1877-1878년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러시아는 이를 제압하였다.²⁹⁾ 카디리야 수피 그룹은 러시아의 통치를 내부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정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디리야 수피 종단에 소속된 이슬람 재판관, 이슬람 선생, 무슬림 성직자들은 제정러시아의 비호 하에 일할 수 있었다.³⁰⁾

4. 쿠타 하지의 수피 교의의 확산과 그 이유

그렇다면 쿠타 하지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 당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했는데, 쿠타 하지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사회공동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카디리야 수피즘의 교의가 확산된 측면이 있었다. 쿠타 하지가 수용하고 있었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는 일이 신앙적 가르침의 기본으로 수용되었다. 쿠타 하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토지 개간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다양한 농업 도구를 가지고 노동력을 투자해서 농사 개간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무슬림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는 제자인 무리드는 이러한 목적으로 농업 경작이나 가축 목축 등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쿠타 하지에 따르면, 무리드는 봄과 가을의 농번기 때에 경작과 수확 이전에 회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과부와 고아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쿠타 하지는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있으면 타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전한 무리드는 절대로 권력을 쟁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남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여성들을 대해야 하며, 남자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여성들은 자매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공동체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결혼을 할 때에 남성은 여성의 집안에 과도한 지참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가르침에는 식사와 생활 등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검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다. 담배를 금하고 음주를 멀리해야 한다

어, 페르시아어로 된 종교서적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수피즘을 다룬 책과 역사책과 문학책으로 출간되었다. 마이나흐 민족의 민족문화 형성에 있어서는 쿠타 하지의 삶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 뿐만이 아니라 수피즘 전파 운동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A.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 1984, С. 133.

29) Wimbush, *Mystics and Commissars*, p. 10; S. Prozorov, ed., *Islam na Territorii Bivshei Rossiiskoi Imperii*, Vol. 1 (Moscow: Vostochnaia Literatura, 1998), pp. 61-62.

30) Wimbush, *Mystics and Commissars*, p. 10; interview with Shamyil Beno, a Naqshbandii and a Moscow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Chechnya, Moscow, 24 April 2000.

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이다. 쿤타 하지는 종교적인 일이나 세속적인 일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무리드에게 일정한 허락을 구했다. 하루 5번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나 명절 때 성지와 성묘 등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때에는 <지크르> 예식을 항상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지크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며,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³¹⁾

그는 사회적 공동체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체첸과 잉기쉬 민족의 전통성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전통성은 민족의 관습이요, 문화적 가치였다. 그러한 가치는 무슬림의 신적인 인식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공동체성은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인정해야 할 알라를 수용하고 서로 간에 무슬림이라는 형제애로 뭉쳐야 한다는 그러한 형태로써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씨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 내에서는 형제로 간주된다. 종교적 공동체는 형제애를 가지고 있으며, 씨족공동체인 타입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순응한다. 만약에 씨족공동체가 혈연관계로 결속되어 있다면, 무리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승이 속해있는 무리드 공동체의 구성원을 하나로 결합하는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지게 된다.³²⁾

둘째, 쿤타 하지의 교의가 일반 민중들에게 수용되었던 측면 중의 하나는 제정러시아의 매우 혹독한 탄압에 기인한 측면도 있었다. 러시아는 카프카스 전쟁을 치르면서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에서 매우 무자비한 방식의 토벌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러시아군대는 마을을 불태웠으며, 군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숲의 관목들을 다 제거하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 등, 전쟁에 유리한 잔인한 방식을 동원하였다.³³⁾ 물론,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카프카스 주민들의 저항을 강하게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강력한 진압 방식 등으로 카프카스 거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다. 러시아는 군대 원정을 자주 단행하였으며, 작전 도중에 거주민들을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민중들은 카프카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셋째, 러시아에 성전을 선포하고 저항을 한 이맘 샤밀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보여주었던 행태가 일반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맘 샤밀이 행동도 일부 민중들에게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맘 샤밀의 존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 민중이 그로부터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샤밀로부터 이탈하는 민중들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종결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³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무렵에 점차로 전쟁에 피곤해진 민중들은 쿤타 하지의 가르침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넷째, 쿤타 하지의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러시아인들과의 평화를 호소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것은 카프카스 전쟁의 후반기에 민중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수피즘 타리카 교의 자체가 무슬림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절대적인 선과 진리, 그리고 무슬림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종교적 성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카디리야 종단의 가

31) Халид Ошаев,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1930, No 9-10, С. 49.

32) Л.А.Баширов,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ыпуск 39, Москва, 1989, С. 48-49.

33) Firouzen Mostashari, On the Religious Frontier. Tsarist Russia and Islam in the Caucasus. London, New York : I. B. Tauris, 2006, pp. 9-22.

34) 제정러시아의 군대가 다게스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첸을 경유해야만 한다. 체첸은 다게스탄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요충지인데, 체첸으로부터 식량을 봉쇄한다면, 다게스탄 거주민들은 기아에 빠질 우려가 항상 있었다. 샤밀은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카프카스 전쟁의 후반부에는 12년 동안 체첸 지역을 거주지로 삼았다. 특히 체첸의 베테노가 신정국가의 핵심 도시가 되었다.

르침은 특히 쿤타 하지와 바탈 하지에 의해 잉구시 민족에게로 전파되었다.

무리드는 이슬람의 모든 명령을 성스럽게 준수해야 한다. 무리드는 다른 민족이나 씨족들에게도 그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적의 있게 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쿤타 하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를 보는 경우는 단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적수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타리카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후계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일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경계하였다.³⁵⁾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본다면, 쿤타 하지는 진정한 타리카주의자였다. 쿤타 하지는 타리카 교의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금욕주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경작한 빵을 주식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돌보았던 가축의 우유나 고기를 먹었다. 쿤타 하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와 사생활에서의 가르침의 실천, 그리고 이슬람 훈육에 있어서의 엄격함 등으로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당시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하고 항쟁하고 있었던 이맘 샤밀의 권의 보다 결코 적지 않은 명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쿤타 하지의 개인적인 자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거의 60년이나 지속된 제정러시아와의 전쟁, 특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그러한 전투로 인해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에서의 민중들은 큰 고통 속에 있었고, 이러한 때에 그의 평화의 교의가 매우 강력한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III. 쿤타 하지의 종교적 정신 : 평화와 공존의 가치, 그리고 신적 진리를 향한 수피즘 교의

3장에서는 쿤타 하지의 종교적 정신, 특히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서의 수피즘 이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수피즘은 진리추구의 자기완성과 무슬림 움마(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을 추구한다. 즉, 수피즘에는 두 가지 사상적 경향, 신비주의-금욕주의 경향과 정치적 경향이 있다. 그런데, 카프카스 전쟁의 시기에 '타리카'의 가르침은 성전으로 치닫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쿤타 하지는 카디리야 종단을 이끈 인물이다. 카디리야 종단의 가입식은 아주 단순하다. 쿤타 하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라에 선택된 자로서의 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그가 매일 5번의 기도와 '샤하다'³⁶⁾(shahada)를 100번 계속 외우게 한다. 그리고 입회자의 알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알라와 세이흐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입회식 행사를 마친다. 종단 참여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의식은 높은 목소리로 지크르를 외치는 일인데, 이는 신을 찬양하면서 원을 지어 춤을 추고 높은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한다. 처음에 이 춤은 몸을 느리게 움직이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빠른 움직임으로 원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형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로 찬양을 한다. 찬양의 주제는 다양하다. 위대한 성인과 성인이 행한 여러 가지 사건, 일반적 무슬림에 관한 주제들, 신을 향한 찬양, 쿤타 하지를 향한 칭송, 그리고 정의로운 칼리프였던 알리에 대한 찬양 등이다. 찬양 의식의 목적은 변화하는 세계와 자연을 기억하면서, 신 앞에서의 의무, 도덕적인 삶과 행위 등을

35) 실제적으로 쿤타 하지가 죽은 이후에 그의 추종자중의 일부는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36) 샤하다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자들에게 요청하는 일, 그리고 이슬람의 모든 계명 등을 성실히 준수하자는 바람 등을 나타내며,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직성을 추구한다. 지크르를 수행한 이후에 기도문을 낭독한다.

쿤타 하지는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지크르 행위를 매우 강하게 전파한 인물이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의 와중에 벌어졌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졌다. 러시아와의 전쟁 행위는 신에 대한 적대적인 일로 여겼으며, 무엇보다도 무슬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 거룩한 심성, 형제의 도움, 삶의 평화스러운 원칙 등이라고 강조했다. 지크르 행위도 일종의 무슬림 세계에 있어서 반 지하드 분위기를 주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샤밀과 공식적인 성직자들은 지크르 행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빨리토프는 샤밀은 카디리아 종단에서 주장하는 타리카 교의를 아주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쿤타 하지를 핍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⁷⁾

그렇다면 수피즘에 있어서 스승인 셰이흐와 제자인 무리드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체첸 이슬람 학자인 아카예프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수피즘의 원칙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원칙은 낙쉬반디야 종단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밝히고 있다.³⁸⁾ 카프카스에 수피즘을 널리 퍼뜨린 자말-에딘은 셰이흐와 무리드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제자는 정신적인 완전성에 도달하고 신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스승을 모셔야하며, 자신이 스승을 매개체로 하여 신에 대한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스승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내지 말아야한다.³⁹⁾ 스승은 매우 풍부한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이며, 제자의 심장에 이러한 영적 원칙과 감동을 전해주는 존재이며, 영혼의 인식 내지는 영혼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⁴⁰⁾

쿤타 하지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제자인 무리드를 도와주고 올바른 신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스승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영적진리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쿤타 하지는 그래서 제자와 관련되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만약에 다양한 장소에서 2천명의 영적 제자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셰이흐는 각각의 육체로부터 영혼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리드의 행위에 대해 천사들에게 개별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어가는 무리드의 곁에 셰이흐가 없다고 한다면, 죽음의 천사는 무리드의 죽음에 대해 둔감해져 있을 것이며, 스승인 셰이흐는 죽음 앞에 직면한 자신의 무리드를 보호하며, 동시에 죽음 이후의 무시무시한 장소로부터 무리드를 지켜주는 존재이다”라고 언급하였다.⁴¹⁾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셰이흐는 매우 강력한 영적 파워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신을 추종하는 일반인들과는 공통성이 많지 않다.

쿤타 하지는 이슬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6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셰이흐와 무리드의 절대적이고 매우 강력히 결합된 관계이다. 둘째, 무리드의 마음은 종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삶의 범주 내에서 무리드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쓰라린 죄악을 범하게 된다. 넷째, 무리드는 사람들과의 정당한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무리드는 형제와 무슬림을 향한 악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37) А.П. Ипполитов, Учение зикр и его последователи в Чечне и Аргунском округе ССКГ. - В ып. II. Раздел 2. Тифлис, 1869. С. 2.

38) В.Х.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НИИГНЧР, 1994,

39) Адабуль-Марзия. Правила достойных приличий). сочинение шейха Джамалутдина казимум ухского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й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ах (ССКГ). Вып. II. Тифлис, 1869, С. 42-43.

40) 위의 글, С. 42-43.

41) Акаев В. Х.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51.

무리드가 있는 면전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무리드는 즉시 비방을 논박해야 한다. 여섯째, 무리드의 의무는 만약에 자신의 셰이흐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셰이흐를 자신의 스승으로 정해야 한다.

쿤타 하지에게 있어서 셰이흐는 무리드와 신과의 사이에서의 중개자이며, 신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이다. 즉 그에게 셰이흐는 제정러시아에 대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서 수용된다. 무리드가 신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은 코란과 순나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며, 이것은 셰이흐의 영적 권위의 길을 준수하며 따라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위배하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데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거나 귀를 기울이는 무리드는 질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도적인 행위를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무리드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가르침이다. 그는 만약 무리드가 모든 이에게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만족한다면, 그는 도덕적인 완성과는 관계없는 이가 되며, 그런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⁴²⁾ 그의 관점에 따르면, 무슬림은 신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최고의 정신적인 고양함에 이를 수 있다. 만약에 제자인 무리드가 신, 선지자, 그리고 셰이흐의 길에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신에 대한 경외감으로 충만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무리드는 신, 선지자, 셰이흐로부터 멀어진다.⁴³⁾ 그런데, 무리드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대한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자신보다 더 고상하고 신적인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며, 심지어는 아름답지 못한 행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입장이다.

쿤타 하지는 진정한 무리드는 다른 이들의 악에 대해 용서를 해주는 무슬림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는 신 앞에서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라의 이름을 기억하며, 진정한 무리드라면, 악담을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는 신의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다. 즉 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평화의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의 가르침은 셰이흐의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이다. 쿤타 하지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싶는데,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머리 수건을 묶고, 자신의 결함과 죄로부터 깨끗이 하고, 이후에 머리를 묶으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 그만큼, 제자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수피의 가르침에서 쿤타 하지는 마음의 청결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하미드 알-가잘 리가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는데, 그는 만약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언을 하게 된다.⁴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⁴⁵⁾ 쿤타 하지는 거만, 욕심, 멸시 등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물리쳐야 할 것들이며, 이런 상태가 무리드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스승과 같은 고양된 진리의 길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자인 무리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영적인 탁월함을 소유하게 되며, 죄악을 털 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쿤타 하지는 체첸 공동체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반대하였다. 그는 무

42) Акаев В. Х.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52.

43) 위의 글, С. 52.

44) Ал-Газали А.Х.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0, С. 108.

45) 위의 글, С. 109.

슬림 율법인 샤리아 앞에서 모든 무슬림들은 평등하다는 점을 주창한다. 선지자는 샤리아의 원칙을 설파해왔으며, 믿음의 길인 타리카의 믿음을 가르쳐왔다. 샤리아와 타리카는 무슬림 행위의 기본이다.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읽는 것도, 글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 쿤타 하지에 따르면, 알라는 원하는 이에게 지혜를 주었으며, 알라께서 의도하는 대로 그 지혜를 허락해왔다. 그러므로 이슬람 선생인 물라가 반드시 코란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⁴⁶⁾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면서 쿤타 하지는 알라와 대면할 때에 반드시 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⁴⁷⁾ 수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진리대로 행위를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가르침이다. 그는 타리카를 가르치는 세이흐는 샤리아 인식을 통해 신에게로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수피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 쿤타 하지는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한다. 신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신을 향한 사랑으로써 이루어진다.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압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소위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알라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신적 인식이 어떠한 기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매개체는 진심어린 사랑을 통해 형성되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으로 이루어진다. 수피들을 위한 인식의 과정은 상상적이고 신비한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신은 직감의 상상력에 의해 현현된다. 신에 대한 인식은 단지 성스러움으로 이루어진다. 쿤타 하지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인식의 매개체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나에 의존하면서도 알라로 향하는 인식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성스럽게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쿤타 하지는 신에 대한 인식의 이성적인 기능을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것과 연결하는 시도를 수용한다. 누군가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는 타리카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슬람 교회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서로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이다. 왜냐하면 세이흐 자신은 세상의 가치에 초연해왔기 때문이다. 한 조각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황금을 가진다고 더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황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도 땅 한 조각을 상실한 것보다 더 많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알 가잘리는 수피즘 금욕주의에 대해 언급했는데, 금욕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서는 안 되며, 상실한 것으로 인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자신을 비난하든, 아침을 하든 그 어느 쪽에도 무관심해야 하는 경지이다. 금욕의 첫째 징후는 재산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둘째,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 셋째, 알라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알라와의 일체감이다. 금욕의 마음에서 세상으로의 집착에 하나의 발을 걸쳐놓고, 하나의 발을 알라와의 일체감에 놓아둔다면, 그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다.⁴⁸⁾ 알 가잘리는 “순간적으로 당신조차도 지나가는 이 세상에 대해 당신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찾아왔던 것에 기뻐하지 않기 위해 알라는 모든 거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⁴⁹⁾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적인 인식은 제정러시아와 관련해서 쿤타 하지의 입장에서 수피즘과의 연관성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공동체성의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쿤타 하지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사회적인 가치와의 관련성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목표는 완전한

46) Акаев В. Х.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С. 53-54.

47) Акаев В. Х.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54.

48) Ал-Газали А.Х.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0, С. 201.

49) Ахмадов Ш.Б. Имам Мансур. Грозный:Книга, 1991, С. 74.

사회적인 순응성이었다. 그는 민중들에게 현재 존재하는 질서와의 투쟁보다는 그것과의 화해를 촉구했다. 즉 제정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먼저 촉구했다. 그는 이 새로운 가르침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겼다. 그는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의 이념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가졌다. 화해는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했다. 그의 신앙의 가르침은 초창기 칼리프 이슬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개념을 무슬림의 삶에 재현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믿는 사람과 신과의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가지고 셰이흐는 수피즘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수피즘의 사상에도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신적인 가르침은 존재했다. 그러나 쿤타 하지에게 그러한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의 수피즘 정신은 신에게로 향하는 수피즘의 전형적인 믿음의 길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었다.

IV. 결론

본 논고는 19세기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활동한 수피즘의 지도자인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 그가 참여한 카디리야 종단의 수피즘 이념을 통해 친 러시아 담론으로서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제정러시아는 카프카스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외교 전략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카프카스 민족의 저항 의식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었다. 본 논고는 저항으로서의 북카프카스 민족의 다양한 군사적 측면과 이념보다는 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의 길을 수피즘이라는 이슬람 정신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쿤타 하지의 삶을 통해 이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러시아는 18세기 이후로 북카프카스 지역을 정복해 나갔으며, 19세기 이후 다게스탄, 체첸 민족 등과 카프카스 전쟁을 벌이면서 이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이맘 샤밀을 중심으로 북카프카스 민족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매우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18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쟁은 러시아의 결정적 우세로 진행되었다. 당시에 북카프카스 민족은 매우 강력한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저항했다. 적어도 19세기 북카프카스에서 지하드는 매우 강력한 군사주의의 형태였으며, 강력한 제국과의 전쟁을 회피하지 않았던 북카프카스 이슬람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로 전개된 측면이 강하다. 북카프카스 거주민들은 매우 강력하게 제정러시아에 저항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지하드는 제국의 침략에 맞선 민중들의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담은 신앙의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이슬람 전쟁과 전적으로 다른 형태로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매우 유연한 이슬람 운동, 즉 매우 강력한 제국과의 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쿤타 하지의 수피즘 사상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고에서는 제정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을 주창한 그의 사상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쉬반디아 수피즘에 가려있던 카디리야 수피 종단의 다양한 모습을 기억해야 하며, 특히 수피즘의 절대적인 신에게로 향하는 진리추구가 사회적 공동체성의 평화와 공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쿤타 하지의 사상은 전쟁의 막바지에 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전투로 평화로운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민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본 논고에서는 카디리야 종단의 인식과 의식이 신을 향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는 모습이며, 이는 전쟁과 투쟁의 모습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카디리야 종단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노래와 춤이 동반되었다. 그리고 ‘지크르’라고 하는 의

식이 있는데, 이것은 큰 소리로 신을 찬미하는 외침이었다. 이 행위의 목적은 자신과 사회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수피즘의 원칙을 따르면서, 무슬림은 신과의 합일, '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타리카 교의에 몰두하였다. 지크르는 천사들을 매개체로 하여 알라와의 직접적인 교통을 이루며, 신을 찬양하면서 원을 지어 춤을 추고 높은 목소리로 성가를 부른다. 이 춤은 몸을 느리게 움직이면서 시작되다가 점점 빠른 움직임으로 원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크르를 통해 신 앞에서의 의무, 도덕적인 삶과 행위, 이슬람의 모든 계명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 카디리야 종단의 이맘인 쿤타 하지는 지크르는 수피즘 타리카 교의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예배 의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쿤타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이 제정러시아와 평화와 공존의 입장을 가지면서, 낙쉬반디야 수피즘 종단은 매우 분노했으며, 대 러시아 군사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갔으며, 이 2개의 수피즘 종단은 당시 현실적 상황을 두고 매우 강력히 대립하였던 것이다.

친러시아 정책을 매우 강력히 펼치는 람잔 카디로프가 현재 러시아 연방 내 체첸공화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매우 혹독한 인물로서 체첸 인들을 매우 강력히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체첸 인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은 정치적, 군사적 권력이다. 즉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19세기 중반 동일한 친러시아 담론을 이끌어간 쿤타 하지의 삶은 이러한 무기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동일한 친러시아적 경향이었지만, 판이하게 이 2명의 인물은 배치된다. 오늘날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때에 150년전에 활동한 쿤타 하지의 삶은 이슬람권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평화와 공존의 담론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20호, 2000, p. 277.

정세진, “북카프카스 수피즘 연구 - 신비주의 관념과 반러시아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1집, 2009, pp. 5-6.

Fereshteh Ahmadi Lewin, Development Towards Wisdom and Maturity: Sufi Conception of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Vol. 5, No. 3. 2000, p. 137.

Firouzen Mostashari, On the Religious Frontier. Tsarist Russia and Islam in the Caucasus. London, New York : I. B. Tauris, 2006, pp. 9-22.

Galina M. Yemelianova “Sufism and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Vol. 29, No. 4, 2001, p. 664.

Julietta Meskhidze,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2006) 25(1-2), p. 181.

Lesley Blanch, T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London : TPP, 2009, pp. 60-62.

M. Aglarov, Andiitsy (Makhachkala, 2002), p 120.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bat to Jihad*, Santa Barbara, Denver, Oxford : Praeger, 2011, pp. 69–71.

Shreen T. Hunter,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Armonk, New York, London: M.E. Sharpe, 2004, p. 11.

Wimbush, *Mystics and Commissars*, p. 10; S. Prozorov, ed., *Islam na Territorii Bivshei Rossiiskoi Imperii*, Vol. 1 (Moscow: Vostochnaia Literatura, 1998), pp. 61 – 62.

А.А. Саламов, *Правда о святых местах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и*. Сб. статей Чечено – Ингушеского НИИ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ЧИ АССР. Грозный, 1964, С. 161.

А.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 1984, С. 132.

Адабуль–Марзия. *Правила достойных приличий*). сочинение шейха Джамал утдина казимумухского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й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цах (ССКГ). Вып. II. Тифлис, 1869, С. 42–43.

Алексей Малаш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Гендаль ф, 2001, С. 31.

А.К.Аликберов, *Эпоха классического ислама на Кавказе*. Москва, 2003, С. 686.

Ал–Газали А.Х.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0, С. 108.

А.П. Ипполитов, *Учение зикр и его последователи в Чечне и Аргунском округе* ССКГ. – Вып. II. Раздел 2. Тифлис, 1869. С. 2.

Ахмадов Ш.Б. *Имам Мансур*. Грозный: Книга, 1991, С. 74.

Вахит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 Н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1994), С. 35. 42.

Ислам.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С. 134–135.

Л.А.Баширов,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 выпуск 39, Москва, 1989, С. 49.

Халид Ошаев,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1930, No 9–10, С. 50.

Х.Б. Мамлеев,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 и провести занятие по теме мюридизм в Чечено – Ингушетия и его реакционная роль*. Грозный, 1974, С. 14.

Х.Д. Ошаев,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секты толка "кадирия" или "зикристы")*//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 Ростов на Дону, 1930, No. 9–10. С. 61.

■ 제 2세션(14:00 -16:00)

남카프카스 학적 체계와 담론 : 제국, 종교, 지정학

· 사회: 고상두(연세대)

· 발표자

기계형(한양대) : 러시아제국의 아르메니아 지배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아르메니아
이미지의 변화

김정훈(배재대) : 아르메니아 종교 문화의 정체성

이영형(한양대) :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구조와 개입 · 확산지정학

· 토론자: 정세진(한양대), 석화정(공군사관학교), 우준모(선문대)

러시아-아르메니아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19세기 말의 ‘아르메니아 문제’

기계형(한양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수많은 열강들과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생존의 전략을 만들어내면서 역사를 이어온 민족들 가운데, 아르메니아만큼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국가도 없을 것이다. 아르메니아에 관한 서술은 20세기 초 유례없는 대량학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와 연결될 정도로 그들 역사에서 이 주제는 초미의 관심인 것이 사실이다. 논문에서는 이 문제의 좀 더 깊은 연원으로 올라가보려고 한다. 특히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제국과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의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과도한 ‘러시아화’ 정책과 그를 둘러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 카프카스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제국 안에서 놀라운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 19세기 말 특히 티플리스와 바쿠 등지에서 석유산업의 발전하였고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향력은 단연 두드러진 것이었다. 그런데, 왜 아르메니아인들은 주변의 민족들과 반목하게 되었는가. 아나톨리아 동부지역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오스만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왜 공격을 받게 되었을까? 카프카스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유럽문화를 받아들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왜 짜르정부의 관리들은 황제에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을까? 왜 짜르정부는 교구학교를 폐쇄하고 교회재산을 몰수했는가? 왜 그루지아인들과 아제르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을까?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 혁명의식은 실제로 얼마나 공유되고 유포되었을까?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들을 연구해왔다. 로널드 수니(Ronald Suny), 마누엘 사르키샨즈(Manuel Sarkisyanz)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러시아 아르메니아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대해 분석했다.¹⁾ 특히 수니는 티플리스 산업에 미친 아르메니아인의 영향력과 바쿠의 혁명운동을 포함해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주의와 혁명운동의 상관관계를 잘 밝혀냈으며, 그 외에 민족 간 긴장과 알력문제를 다룬 모스타샤리(Mostashari), 알트슈타트(Altstadt) 등의 연구가 있다.²⁾ 한편, 아르메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1) Ronald Suny, *Looking Toward Ararat: Armenia in Modern Hist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Manuel Sarkisyanz, *A Modern History of Transcaucasian Armenia: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Leiden, Netherlands: E.J.Brill, 1975)

영향력, 아르메니아혁명의 이념 등에 대해서도 해명되었다.³⁾ 다른 한편, 아르메니아의 운명은 짜르정부의 정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농노해방 이후 개혁의 분위기 속에서 1870년대에 시행된 지방개혁(Zemstvo)이 카프카스지역에 확대되고 위테의 정부주도 산업화정책, 그리고 짜르 정부의 러시아화정책은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⁴⁾ 러시아제국과 아르메니아 관계에 집중한 연구들도 그동안 꽤 출간되었다.⁵⁾ 그런데, 아르메니아의 경우 유럽열강들 사이의 다양한 알력과 경쟁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정책 및 국제적 관계가 아르메니아인의 운명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되었다. 크림전쟁 이후의 러시아의 상황, 국제적 구도, 러시아-오스만제국 간의 잇단 전쟁, 산스테파노조약과 베를린조약과 같은 강화조약들의 역할도 강조되었다.⁶⁾

이 글에서는 짜르정부가 아르메니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급진적 혁명운동에 고무된 아르메니아 인텔리겐치야가 오스만제국 내에서 민족주의운동을 펼쳤고, 일정 순간부터 오랜 알력관계에 있던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노선을 함께 했던 측면, 그리고 1905년 혁명에 아르메니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설명되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관계를 규정지었던 조약문들을 비롯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 관계가 어긋나게 된 연원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원인들이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할 것이다.

2. 아르메니아의 발전과정

산악국가로서 지역간 소통이 어려운 고립적 지형 속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왕조와 왕국들이 들어서고 스러졌지만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하나의 '통일된 정치체(polity), 이른 바 '상상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언어적, 지리적, 계급적 분절성이 매우 두드러졌다. 특히 14세기에 갈리시아의 마지막 아르메니아 왕국이 오스만투르크에 의해 몰락하고 그후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8세기에 동아르메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르메니아인들의 분열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
- 2) Ronald Suny, *The Making of the Georgian Nation*(London: Tauris, 1989);_____, *The Baku Commune 1917-1918: Class and Nationality in the Russian Revolu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Firouzeh Mostashari, *On the Religious Frontier: Tsarist Russia and Islam in the Caucasus* (London: Tauris, 2006); Andrey Altstadt, *The Azerbaijani Turks: Power, and Identity under Russian Rule* (Stanford, CA:Hoover Institution Press, 1992).
 - 3) Gerald J. Libaridian, *Modern Armenia: People, Nation, State*(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4).
 - 4) Andreas Kappeler, *The Russian Empire: A Multiethnic History*, trans. Alfred Clayton (Harlow, UK: Longman, 2001); Hans Rogger, *Russia in the Age of Modernization and Revolution: 1881-1917* (London: Longman, 1983); Ronald Grigor Suny, "The Empire Strikes Out," in *A State of Nations: Empire and Nation-Making in the Age of Lenin and Stalin*, eds. Ronald Grigor Suny and Terry Marti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Geoffrey Hosking, *Russia, People and Empire, 1552-191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5) Onur Öno, "The Armenians and Tsarist Russia(1870-1906)," A Master's thesis, Ankara Univ., 2009; _____, "The evolution of Tsarist policy on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South Caucasus (1903-1914)." PhD thesis,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 2014.
 - 6) Arman J. Kirakossian, *British Diplomacy and the Armenian Question: from the 1830s to 1914* (Princeton, NJ: Gomidas Insitute Books, 2003); Manoug Joseph Somakian, *Empires in Conflict: Armenia and the Great Powers, 1895-1920* (London: I.B. Tauris, 1995).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로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언어를 들 수 있는데, 문어는 예레반에 기초하는 동아르메니아어, 콘스탄티노플에 기초하는 서아르메니아어로 나뉘었고, 작가들마다 다양한 지방방언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어떤 이들은 티플리스 방언으로, 어떤 이들은 카라바흐 방언을 쓰는 등 다양한 지방방언으로 인해 한 지역 안에서 사회적 소통이 부진하여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도 나타났다.⁷⁾

다음으로 지리적 분절성을 보면, 카프카스와 아나톨리아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페르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제국 변경 사이에서 나뉘었고 이러한 지리적 분리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19세기 초에 러시아제국이 확고하게 카프카스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동아르메니아와 서아르메니아 사이에 점차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즉 오스만투르크의 아르메니아는 부유한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던 콘스탄티노플과 스미르나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있었으며, 농촌적 성격이 더 짙었고, 농민들 대부분이 도시의 상업엘리트와 같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없었다. 그에 비해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좀더 도시적 성격을 지녔고 러시아전제정 아래에서 더 큰 물리적 안정을 얻었는데, 아나톨리아에서는 투르크족과 쿠르드족에게서 종종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 가운데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야를 통해 유럽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사회적 이동 속에서 티플리스의 철도산업과 바쿠의 석유산업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숙련노동자로서 카프카스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도시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노출된 이러한 노동계급은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수용하며 정치정당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메니아의 혁명운동의 뿌리는 카프카스지역의 러시아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 주창되지만, 그들에 의해 오스만투르크로 전해졌다는 점인데, 오스만투르크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정당 힌차크(Hnchaks, 1887)와 다슈나크(Dashnaks, 1890)이 그 역할을 주도하였다.⁸⁾

마지막으로 동아르메니아와 서아르메니아 사이에 계급적 분열도 나타났다. 오스만투르크의 아르메니아인과 카프카스지역의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은 계층화된 사회에서 살았는데, 양쪽 모두에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도시민들과는 삶의 양상이 차이가 많았다. 또한 상층부는 도시에서 코스모폴리탄적 삶을 영위하였는데, 티플리스, 바쿠, 콘스탄티노플, 스미르나의 부유한 아르메니아인들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상업과 무역에서 중개자로 번창하였고 종종 그들의 성공은 “중동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면서 교활한 사업가와 장사꾼이라는 전형적 아르메니아인라는 유형을 만든 장본인이었고, 아르메니아 도시공동체에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총대주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티플리스에서 부유한 아르메니아 사업가들(mokalakebi)은 자신의 독점적 길드(amkarebi)를 통해 도시생활을 지배하였는데 19세기 말에 러시아정부가 켈스트보개혁을 카프카스지역에까지 확대하자 시두마와 시장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운동이나 혁명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의 입장에 순응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진보세력의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⁹⁾

연구자들은 19세기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언어적으로, 지리적으로,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하는데, 특히 사회적 소통의 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두루 인정받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

7) Ronald Grigor Suny, *Looking Toward Ararat: Armenia in Modern History*, p. 18.

8) *Ibid.*, 19-20.

9) *Ibid.*, 19.

다. 그러므로 최초의 민족주의적 리더가 콘스탄티노플과 카프카스의 네르세스 아슈타라케치(Nerses Ashtaraketsi)나 흐리미안 하이리크(Khrimian Hairik)와 종교지도자들이자 총대주교들에서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고, 분열되고, 농민 일반이 교육의 수준이 낮았던 아르메니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을까? 특히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르메니아 인텔리겐치야가 고국에 돌아와 자신들의 모국어로 가르치고 언론에 글을 쓰고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방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러한 민족주의 지식인 집단이 상층 및 중간계급과 하층민 사이에서 가교가 되었을까? 그들은 처음에 방법이 매우 온순했으나, 나중에는 러시아와 오스만 양쪽의 제국통치자들의 반대를 받으며 급진화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러시아-아르메니아관계 발전 및 갈등의 연원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3. 제정러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과 ‘아르메니아 문제’

아르메니아인들은 유럽의 발칸지역으로부터 왔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기원전 60년대 말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으며,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동부 속주들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아르메니아인들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성 그레고리에서 이름을 가져와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교회’로 부른다. 387년에 로마제국과 사산조제국 사이에서 나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에 그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1836년에 알바니아교회는 짜르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교회는 계속 살아남았던 데에는 지속적인 디아스포라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속시키고, “의존할 수 있는 기독교인(millet-i sadika)”으로 알려진 자신의 전략에 기인할 것이다.¹⁰⁾

아르메니아인들이 카프카스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역사적 단계가 있었다. 그것은 표트르대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양국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S. M. 솔로비요프가 언급한 바 있는데, 17세기까지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와 순전히 교역관계만 유지했으나, 18세기 이후로는 다른 관계도 시작되었다고 썼다.¹¹⁾ 표트르대제는 1701년부터 카스피 해 지역을 주목하였으며 1722년에 이 지역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당시에 표트르대제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정복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아르메니아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통해 일정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1722-23년 표트르대제는 카스피 해를 정복했으나, 그 곳을 결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지원이나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가 솔로비요프는 표트르대제가 정복지에서 기독교인 인구는 늘리되 무슬림을 줄이는 것이 러시아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짜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르메니아인들이었다는 것이다.¹²⁾ 표트르대제는 1724년 5월에 한때 바쿠를 정복한 적이 있었던 마투슈킨(Major-General Matyushkin)에게 이와 관련된 명령을 내리는 한편, ¹³⁾ 주변국들과 여러 조약을 맺어가면서 이 문제를 실현에 옮겼다.¹⁴⁾ 그는 류만체프공에게 수단을 강

10) Onur ÖnoI, “The Armenians and Tsarist Russia(1870-1906),” p. 1.

11) С. М. Соловьев, *Чтения и рассказы по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 1989, с. 717.

12) С. М. Соловьев, *Чтения*, с. 736.

13) С. М. Соловьев, *Чтения*, с. 737.

14) 1723년 러시아와 사파비간의 페테르부르크조약(그것은 샤 타흐마스프 Shah Tahmasp 2세의 승인을 받지 못함); 1724년 러시아-오스만투르크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인

구하도록 이스탄불에 보내면서, 1724년 9월 24일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의 위치와 세력을 분명히 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¹⁵⁾ 그리고 1724년 11월 10일,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표트르대제의 명령’이라는 손편지에서 표트르대제는 새로 병합한 카스피해 연안으로 아르메니아인의 재정착을 국가정책으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¹⁶⁾ 그는 편지에서 만일에 오스만투르크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러시아를 초대했다고 말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대표들은 그들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러 왔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획득한 페르시아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허락할 것...우리의 칙허장을 그들에게 보낼 것. 만일 투르크인들이 그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 자신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같은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보호 하에 거두어주도록 요청했다. 기독교를 위해, 우리는 기독교인 아르메니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같은 종교인의 보호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들에게 속하는 땅과 사람을 이리 저리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만일 확인증을 요구하면 그것을 줄 것”¹⁷⁾

적어도 내용만으로 파악한다면, 분명 표트르대제가 기독교의 기치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을 러시아의 변경에 거주시키면서 이곳이 분명 러시아제국의 한 부분임을 각인시키는 데 있었다. 1724년 11월 10일자 명령을 통해 표트르대제는 길란, 미젠드론(마잔다란) 바쿠에 이르는 카스피해 연안의 도시들을 아르메니아인의 재정착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우리는 여러분이 가구 및 가족과 함께 우리의 제국의 보호 아래 놓였으며, 우리가 최근에 획득한 페르시아지방의 카스피해 연안에서 앞으로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도록 편안한 지역을 할당하도록 명령했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조용하게 살 수 있으며, 방해없이 법에 의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독교신앙을 위해, 우리의 특별한 호의로 진실한 아르메니아인을 지킬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이러한 요청을 한다. 우리는 새롭게 획득한 페르시아 지방의 행정관에게 필요한 명령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길란, 미젠드론, 바쿠 및 다른 편안한 장소 어느 곳이든 도착했을 때 당신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아하고 안전하게 살고 정착하게 해주는 편안한 장소를 할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¹⁸⁾

위의 명령에서 보듯이 결국 표트르대제가 카프카스로 아르메니아인의 이주를 조직한 것은 러시아제국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카프카스에서 러시아제국 정책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발전하였다. 표트르대제에 이어 예카테리나여제도 카프카스, 특히 남카프카스를 정복하는 정책에서 아르메니아 요소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세는 선언문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다. 러시아제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투르크멘차이 조약의 15조(1828년 2월 10일자), 러시아-오스만투르크 아드리아노플 강화조약의 13조는 이란과 오스만투르크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카프카스에 재정착하는 것에 관한 문서이다. 또한 1836년 제국헌장을 통해 제국의 공식

들을 카스피해연안지역으로 재정착시킬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5) С. М. Соловьев, *Чтения*, с. 737.

16) 러시아국립역사문서고(RGIA)와 러시아국립군사문서고(RGVIA)에 보관 중인 카프카스관련 회귀사료들이 ‘유럽아제르바이잔 협회’에 의해 발굴되어, 다음의 책으로 간행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시각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원전사료 모음집이라 사료를 읽는데는 지장이 없으며, 해제가 충실하다. T. Heydarov, ed.,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Caucasus : Russian Archive Documents and Publications*, Ithaca Press, Vol. I-II. Garnet Publishing, 2011.

17) 1724 ноября 10-го Высочайшая грамота на имя Армянского народа 51.

18) 1724 ноября, 51.

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아르메니아가 얻은 지위를 공고화해주었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에 유럽열강들 사이에서 언급되었던 ‘아르메니아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네르시산(M. G. Nersisyan)은 “1878년 산스테파노와 베를린에서 회의하는 동안, 서아르메니아와 그 주민들의 상황에 관한 주제가 ‘아르메니아 문제’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근대 아르메니아의 역사에서 광범위한 대규모 인민들과 연관되는 중요한 주제이다”라고 쓰고 있다.¹⁹⁾ 한편 2005년 러시아에서 출간된 한 책에서는 “아르메니아 문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투르크 전제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운동이다”라고 쓰고 있다.²⁰⁾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제국의 지속적인 호의와 지원을 받았던 상황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의 마지막 20년 동안부터 20세기 초에 산스테파노와 베를린 조약에서 아르메니아개혁에 관한 조항(1877년 6월)이 포함되었는데, 이제 아르메니아문제가 오스만제국에 압력을 넣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카프카스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오스만제국에 개혁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동시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정부에 개혁요구를 하는 것이 되었다.

우선, 산스테파노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크림리아전쟁에서 참패한 러시아제국은 러-오스만전쟁에서 결정적 승리의 결과를 고려해야만 했다. 유럽과 카프카스에서 적대감이 일어났다. 주요 전투는 다뉴브 강에서 벌어졌는데, 이곳은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전략지점이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고, 11월 18일에 Kars 정복이 이루어졌다. 발칸 전선에서 소피아와 아드리아노플이 주요 타겟이었는데, 결국 술탄 압둘하미드 2세는 1878년 1월 13일에 강화를 하기로 결정하고 산스테파노에서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아르메니아에 관해서는 16조가 해당되었는데, 그에 따라 오스만투르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지역조건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과 개혁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쿠르드인과 Circassian에 맞서 그들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었다.”²¹⁾ 19세기 후반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오스만제국에서부터 재정착시키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었으며, 오스만제국 안에서 그들이 오스만제국 자체에 직접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아르메니아인들의 세력을 통일하고 조직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것이다.

1878년 7월 1(13)일 베를린조약에서도 이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 하지만, 산스테파노조약의 조건은 강대국 사이에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서구열강은 러시아가 발칸 쪽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하여 영국과 러시아는 런던에서 산스테파노조약의 조건을 바꾸는데 동의했는데, 2개의 비망록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7개 조항으로, 여기에는 아르메니아인과 관련된 지역에서 터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개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²²⁾

이 내용은 1878년 6월 13일 개최된 베를린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에 반영되었다. 러시아, 독일, 오스트로-헝가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터키가 참석했는데, 회의 동안,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반대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편에, 프랑스는 영국 편에 섰고, 영국의 입장은 키프러스섬을 넘기기로 한 터키의 입장을 보장하자는 것이 분명했다. 러시아는 고립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대표단을 보냈는데, 회의는 그들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스만제국은 카르스, 바투미, 아르다한을 러시아에 넘겼고, 아르메니아문제는 베를린조약 61조에 반영되어 있다.²³⁾ 베를린조약의 결과, 오스만국가는 부분적으로 쪼개졌으며, 반면에 러시

19) *История армянского народа Ереван*, 218.

20) *Кавказ и 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 проекты идей иллюзии и реальность*. СПб., 2005, 709.

21) *Кавказ и 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 196.

22)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России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1856-1917*. М., 1952, с. 177-178 Heydarov, ed., *The Armenian Question in the Caucasus*, p. 20 재인용.

아는 아르메니아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들은 외교적으로 실패를 겪었다.

한편, 아르메니아문제의 이념적 측면을 볼 수 있다. 이슬람이 확산된 후에, 아르메니아인들은 무슬림국가 통치 하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무슬림국가들은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교회에 관용적이었으며 알바니아교회가 러시아황제에 의해 해산되었을 때고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기독교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언제나 기독교세계에 속하는 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것은 카프카스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의 존재이유이기도 했다. 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지배는 아르메니아문제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배경인데, 러시아는 무슬림들의 지역에서 기독교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교회를 강화하고, 지역 무슬림에 대한 공격은 이 정책의 주요 요소이기도 했다.²⁴⁾ 그리하여 아르메니아 그레고리안 교회에 관한 법령은 1836년에 채택되는 반면에, 카프카스 무슬림 Board of Muslim에 대한 법령은 1872년에 가서야 승인을 받았다.²⁵⁾ 무슬림은 1870년과 1892년의 시규정 *municipal code*에서도 제한을 받았고, 두마선거법도 제한을 받았다. 러시아제국에서 무슬림은 기독교도와 달리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고, 대신에 특별 세금 납부해야 했다. 상층부 성직자에 대한 처우도 무슬림의 경우는 평등하지 않았다.²⁶⁾

4. 19세기 말 짜르정부의 아르메니아에 관한 정책 변화

흥미로운 것은 충실한 기독교인에서 불충실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코카서스의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가 짜르정부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카프카스에서 아르메니아인들 및 그루지아인들, 무슬림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19세기 후반에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원래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의 입지는 좋았는데, 인구, 경제의 요소들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었다. 예컨대 내무부 장관 로리스 멜니코프는 아르메니아 출신이었다.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은 티플리스와 바쿠의 산업을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 포도주제조에도 참여했고, 도시두마의 시행정에 나감으로써 공직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약간 나중의 자료이지만, 1900년에는 티플리스에서 대규모 공장의 44%, 상점의 절반 정도가 아르메니아인의 소유였고, 바쿠에서는 석유산업의 30%이상, 그리고 카프카스 은행지분의 상당부분을 아르메니아인들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루지아인과 무슬림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1883년에 티클리스와 바쿠 사이에 철도가 완성되자 지역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아르메니아인의 부가 불편했을 것이다. 18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짜르정부의 관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부터 1890년까지 카프카스지역의 책임을 맡았던 알렉산드르 M. 돈두코프-코르사코프는 크림전쟁의 베테랑이자 아르메니아인들의 경제지배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으며, 황제에게 매우 자세한 보고서를 보냈다. 그런데, 카프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제국은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카프카스에서 권력은 처음에는 이곳 군대의 사령관이 맡

23) “61조. *Sublim Porte*는 아르메니아인구가 있는 지방에서 지역의 요구에 의해 개선과 개혁을 즉각 수행하며 쿠르드인과 *Circassian*으로부터 그들의 안전보장을 채택할 것.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시행여부를 감독하게 될 국가들에게 조치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233)

24) Suny, *looking toward*.

25) Suny, *Empire strike out*.

26) Suny, *looking toward*.

았고, 1844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카프카스 총독체제(namestnik)가 설치되었으며, 알렉산드르 2세 암살 이후 제국의 중앙집권화 조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루지아인들의 물질적 도덕적 가치의 하락과 함께...아르메니아인들의 영향력과 세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쓰며,²⁷⁾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해 설명할 때 “정치적”이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또한 “아르메니아인들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매우 잘 이해하므로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회정치적 반란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카프카스 토지의 방대한 면적이 아르메니아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²⁸⁾ 그는 또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분리주의를 반복해서 설명한다. “아르메니아 인텔리겐치야 가운데서 최근에 분리주의의 열망이 나타났으며, 비록 아직은 모호하지만, 고대의 하야스탄(Hayastan)의 경계를 복구한다는 꿈과 어떤 자율성에 대한 것이다.”²⁹⁾

그동안 러시아는 카프카스를 아르메니아화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지역에서 분리주의의 목소리나 또는 새롭게 정복한 카르스(Kars)에 정착하기 위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예레반과 에르주룸 출신의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서만 거주하는 영토를 만들어내려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베를린회의 결정 이후, 카프카스 아르메니아인들은 예레반에서 에르주룸까지 아르메인만의 영토를 형성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즉시 많은 수가 새롭게 병합된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황제에 의해 책임을 맡고 그 지역에 도착한 후 나의 첫 조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카르스지역으로 더 이상 유입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정치적 열망의 실현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³⁰⁾

한편으로 1894-96년에 오스만투르크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지만, 짜르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짜르정부의 상황을 크림전쟁(1853-1856) 참패이후의 러시아제국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크림전쟁 후에 특히 정부의 재정 고갈이 심각했는데, 리트바크(Б. Г. Литвак)의 연구에 따르면, 전시의 재정적자가 9백만 루블에서 6천 1백만 루블로 거의 7배가 증가했고, 1857년 현재 전체적자의 총액도 5천 2백만 루블에서 3억 7백만루블로 6배가 누적되었다. 아울러 크림전쟁의 여파는 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쳤는데, 전쟁전과 비교해 수출량이 곡물 13배, 아마 8배, 대마 6배가 감소하고, 징집에 의한 농촌에서의 남성노동력 감소로 인해 유럽러시아의 34개 주에서 곡물파종량, 역축의 수효 등이 35%가 줄어들었다.³¹⁾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제국이 입은 대외적 이미지의 실추는 짜르정부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서간집은 황제 및 황제주변의 고위층 관료들 사이에 일어난 심적 압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외국의 여론과 국제정세에 관심을 기울였던 상황이 잘 드러난다. 당대에 황실뿐만 아니라 고위층 관료들 사이에 자유주의자로 널리 알려져있던 동생 폰스판젠 니콜라예비치 대공과 주고 받은 70통의 왕복편지에서 그들의 주요한 고민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크림전쟁 이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였다.³²⁾

27) РГИА Ф. 932, Опись 241, л. 1.

28) РГИА Ф. 932, Опись 241, л. 2.

29) РГИА Ф. 932, Опись 242, л. 5.

30) РГИА Ф. 932, Опись 257, л. 5.

31) Б. Г. Литвак, *Переворот 1861 года в России: Почему не реализовалась реформаторская альтернатива* (М, 1991), 11-12.

32) *1857-1861, Переписка Императора Александра II с Великим Князем Константином Николаевичем. Дневник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Константина Николаевича*, сост. Л. Г. Захарова, Л. И. Тют

19세기 말에는 그보다 더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오스만투르크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서유럽 열강은 싸늘하게 대응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짜르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러시아화 정책의 확대와 아르메니아 교회의 자율성 제한으로 나타났다. 수니는 러시아화 정책의 의미가 예카테리나 2세와 니콜라이 1세의 행정적 기준화의 시도 또는 러시아기준에 각 민족들이 알아서 맞추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³³⁾ 나중에 19세기 말에 알렉산드르 3세에 이르면 러시아화는 제국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적 종교적 자유를 억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식민에 의한 것이든 개종에 의한 것이든 정교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특히 이러한 전격적인 입장에 대해 1897년의 인구조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³⁴⁾ 카프카스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일어나 비러시아인 인구의 비율이 56%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짜르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중앙정부와 아르메니아간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Kars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교회 신자들을 정교회로 개종하도록 명령하였으며, 1885년 아르메니아 교구학교를 폐쇄하였고, 1898년에는 공적 공간에서 아르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1903년에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내무부, 농업 및 국가재산부로 이전하였다.

5. 글을 나가며

아르메니아인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게 된 원천은 제국의 권력자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오랫동안 통치해오면서 그들을 가장 충실한 신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차별함으로써 별개의 사람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카프카스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알렉산드르 3세 치하에서 러시아화 되었는데, 자신의 민족과 상관없이 러시아이름을 채택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고, 러시아문화를 주요 문명으로 삼도록 요구받았다. 특히 19세기의 마지막 10년에 아르메니아인들은 저항해 일어났으며, 자신을 보호할 필요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은 처음에는 교회와 부르주아엘리트에서 나왔지만 점차 성장하고 있는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문제는 다슈나크 정당의 지도자들은 처음에 제국통치자들에 맞서 전략을 세울 때,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제국의 양국관계가 전통적으로 적대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대응이라든가 같은 노선을 취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양국관계의 판도가 달라졌다. 짜르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아르메니아를 골칫거리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짜르정부는 카프카스지역에서 그루지아인들 및 무슬림이 서로 반복하고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무슬림지역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을 끌어들이, 변방에서 기독교 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짜르정부는 이제 오랜 전통을 끝내고 그들을 불온시하며 러시아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19세기 말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지리적, 정치적, 계급적 노선 사이에서 분절화되었다. 따라서 같은 아르메니아인이라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의 상인들, 카라바흐의 농민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학생들의 민족주의 감정은 각기 달랐을 것이다. 무엇으로 지칭하던 간에 19세기 후반에 많은 아르메니아인

юнник (M., 1994) с. 17, 32, 47-52, 73-85, 123-128.

33) Suny, *The Empire Strikes Out*, 53.

34) Hans Rogger, 182-183.

들이 여러 도시들에서 다른 민족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19세기 유럽을 흔들었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주요 정체성을 종교적 공동체에서부터 다른 것, 즉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 불변성을 가진 민족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러시아아르메니아에서 성장하던 혁명운동은 짜르정부의 불이해에 의해 결국 엄청난 반격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제국의 탄압 속에서 민족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 민족정체성의 증추, 아르메니아 교회 :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모색

김정훈(배재대학교)

- I. 서론
- II. 아르메니아 국가, 민족정체성과 교회
- III. 아르메니아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문제점
 - 1. 신학 이론의 사회적 책임성 추구
 - 2. 사제의 역동적인 사회 인식과 참여 추구
 - 3. 적극적인 복음주의 사명으로서의 전환 추구
 - 4. 교회의 국가적 정체성 재정의
- IV. 맺음말

I. 서론

인종 구분의 기준점이 되는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메니아는 북과 동쪽에 인접한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 남과 서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과 터키에 비해 인구나 영토, 경제규모 면에서 모두 뒤쳐져 있는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¹⁾ 하지만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 그리고 인류최초의 기독교 국교(301년)²⁾로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지니고 있는 선민의식 등은 상당하다.

아르메니아는 국가건설(state-building)보다 민족건설(national-building)이 선행되었으며, 역사적으로는 ‘근대국가(modern nation)’보다는 ‘인종-종교적 집단(ethno-religious group)’의 성격이 강하다. ‘인종-종교적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단합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해온 근간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였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오랜 기간 민족정체

1) 아르메니아: 영토 29,743 km²(대부분 산악고원지대로, 해발고도는 390m로부터 아라가트(Aragats) 산맥의 최고 4,090m), 2009년 기준 인구 3,238,000명("Statistical Yearbook of Armenia, 2009: Population" (PDF). ArmStat.)

2) "Armenia-Which Nation First Adopted Christianity?". Ancienthistory.about.com. 29 October 2009. Retrieved 2010.1.25.

성을 수호하고 중세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해 왔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인종-종교적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³⁾

아르메니아가 처음 역사적으로 언급된 것은 기원전 300년경으로, 처음 국가를 형성한 것은 카프카스 남부 지역이 아니었다. 기원전 215년에서 190년 경 사이에 아르메니아인들은 셀류시드(Seleucids Empire)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시기에 아르메니아는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위치한 대아르메니아(Greater Armenia)와 강 서쪽에 자리한 소아르메니아(Armenia Minor)로 나누어져 있었다. 로마가 BC 190-189년 셀레우코스 왕조를 정복한 후에는 대(大)아르메니아와 소페네 두 지역으로 분할되었다가 아르메니아의 대왕 티그라네스 2세(BC 95~55 재위)에 의해 통일되어 인접 지역인 이베리아, 알바니아, 시리아, 파르티아의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뻗었다.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급속히 부상했으나, BC 66년 강제로 영토를 할양하고 로마와 동맹을 맺은 후로는 AD 3세기까지 로마와 페르시아 파르티아 왕조의 각축 지역이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한때 로마 제국에 대항할 정도로 강성했으나 이후의 역사는 여러 외국 세력의 지배와 이에 대항한 독립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아르메니아는 1045년경 까지 대체로 독립국가의 형태로 존재했다.⁴⁾ 아르메니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르메니아의 교회였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았던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⁵⁾

사가들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개종과 국가발전을 아르메니아 교회의 제도화란 관점으로 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다.⁶⁾ 17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 국민생활에서 중심 기구로 존재해 왔다.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정치적 영역에서 아르메니아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은 주요한 제도적 권력으로서 국가건설 과정에 적극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생활에 있어 교회 역할의 중심성은 결정적인 순간과 비판적인 상황에 주요 지표가 되었음을 일러주기도 한다. 아울러 권력 구조로서의 교회가 아르메니아 내의 여타 경쟁적인 정치권력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들은 각 시대별 또는 특정 시기에 있어 국가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하지만 교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과 아르메니아 교회의 차별성에 대한 논술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기도 하다.⁷⁾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 교회는 인근 국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해 왔다. 교회의 제도적 권력은 가끔 국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계서조직을 위한 기구가 되기도 했으며, 정치적 기구의 쇠락과 함께 교회는 인민생활에 있어 유일하게 조직된 제도적 권력으로 다시 출현했다. 오토만 지배하에 교회에 기반을 둔 국가조직의 창설과 더불어,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교회중심 공동체가 출현함에 따라, 아르메니아 교회의 제도적 특징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교회의 국가적 역할은 더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아르메니아 교회

3) 로브샨 이브라히모프, 김연규 “아르메니아의 국가건설과 대외정체성”, 『中東研究』 (한국의외어대 학교 중동연구소) 제28권 1호, 2009, p. 220.

4) Древней шие государства Кавказ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 Серия: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М.: 1985. с. 69.

5) Gerard J. LIBARIDIAN: *Challenge of Statehood: Armenian Political Thinking Since Independence*, (Watertown: Blue Crane Book, 1999), p. 13.

6) Charanis, P. (1961) “The Armenians in the Byzantine Empire”. *Byzantinoslavica*, No. 22, 1961, pp. 196-224; Hovannisian, R.G. ed. *The Armenian People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I, II. New York, 1997: Whooley, J. “The Armenian Catholic Church: A Study in History and Ecclesiology”. *Heythrop Journal: A Quarterly Review of Philosophy and Theology*. Vol.45, No.4. 2004, pp. 416-434.

7) 박태성, “아르메니아 교회의 정체성 규명”, 『동유럽발칸학』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제12권 제1호 2010, p. 387.

는 ‘민족교회’로 인식된다. 이 용어는 가장 특색 있는 표현으로서 아르메니아 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역사적 환경은 교회의 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발달되어온 양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사회의 아르메니아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교회의 정체성 문제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서 아르메니아의 종교가 일반적으로 ‘정교’라 인식되고, 그 독자성은 동방정교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⁸⁾ 아울러 아르메니아 교회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직시와 문제점의 해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 역시 아르메니아 국가와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글은 아르메니아 국가건설과 민족정체성 과정에 있어 아르메니아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아르메니아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문제점을 신학이론, 교회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통해 분석해 본 후 아르메니아 교회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와 미래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아르메니아 국가, 민족정체성과 교회

성경 속의 인물 노아의 직접후손으로 역사속의 전설적 인물인 하이크(Hayq)로부터 유래된 하야스탄(Հայաստան, Hayastan)이라는 원어의 국명을 보유한 아르메니아의 민족정체성은 수많은 외세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며,⁹⁾ 그 주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독특한 언어로, 아르메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의 한 분파지만 5세기에 고안된 독특한 문자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문자 체계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¹⁰⁾ 둘째는 아르메니아 단일민족의 순수성이다. 아르메니아 민족은 중세이후로 많은 무슬림들에 의해 둘러싸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결혼문화에 있어서도 본국의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공동체 내의 혼인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종교이다. 아르메니아교회는 천주교와 그리스정교로부터 모두 독립되어 존재하였으며 강한 인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적 상징의 역할을 하였다.¹¹⁾

로마제국에 앞서 기독교를 채택한 아르메니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두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제자였던 타데우스(Thaddeus)와 바르톨로메유(Bartholomew)였다. 성자 그레고리(St.

8) 박태성, 위의 글, pp. 387-388.

9) 원래 자기네 나라를 민족영웅인 하이크 나하페트(Հայկ Նահապետ)의 후손임을 자처하여 하이크(Հայկ)의 이름을 따와 하이크(‘Հայկ’f), 하이(Հայ, Hay)라고 했는데, 여기에 땅을 의미하는 -아스탄(ստան, astan)이 붙어 하야스탄이 된 것. 영어 이름 ‘아르메니아’는 고대 그리스어 식 이름인데, 그리스인들도 페르시아인들이 ‘아르미나’라고 한 것을 따라한 것이다. 아카드, 바빌로니아 등 페르시아 이전의 고대 문명에서도 ‘아르미나’와 비슷한 이름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아마도 하이크의 후손 중 한 명인 아람(Արամ, Aram)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10) 아르메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만 언어를 본다면 인도-유럽어족의 어떤 언어와도 관계가 없다. 아르메니아어는 아르메니아 문자라는 특이한 고유 문자를 사용한다. 405년 메스롭 메쉬토티(Mesrop Mashtots)가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창안함으로써 아르메니아 문자체계의 독자성은 더욱 강해졌다. 아르메니아 언어 공용어로서의 역할 및 언어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조. Petrossian, Gayane. "Bilingualism and language planning in Armenia" (PDF). Yerevan State University. Retrieved September 29, 2012. <http://ssl.webs.uvigo.es/actas1997/06/Petrossian.pdf> (검색일: 2015.5.20.)

11) 로브산 이브라히모프, 김연규, 같은 책, pp. 221-222.

Gregory the Illuminator)는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교회들을 신축했으며,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티리다테스 3세(Tiridates III)를 설득해 기독교의 국교 수용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아르메니아 인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정치적 종교적 관할 하에 놓여 있었지만, 아르메니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과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개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론에 반기를 들어 비잔틴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리하여 아르메니아 교회는 중세 초기 이후부터 정교나 가톨릭과 별도로 법률적·신학적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다.

450년 아르메니아의 종교는 또 다른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당시 아르메니아를 점령했던 사산조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포기하고 조로아스트 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했다. 30여 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484년 마침내 아르메니아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됨에 따라 아르메니아의 기독교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셀주크투르크, 오토만투르크와 그 뒤를 이은 터키를 비롯한 아랍제국이 아르메니아 지배를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했다. 이슬람 제국의 압력으로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도 아르메니아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개종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켜왔다. 5-7세기에는 알바니아와 아르메니아의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정교회 본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정교와의 단절로 이어져 아르메니아의 독자적 정체성 형성과 국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르메니아의 국가형성과정은 유럽의 국가형성보다 훨씬 앞섰다고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당시 기독교는 내부의 종교적 갈등으로 정교회는 서방정교와 동방정교로 양분되었는데 아르메니아교회는 동방정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아르메니아교회는 이후 15세기 경 다시 두 개로 양분되어 일부는 현재의 레바논에 위치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오늘날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 근처에 위치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양분되기는 하였지만 수백 년 동안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국가 없이도 아르메니아인들을 통합시켜준 중요한 요소였다.

아르메니아는 11세기 잠시 부흥했던 비잔틴 제국에 병합되었지만 곧 셀주크인들의 침략을 받아 1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나라의 대부분이 셀주크 투르크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영토의 대부분이 그루지야에 편입되어 있었던 13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 셀주크에 점령된 후 실리시아 지방으로 이주한 아르메니아인들은 소(小)아르메니아를 세워 십자군 전쟁기에 유럽과 굳게 동맹을 맺고 유럽 문화를 수용했다. 13세기 시리아를 통한 이집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몽골 군대를 고용하기도 했으나 1375년 수도가 함락되면서 독립을 상실했다. 16세기 초반 다시 적대관계에 있던 오토만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의 각축장이 되어 짧은 독립기간(1722-30)을 제외하고는 18세기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아르메니아는 그 같은 질곡의 역사 때문에 불행히도 아르메니아의 기독교가 이슬람은 물론, 기독교 내 다른 종파에 대해서도 관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족교회로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의 문화와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아르메니아 인들이 국가가 없던 오랜 시기 동안 그들의 교회는 정치적·정신적 리더였고, 종교는 아르메니아 국민들 자화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생존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제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별개의 삶과 자치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 디아스포라는 아르메니아 교회가 소비에트 정부에 맞선 독자적인 행보를 가능케 해주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교회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정치종교적 맥

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동질 집단이 아닌 아르메니아 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글로벌한 접근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III. 아르메니아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문제점

301년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한 이후 17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아르메니아 교회는 세계화와 지구촌에 보다 더 개방적인 상태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미래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아르메니아 교회를 위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관점을 제기해 보고자한다.

1. 신학 이론의 사회적 책임성 추구

신학은 단순한 이성적 수준에서 추구하는 명상이 아닌, 신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대한 응답을 개념화하는 시도이다. 신학이론은 구체적인 공동체 사회 내에서 발생하며 그 공동체 환경의 특성, 관심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도전 등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론은 대상의 응답과 이론상의 전후 관계가 일치될 필요로 한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풍부한 신학적 문헌을 가지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교부학, 성인전의 연구, 예배의식, 교회음악학, 설교법, 주해(해석) 등은 심오한 신학적 이론에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정통 신학론의 발달은 15세기 중단되었다. 그 이후의 아르메니아 신학론은 전(全)교회회의와 지역 평의회 그리고 교회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나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즉, 그들은 창의력 있는 신학적 사고가 부족했던 것이다. 만약 교회가 교회의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도전과 새로운 시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메니아 교회 앞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아르메니아 신학은 납득할만한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수많은 특정한 관점들과 중요 주제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조사와 설명이 요구되는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와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 시급한 일은 아르메니아 신학을 체계적이고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다.

둘째, 아르메니아 신학은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대신학의 주요 주제와 현대신학의 기본 관심사간의 교감이 필요하다. 고대 신학의 문제는 문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시대의 문제들과 치유책들에 대한 고대시대의 함축적인 의미들이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표출되어야 한다.

셋째, 아르메니아 신학은 화석과 같은 상태와 경화된 생각을 제거해야만 한다. 신학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영역에서 출발해야하지만, 현대의 논쟁적인 주제와 실존하는 문제들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야한다. 세속적인 삶속에서 회개에 대한 신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은 신과 신자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변 환경의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신학은 아르메니아 교회의 삶, 정신, 증언들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확장되도록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회의적인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2. 사제의 역동적인 사회 인식과 참여 추구

아르메니아 국교로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의 시작은 아르메니아교회의 제도화로부터 이루어졌다. 성자 그레고리(St. Gregory the Illuminator)는 아르메니아 인의 삶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확립하고 교회의 사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교회를 중요한 기관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회사가(史家)들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로 개종한 시점이 아르메니아 교회를 제도화한 때부터라고 말하기도 한다.

1700년을 상회하는 역사를 지닌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 국민 삶에 있어 중심적인 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문화, 사회, 국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를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요 기관으로서 적극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삶에 교회의 역할이 집중되는 것은 국가 중요한 순간이나 상황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권력 구조로서의 교회는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또한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기도 했다. 교회의 제도적 권력은 종종 자신들의 의지를 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한 교회의 위계화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정치적인 제도와 기관들의 몰락과 함께 교회는 국민들의 삶속에서 유일한 조직화된 제도적 권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오트만(Ottoman)의 지배 하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국가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사회 속에서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출현함으로써 아르메니아 교회의 제도적인 성격은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로 인한 교회의 국가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독교 교회는 주어진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제도적인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제도적 한계에만 갇혀 있어서도 안 되며, 제도적인 기능과 권위에만 오로지 의지해서도 안 된다. 제도화된 교회는 현재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는 현재 범 기독교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다. 아르메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아르메니아 교회와 신자들 간의 이견(gap)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아르메니아에서 인구의 약 5%만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의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최대 10% 정도와 중동지역의 경우는 약 20%정도의 교회 출석률을 나타내고 있다.¹²⁾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아르메니아 교회가 사제 직분의 중심적 역할, 간절함,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첫째, 교회의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tivity)을 극복하고 비제도권화(dis-institutionalization) 과정을 착수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폐쇄적인 구조, 구시대적인 종교생활, 정제된 교회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삶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아르메니아 교회를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삶에 실재적인 요인으로 만들 것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지도와 영적인 지도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아르메니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명의 실체를 감당한다는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교회는 권위적인 구조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교회(people’s church)’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12) Aram I, “The Armenian Church Beyond its 1700th Anniversary”,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j.1758-6623.2002.tb00454.x/pdf>

를 의미한다.

셋째, 아르메니아 교회는 덜 제도화되어야하고, 더 인간 중심적이 되어야한다. 지나친 제도화의 추구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곳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타인을 위한 교회라는 교회의 부제(diaconal, 副祭)적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공동체를 수용해왔으며, 이는 교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공동체를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교회는 영과 도덕적 교감을 실현하는 삶의 근원이 되어야한다. 교회는 아르메니아 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3. 적극적인 복음주의 사명으로의 전환 추구

아르메니아 교회의 사명은 많은 것을 포용해 왔다. 교회가 국민 생활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발전과 여러 요인들 때문에 아르메니아 교회는 자신의 전체론적인 사명인 교회의 예언자적 역할과 복음주의적인 사명을 때때로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의 아르메니아 인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국가 내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정당, 문화 사회적 단체와 공동체 사회가 자신들의 공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르메니아 인들은 교회가 국가적 실체 단위라기보다는 영적인 실체로서 기능을 발휘해 주길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과거와 비교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교회의 영적 자양분 공급과 도덕적 인도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소명이 재강조 되어야 하고 재조명 되어야 한다. 교회의 복음주의 과제와 부제(副祭)적 책임이 다시 활력을 받아야한다. 교회가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 영적인 사명으로 전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한다.

첫째, 교회는 우선 복음주의(evangelism), 사회봉사와 구제(diakonia), 기독교 교육, 신학적 이론 구축, 공동체 구성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아르메니아 교회와 디아스포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책임의식인 주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들은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주변의 것들로 남아 있어야한다.

둘째, 교회 성직자가 중요시하고 강조해야할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의 가치로 공동체 생활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의 공산주의와 디아스포라의 세속주의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사실 상 명목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

셋째, 평신도를 구성하는 일뿐 아니라 강력한 설교와 조직화된 교육을 통하여 수행되는 이러한 적극적인 교회와 사제의 사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주 공동체의 세속적인 전통과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에서 종파를 개종시키려는 활동이나 초교회적인 조직(para-church; 특정종교를 초월하여 사회적 복지와 복음을 담당하는 기독교 조직)에 대항하는 견고한 방어막이 될 것이다. 기독교적 신앙을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듦으로써, 아르메니아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복음주의적인 사역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교회에 다가 올 수 있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missio Dei)과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적극적 복음주의적인 사역은 교회 생활에 중심을 차지했던 예배의식을 풍부한 복음주의적 요소를 가진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한다. 이러한 시도는 예배의 구성, 요건, 언어의 관점에서 예배의식의 전통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대가 접근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회의 국가적 정체성 재정의

아르메니아 교회는 국교이다. 이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가장 특징적이고 눈에 띄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화(Armenian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교회에 의해 아르메니아 알파벳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기본으로 한 아르메니아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5세기부터 일찍이 아르메니아화의 작업은 이루어졌다.

교회에 의한 총체적인 아르메니아화에 의해 아르메니아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아르메니아 역사의 미래 과정 역시 결정지어져 왔다. 교회가 민족주의 요람, 국가 단위의 보증, 국가적 기풍의 상징이 되어 왔던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과정들은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반면에, 이는 교회의 영적 부흥과 복음주의적인 사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당분간 국민이 중심이 된 구조와 국민 중심적인 사명을 가진 국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국가적인 정체성과 역할은 옳은 방향에 놓여있지 않은 것 같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미래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교회를 추구해야하는가? 국가적인(national) 교회인가, 민족주의적인(혹은 국수주의적인 nationalistic) 교회인가?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새로운 교회사에 진입함에 있어 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와 국가의 개념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문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학(ecclesiological)’적 영역. 교회학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는 지역, 인종, 문화,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가 아르메니아 교회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인들만을 위한 교회였다. 즉,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은 그들의 태생 때문에 아르메니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비(非)아르메니아인들이 교인이 될 수 없는 배타적인 국교이다. 과거에 이 배타적 성향은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인들은 비교적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아르메니아와 실리시아(Cilicia)¹³⁾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에 접어들어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증대되어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지구촌을 이동하는 상황 하에서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직간접적으로 다른 인종, 문화, 교회, 종교의 집단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민족적 사상과 종교적 원칙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가? 특히 서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정치적 영역. 아르메니아 교회가 국교로서 면모를 갖추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평신도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주교(Catholicos, 독립 자치 교회의 총주교)를 선출할 때 교구주교, 목사, 평신도가 모두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13) 북쪽과 서쪽으로 타우루스 산맥, 동쪽으로 안티타우루스 산맥이 솟아 있으며 남쪽으로 지중해와 접한다. 두 지역으로 나뉜 서부에는 황폐한 산악지방이 뻗어 있는 반면 동쪽은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진다. 고대에는 아나톨리아와 시리아를 잇는 유일한 통로가 이곳을 거쳐 나 있었다. 1080년에는 아르메니아인 이주민들이 타우루스 산맥에 체후국을 세우고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시실리아아르메니아 또는 소(小)아르메니아라고 불리는 왕국을 세웠다.

만약에 평신도들이 삶의 전반과 교회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만연해지면, 교회를 민족 간의 정치적 긴장에 노출시키기 쉽다. 문제는 어떻게 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르메니아교회는 국민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국민들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삶과 분리시킬 수는 없다. 교회가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탄생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부 간의 실재적인 관계를 신중히 조망해 보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국가(정부)가 분열되고 양극화 될 수 잠재적인 요인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아르메니아 교회의 권위 영역. 처음부터 아르메니아 교회는 잘 정제된 심의과정을 통하여 표현된 국민의 권위이다. 제왕적이거나 피라미드식의 권위에 대한 개념은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권위는 국가적 정체성과 교회 역할의 동시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다수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회운영에 있어 민주적 결정이 작용한다는 유익한 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반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결정적인 역할은 긴장과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실례로 교회의 한쪽에서는 주교회의(episcopal synod)를 성직자회의의 권위를 가지는 장소로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평신도회의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메니아 교회의 권위에 대한 소재, 성격, 집행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의 참사회 회원과 규례에 대한 불명확함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극단적인 접근방법은 피해야 할 것이다. 성직자 중심이어서도 안 되며, 평신도 중심이어서도 안 된다. 중앙 집권적이고 제왕적이어서도 안되며, 민주주의적인 신도 중심이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포용력 있고 전체론적이고 사람중심인 권위의 개념과 실천 방안부터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교회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맞는 새로운 관점에서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참사회 회원의 법률을 재해석해야 한다.

IV. 맺음말

오늘날 아르메니아 교회는 상이한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종교적인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에 노출되어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구성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사회, 정치, 경제 등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공동체 사이에 상이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르메니아인들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국제적인 이성에 적합한 접근 방법을 수용해야만 한다. 이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다양한 면과 영역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 생활양식은 교회의 환경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는다.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과 중동이나 미국에서 아르메니아 교회의 신자가 되는 과정과 의미는 매우 다르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생활양식은 점점 다양화되고, 아르메니아인들의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부분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과 가치관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중동 지방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는 고대 전통, 믿음, 예배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럴 수 있는가'이다. 젊은이들은 과거의 아르메니아인들과는 매우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불만을 선조와 기층세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가치관의 강력한 영향력과 세계화와 세속화의 경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다. 만약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르메니아 교회의 지나치고 선부른 일관성과 공격적인 세계화는 오히려 아르메니아 교회의 정체성과 단일체성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

둘째, 지속적인 박해의 위협, 강요에 의한 이주, 민족 학살 등의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함께 해온 아르메니아 교회는 물리적인 생존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현재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은 마치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혼 무장을 위해 교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출해 내야 하는 그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아르메니아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사명을 결정해야 되는 소명을 아르메니아 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재기독교화(re-Christianization)에 대한 분명한 전략 수립

- 현대 사회의 삶으로부터 추출되는 아르메니아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에 대한 모색

-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르메니아 교회의 개방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은 아르메니아 교회를 넘어 국가와 디아스포라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르메니아 교회의 자기이해를 위한 문제들과 도전의 함축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이다. 교회는 고정된 실체도 아니고, 경직된 기관도 아니다. 교회는 사회 안에서 살아있고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속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교회와 사회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사항이다. 교회가 자기이해를 재정의 내리고 교회 사명에 대한 소명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끊임없이 도전받는 부분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맥락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항상 다음과 같은 교회의 자기이해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현하고자 정진해야 한다.

- 현재와 미래의 아르메니아인들의 생활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아르메니아 교회의 특별한 소명은 무엇일까?

- 교회는 아르메니아 역사의 갈림길에서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과 복음주의의, 교육의, 부제의 과업들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상기한 바와 같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비판적인 질문, 심각한 염려, 다면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명확하게 정립된 의제에 따라 신중하고 현실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단지 낡은 상징성이나 전통에 의지함으로써 그 존재를 영속시킬 수 없다. 이런 낡은 것들은 새로운 경향이나 세상의 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으며, 신세대들을 영적이며 도덕적인 무장 상태로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아르메

니아와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인들은 새로운 상징성, 롤 모델, 접근 방법, 비전 등이 필요하다.

과거에 아르메니아 교회는 자신들이 자기만의 가치, 전통,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곤 했다. 이에 따라 아르메니아인들은 스스로의 공동체를 ‘작은 정원(small garden)’이라고 불려왔다. 과연 현재도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에 대해 동일한 답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앞선다. 세계화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 및 세계관을 재형성해 나가고 있다. 현대의 문명 이기는 인간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인 역시 장벽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혁신된 신앙, 희망, 전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르메니아식의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과 희망에 대하여 용감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와 같은 과정의 회복을 통해서만 새로운 미래 속의 아르메니아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구조와 개입·확산 지정학

이영형(한양대학교)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공간과 방법론에 대한 인식
 - 1.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인식
 - 2. 스파이크맨(N.J.Spykman)의 림랜드 이론(Rimland Theory)
 - III. 남카프카스 지역의 분산성 구조와 개입·확산 지정학적 자원
 - 1. 조지아 중앙정부와 자치공화국간 갈등
 - 2.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
 - IV. 남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자원과 개입·확산 지정전략
 - 1. 카프카스 기지 확보를 위한 러시아와 미국의 지정전략
 - 2. 러시아의 남카프카스 안보라인과 조지아의 운명
 - V. 끝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러시아 주변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던 갈등적 잠재력이 소련 해체와 함께 분출되고 있다. 개별국가 내부에서의 갈등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흑해와 카스피 해를 끼고 있는 카프카스¹⁾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 카프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카프카스로 구분되지만,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에

1) 카프카스를 캅카스(Кавκάз)로 명명하기도 하고, 영어 표기로 코카서스(Caucasus)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카프카스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로 한다.

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북카프카스 지역의 갈등은 러시아 내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쟁이다. 주변국의 개입과 간섭은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카프카스 지역에서의 갈등에는 주요 강대국들의 개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위해 카프카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안보위협 차원에서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는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등에 경제지원과 함께 유럽식 민주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미국·NATO·EU 등에 맞추어져 있다.²⁾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갈등구조가 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개입·확산 지정학을 유도하는 중심 국가는 그루지야로 명명된 조지아이다.³⁾ 조지아에서는 압하지야(Abkhazia)·남오세티야(South Ossetia)·아자리아(Azariah) 등 3개의 자치 공화국이 러시아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3개 자치공화국은 흑해의 동부를 감싸고 있다. 러시아의 카라차이 체르케시아 공화국(Republic of Karachay-Cherkessia)과 인접된 조지아 서부변방 흑해연안 상층부에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이 위치해 있고, 중심부에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그리고 터키에 인접된 남쪽지역에 아자리아(Azariah)가 위치해 있다.

본 글은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 양상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남카프카스 3국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논쟁 중인 나고르노카라바흐 포함), 조지아(논쟁 중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포함)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구조를 개입·확산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남카프카스 지역 전체가 갖는 지정학적 의미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인 러시아와 미국, NATO와 EU를 위치시킨다.

본 글의 분석 방법은 지정학이다. 국제정치 주체는 공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정치행위를 계획 및 실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 공간은 세력 경쟁을 위해 조직된 무대로 전략한다. 따라서 국제정치 주체들은 정치와 지리의 상관관계를 모색하려는 연구를 시도하고, 지리학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국가들의 정치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요청되었고, 그 결과로 지정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글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위도 $38 + \alpha$ °에 있는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구조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연구공간과 방법론을 소개한다. 카프카스 지역 공간에 대한 인식과 연구방법론인 스파이크맨(N.J.Spykman)의 림랜드 이론(Rimland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남카프카스 지역의 개입·확산 지정학적 자원을 조지아 내부의 갈등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에서 찾는다. 제4장에서는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구조를 개입·확산 지정전략 차원에서 해석한다. 카프카스 전진 기지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정전략을 보고, 러시아의 개입에 의한 조지아의 분단에 대한 의미를 파악한다.

2) Т.Пархалина, “Российск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Н.Ю.Лапина и др., *Дв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срока В.В.Путина: Динамика перемен: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Москва: ИНИОН, 2008), сс. 241-267.

3) 그루지야 정부는 2010년 주변 국가를 상대로 자국 국명을 러시아어 이름인 그루지야(Грузия) 대신에 영어 이름인 조지아(Georgia)로 표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 들여 조지아(Georgia)로 부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2010년 이전의 시기까지 소급시켜 <조지아>로 명명하기로 한다.

II. 연구 공간 및 방법론에 대한 인식

1. 카프카스 지역 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인식

흑해와 카스피 해(Caspian Sea)를 끼고 있는 카프카스(Кавκά́з) 지역은 유럽의 동쪽과 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카프카스 지역 공간은 카프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카프카스로 구분되며, 북카프카스와 남카프카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소련 해체와 함께 유라시아 주변부의 위도 $38 \pm \alpha$ °C에서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이 카프카스 지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흑해와 카스피 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갈등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동일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북카프카스에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체첸 공화국, 인구시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공화국, 세베로오세티야 공화국, 크라스노다르 지방, 스타브로폴 지방 등이 위치해 있다. 상기 러시아의 자치공화국들은 각기 자신의 역사적·문화적 이유를 들어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공화국들은 유럽연합(EU)과 미국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러시아는 이들 자치공화국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로 인해 동일 지역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와 EU의 영향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남카프카스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이 포함

<http://ko.wikipedia.org/>

된다. 남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다양한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지아 정부는 자치공화국인 압하지야(Abkhazia),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아자리아(Azariah) 등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갈등관계에 휩싸여 있다. 이들 자치 공화국들은 친러시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프카스 지역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놓고 분쟁관계에 휩싸여 왔다.

남카프카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분쟁에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과 주요 EU 국가들이 개입하면서 복잡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산성 구조를 지닌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 경쟁이 만들어 준 결과이다. 카프카스 지역은 다양한 민족·다양한 종교·역사적 배경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분산성을 지니고 있다. 카프카스 지역

민족들은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의한 억압과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⁴⁾ 남카프카스 지역의 3국은 문화와 언어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고 공통점은 적다. 각 나라의 주요 언어 계통은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어족의 아제르바이잔어, 아르메니아는 인도유럽어족의 아르메니아어, 그리고 조지아는 남카프카스어족의 조지아어가 사용되고 있다. 주요 종교는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교,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아르메니아 정교회, 조지아는 기독교 조지아 정교회이다.

카프카스 지역의 분산성 구조로 인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카프카스 지역에는 총3,000km의 국경이 존재하고, 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과 터키가 붙어 있는 9km만이 평화로운 국경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여전히 법적으로 전쟁 상태이며, 터키는 아르메니아와 맞닿은 국경을 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에, 그루지야는 아르메니아에 각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역시 사실상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에 더해 지정학적 자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⁵⁾ EU 산하의 유럽정책연구센터(브뤼셀 소재,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가 2000년 봄, 나고르노-카라바흐·압하지야·남오세티아 등 남카프카스 지역의 오래된 분쟁을 종식하고, 상호 독립과 경제 재건을 보장하는 남카프카스 공동체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 각각 나히체반 지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맞교환을 제시하는 등 중재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는 러시아가 동일 공간에 대한 지난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이 동일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간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입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 따라서 동일 공간은 적극적인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주요 게임 참가자들의 개입·확산성 지정전략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날의 단순한 군사 개입을 벗어나, 민주주의 이식, 경제지원(개발원조 제공),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입하고 있다.

2. 스파이크맨(N.J.Spykman)의 림랜드 이론(Rimland Theory)

지정학 연구는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활발하다.⁶⁾ 국가학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스파이크맨은 림랜드(Rimland)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파이크맨이 언급하고 있는 유라시아의 림랜드는 유럽해안·아라비아와 중동의 사막·인

4) Eric D. Weitz,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참조

5) 카프카스 지역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따라서 카프카스 지역의 에너지 자원 관리 문제가 주변국으로 하여금 동일 지역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행위 변수에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6) 정책과학으로 활용된 영·미 지정학의 공헌으로는 해양력(Sea Power)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 미국의 마한(A.T.Mahan), 영국 맥킨더(H.Mackinder)에 의한 심장부 이론(Heartland Theory), 2차 대전 이후 對소련 봉쇄정책으로 구체화된 미국 스파이크맨(Spykman)의 주변부 이론(Rimland Theory) 등이 있다.

도에서 중국 남부에 이르는 아시아의 몬순기후 지역 등 가장자리의 땅을 포함한다. 림랜드는 정치적인 통일과 힘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독립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림랜드 지역은 유럽·인도·중국 등 커다란 문명들이 존재했던 인구밀집 지역이다. 림랜드 지역은 잠재적으로 해양세력 및 육지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가장 복잡하고 문명화된 지역이다.

스파이크맨은 『미국의 국제정치 전략』(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1942) 및 『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the Peace,

1944) 등에서 림랜드(Rimlan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⁷⁾ 스파이크맨(N.J.Spykman)은 수송체계의 발달과 함께 교통의 새로운 중심지가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를 따라 형성되고 있음을 직시한다. 실질적으로,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은 림랜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 스파이크맨은 림랜드 지역을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하트랜드와 주변 바다 사이의 매개지역인 림랜드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갈등의 완충지대이다. 림랜드는 양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지역이다. 림랜드 지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갈등 사이에 놓이는 수동적인 지역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는 능동적인 지역으로 이해된다.

스파이크맨은 유라시아 림랜드가 대규모 인구·풍부한 자원·그들에 의한 내부 해안선의 활용 등으로 세계 통제의 열쇠가 됨을 주장한다.⁸⁾ 스파이크맨은 세계를 통제하는 중요한 열쇠로 유라시아의 림랜드 공간을 강조한다. 스파이크맨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림랜드 지역을 통제하는 자(者)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륙세력이 림랜드를 장악한다면 해양세력이 대륙의 연안지대에 돛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양세력이 동일 지역을 장악한다면 대륙세력의 팽창을 차단하면서 대륙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림랜드의 통제는 세계의 연결지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 충돌이 발생하는 림랜드의 통제가 세계 지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스파이크맨의 지정학적 관점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의 가능한 역할을 정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스파이크맨은 1942년에 출간한 『미국의 국제정치 전략』(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에서 지리에 기초된 국가간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해상주변의 제국가(諸國家)와 연합하고 심장지역 주변의 변두리 해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변두리 도서요새(島嶼要塞)를 통해 심장지역을 봉쇄할 수 있다. 스파이크맨이 구상하는 지정전략의 핵심 내용이다. 스파이크맨이 구상한 상기와 같은 지정전략은 심장지역 국가인 소련을 내륙 요새에 가두어 둘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스파이크맨의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對)소 봉쇄정책

[그림1] 광역 림랜드 지역



7) N.J.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Y.: Harcourt, Brace, 1942); ———, *The Geography of the Peace* (N.Y.: Harcourt Brace & Co., 1944) 참조.

8) S.B.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N.Y.: Random House, 1963), p. 46.

(Containment Policy)의 기본적인 발상이 된다. 봉쇄정책은 소련의 팽창을 주변지역에서 저지시킨다는 목적을 가지는 정책이었다. 스파이크맨의 림랜드(Rimland)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 서방 세계의 지정전략으로 이용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이 림랜드 지역에 군사동맹 및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하트랜드 세력인 소련의 팽창을 봉쇄해 왔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이 자신의 해양력(Sea Power)을 유라시아 주변의 Rimland 공간에 집중 배치하면서 소련의 팽창을 차단해 왔다.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탈냉전의 지정학은 자신의 연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정학 연구의 신사고를 자극하는 국제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에 기인한다. 군사력을 앞세운 power 우위 사상이 경제력과 국가간 통합 논리에 의한 외형적 화합의 정치질서에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에서 펼쳐지는 정치 논리의 현실화는 경제 논리와 함께 작동되고 있다. 지역 블록화 현상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가행위에 대한 인식이 정치 및 경제적 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문화·환경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정학 연구 범위의 확장성을 가속화시킨다.

지정학은 연구 경향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⁹⁾ 제국주의적 성향을 지닌 2차 대전 이전 시기까지의 집중지정학과 탈냉전 구조와 함께 부활되고 있는 개입·확산 지정학이 그것이다. 집중과 개입·확산이라는 용어는 지정학의 성격을 의미한다. 집중과 개입·확산이라는 용어는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기초해서 분류된 개념이다. 전자는 경성권력(Hard Power)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공간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집중이라 칭한다.¹⁰⁾ 그리고 후자는 연성권력(Soft Power)을 비롯한 다차원적 요소에 기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면서 공간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개입·확산이라 명명한다. 개입·확산 지정학은 공간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에 기초해서 자신이 개입과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산시키고 있다.

연구 경향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지정학은 국가의 외교관계나 군사독트린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슬로안(G.R.Sloan)의 지적대로, 지정학은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역할을 수행한다.¹¹⁾ 지정학은 권력집단의 세계관이며, 권력에 관한 그리고 권력을 위한 세계관 역할을 담당했다. 정치 엘리트들의 교리를 담고 있는 지정학은 통치자의 참고서이자, 권력의 교과서였다. 지정학은 중대한 (동맹관계의 체결, 전쟁의 시작, 개혁의 수행, 사회의 구조적 개혁, 대규모의 정치·경제적 결정 등)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지를 담고 있다.¹²⁾ 지정학은 과거에 대한 의미 부여뿐만 아니라, 현재를 조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이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인 및 정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9) 일부 지정학자들은 2차대전시기까지 연구된 지정학을 제국주의 지정학으로, 그리고 탈냉전과 함께 연구되고 있는 지정학을 신지정학(New Geopolitics)으로 명명한다. 또한 이를 구(舊)지정학과 신(新)지정학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영형, 『지정학』 (서울: 엠에드, 2006), p. 330.

10) 이영형(2006), pp. 330-331.

11) Colin S. Gray and Geoffrey Sloan, *Geopolitics, Geography and Strategy* (London·Portland, or: Frank Cass, 1999), p. 10.

12) 이원복 편역,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pp. 5-6 참조.

Ⅲ. 남카프카스 지역의 분산성 구조와 개입·확산 지정학적 자원

1. 조지아의 중앙정부와 자치공화국간 갈등

1) 조지아-압하지야(Abkhazia) 분쟁

조지아와 조지아내 소수 민족인 아브하즈인(Abkhaz)간의 갈등은 카프카스 지역의 복잡한 민족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표출된 분쟁이다.¹³⁾ 조지아인들의 아브하즈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심화되자 아브하즈인들은 민족차별에 대한 저항과 시위를 계속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978년 압하지야 유화정책을 수행했다. 반면에 조지아인들의 입장 또한 아브하즈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지아인들이 압하지야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산당원 중 고위직은 물론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에 아브하즈인이 조지아인보다 더 많이 임명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양 민족간 상호불신이 심화되어 갔다.¹⁴⁾ 1978년 압하지야(Abkhazia) 자치공화국이 조지아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연방의 일원으로 귀속하겠다는 분리 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가 모스크바로부터 거절되었지만 모스크바로부터 경제지원과 문화정책에서의 자율권 확대를 약속받았다.

양 민족간 갈등은 1989년부터 다시 증폭되었다.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이 자신의 지위를 1920년대 처럼 소연방 공화국의 일원으로 격상시켜줄 것을 모스크바에 요구했다. 아브하즈인들의 독립 요구가 조지아인들을 자극했다. 1989년 4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 압하지야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조지아인들의 시위가 발생했고, 이 시위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1990년 8월 압하지야 최고회의는 조지아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독립을 선포했고, 헌법에 대한 부분 개정을 결정했다. 조지아 의회는 압하지야 독립 선언을 무효화했다. 이에 압하지야 최고회의는 1991년 7월 의회선거법을 새로이 채택하고 9월 총선을 준비했다. 당시 조지아 대통령이었던 감사후르디아(Z.Gamsakhurdia)가 압하지야 측의 결정을 무효로 선언하면서 민족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조지아-압하지야 분쟁은 본질적으로 양 민족간 언어·인종·전통·역사·사회제도의 상이성에 기초되고 있다. 압하지야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문화·



13) 압하지야는 1922년부터 1930년까지 소련의 일부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조지아 출신인 스탈린(J.Stalin)에 의해 조지아에 합병되었다. 흑해로의 안정적인 출구확보와 북 카프카스를 포괄하는 소련의 국가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탈린은 우선적으로 조지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조지아 입장에서 압하지야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В.Ф.Пряхин,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ГНОМ и Д., 2001), сс. 173-175. 그리고 같은 조지아인 베리아(L.Beria)가 1953년까지 아브하즈인에 대해 의도적인 적대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아브하즈인들의 반조지아 감정이 증폭되었다.

14)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61(검색일: 2010년12월 9일)

전통 등을 유지하는 독립성이 강한 집단이다. 소련 형성기 민족 구성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경계 설정과 스탈린 시기 강압적인 조지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조지아에 대한 아브하즈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소연방 해체 이후 압하지야는 조지아로부터 독립하거나, 최소한 정치적 주권과 사회문화적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국가 형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지아 측은 압하지야가 역사적으로 조지아에 속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압하지야의 독립 요구는 무책임한 반정부 행위로 간주되어졌다.

2006년 5월에는 조지아 정부와 압하지야 분리주의자들의 조정협의회가 2001년 이래 처음 소집되었다. 그러나 분쟁의 해법은 찾지 못했고 갈등관계가 계속되었다. 조지아·압하지야(Abkhazia) 분쟁이 계속되던 2008년 8월 25일 러시아 상원이 조지아로부터 남오세티야와 함께 압하지야 공화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그리고 동년 9월 2일에는 압하지야에 러시아군의 영구 주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이후 압하지야 공화국은 러시아의 자본 유입으로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유지되었다. 세르게이 바갑시(S. Bagapsh) 대통령은 2009년 1월 26일 러시아가 압하지야 공화국에 해군기지 건설을 연내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동년 3월 6일에는 러시아가 압하지야 공화국에 있는 기지를 49년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개입으로 조지아·압하지야 분쟁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일 분쟁이 민족 갈등과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완전히 굴복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한 해결의 방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분쟁의 유형은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의 개입만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평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분쟁은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자원이 된다. 흑해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지정 전략적 게임 참가자간 힘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2)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¹⁵⁾ 1989년 11월 10일, 남오세티야의 최고소비에트는 남오세티야와 러시아 영토에 있는 북오세티야를 연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지아 최고소비에트가 그 결정을 무효화했다. 11월 23일, 감사쿠르디아(Z. Gamsakhurdia) 일행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хин발리(Tskhinvali)로 향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 이후 조지아와 남오세티야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990년 9월 20일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남오세티야 민주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언했다. 1990년 10월에 조지아 최고의회 선거가 있었지만 남오세티야는 이에 불참했고, 동년 12월 10일 남오세티야가 그들만의 선거를 실시했다. 조지아 최고소비에트는 남오세티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고 남오세티야의 자치권을 박탈했다.¹⁶⁾ 조지아·남오세티야 분쟁이 계속되었다.

1991년 4월 9일 조지아 의회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5월 26일 86.5%득표율로 감

15) 1920년 6월, 러시아가 지원하는 오세티야 군대가 조지아군과 국민경호대를 공격했다. 그 이후 붉은 군대가 조지아를 침입했다. Lang, David Marshall, *A Modern History of Georgia*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2), pp. 232-6. 1922년에 남오세티야 자치주가 조지아로 편입되었다. 소련 시절에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 자치주 간 큰 충돌은 없었다.

16) John Kohan, "Hastening The End of the Empire, Despite the crackdown in Lithuania, Georgia is intent on independence, even if it is the next on Moscow's hit list," *TIME*, Jan. 28, 1991.

사후르디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감사후르디아는 남오세티야 분리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했고, 고르바초프에게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1991~1992년 동안 조지아·오세티야 갈등이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지아군은 1991년 1월, 3월, 1992년 6월 등 3차례 츠힌발리(Tskhinvali)를 공격했다. 조지아·오세티야 충돌은 감사쿠르디아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의 하나였다. 그리고 1992년 봄의 전투는 러시아군이 개입했다. 1992년 3월에 감사쿠르디아가 축출되고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가 권력의 중심에 위치했다. 세바르드나제는 남오세티야에서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러시아가 개입된 소치 협정에 서명했다.¹⁷⁾ 1995년 이후 러시아와 OSCE가 개입하여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의 등장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간 갈등 및 분쟁이 수시로 표출되었다.

사카슈빌리(M.Saakashvili)가 집권하던 2004~2013년 동안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2008년 8월 조지아군과 친(親)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8월 7일, 조지아 군이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힌발리(Tskhinvali)에 진군해 군사적전을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푸틴 총리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지아와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군이 남오세티야로 진격하면서 조지아 군과 전투가 시작되었다. 8월 9일 러시아군은 츠힌발리(Tskhinvali)에서 조지아 군을 축출하고, 조지아 전역에 공습을 준비했다. 2008년 8월 12일 조지아가 러시아에 사실상 항복했다. 2008년 8월 13일 조지아와 러시아는 프랑스가 내놓은 평화안에 합의함으로써 사태의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지아 사태에 개입할 뜻을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결국,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국으로 공식 승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지아와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이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2009년 4월, 7~8월 조지아가 수차례 남오세티야 영토에 공격을 계속했다.¹⁸⁾ 조지아 내분은 지정학적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쟁 상황에 놓여 있다.

3) 조지아·아자리아(Ajaria) 분쟁

카프카스 서남부 흑해연안의 아자리아(Ajaria)는 터키와 접한 조지아의 자치공화국이다.¹⁹⁾ 주도는 바투미(batumi)이다. 인구통계학 상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민족적으로 조지아인이지만, 이 지방의 조지아인 대부분이 아자르(Ajar)인으로 불린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조지아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조지아내에서 자치공화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자리아 지역은 종교, 문화적으로 조지아의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1921년 3월의 카르스 조약(treaty of Kars)에 따라 자치권을 지니게 되었다. 그 이후 소비에

17) 휴전 협정은 조지아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과 남오세티야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조지아, 러시아, 북오세티야, 남오세티야가 포함된 공동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조지아군, 러시아군, 오세티야 군인들로 구성된 공동평화유지군(JPKF)이 창설되었다. Georgia: Avoiding War in South Ossetia. ICG Europe Report N°159(26 November 2004);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UNTC/UNPAN019224.pdf>(검색일: 2015년 5월 16일)

18) "EUMM Says No Evidence of Firing towards S.Ossetia," *Civil Georgia*, 1 Aug.2009.

19) 아자리아는 1878년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1918년~1920년까지 영국과 터키의 지배하에 놓였다. 터키는 1921년 3월 16일 소비에트-터키간 카르스 조약(treaty of Kars)에 의해 그 지역이 조지아의 일부 지역임을 승인했다.

트 시절에 비교적 많은 자치권을 부여 받았다.

감사쿠르디아(Z.Gamsakhurdia)는 아바시제(A.Abashidze)가 지역의 자치 지위를 소멸시키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1991년 3월 15일 그를 아자리아(Ajaria) 지역 최고의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감사쿠르디아가 아자리아 자치권 폐지를 제안했을 때, 아바시제는 이에 저항하면서 중앙 당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이미 수도인 트빌리시(Tbilisi) 지역의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한 감사쿠르디아는 아자리아 사건에 간섭하기 꺼려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자리아 지역은 조지아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독립국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 아바시제(A.Abashidze)는 자신의 방식대로 아자리아(Ajaria)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다.

1995년 대통령에 취임한 세바르드나제가 아바시제와 화해하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합의한 타협은 아자리아가 더 큰 자치권을 갖고 아바시제의 권력이 유지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다.²⁰⁾ 아자리아(Ajaria) 지도부는 종종 중앙에 세금납부를 거절하였고, 아바시제 스스로는 자신을 위한 준공식적인 무장부대를 만들어 바투미(Batumi)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중앙 당국은 아바시제의 친러시아 성향을 비난했다. 세바르드나제는 경제상황 악화와 2003년 선거부정 등의 혐의로 시작된 시민운동으로 실각했다.

2004년 1월 사카쉬빌리(M.Saakashvili)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자리아가 중앙의 지배하에 들어오도록 압력이 가해졌다. 사카쉬빌리는 아자리아에게 조지아 헌법에 따를 것과 군대 해산을 명령했다. 이러한 지시에 불복하자 조지아 정부가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아자리아에서 아바시제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조지아 부대가 진입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바노프(I.Ivanov)와 회담 이후 아바시제는 모스크바로 떠났다. 사실상 아자리아의 독립 상태는 끝났고, 그루지야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자치공화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2년 10월 1 실시된 조지아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야당이 승리했다. 사카쉬빌리(M.Saakashvili)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야당에 총리 지명권을 부여했다. 야당연합 '조지아 드림'의 지도자 이바니쉬빌리(B.Ivanishvili)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바니쉬빌리(B.Ivanishvili) 총리가 친 러시아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2012년 10월 4일에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조지아에게 CIS 복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조지아 측의 입장은 냉랭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이바니쉬빌리(B.Ivanishvili)는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외국임을 언급했다. 이바니쉬빌리(B.Ivanishvili)가 사카쉬빌리(M.Saakashvili) 전임 대통령처럼 EU이나 NATO에 가입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2.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 Karabakh Republic, NKR)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관계에 휘말려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해 있으나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거주해 왔다. 카라바흐 분쟁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1988년부터 6년간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벌인 독립 전쟁에 아르메니아가 주민 편을 들며 개입하면서 확대되었다. 1994년 아제르바이잔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협정당사국간 무력충돌이 계속되었다.

20) Eric Lohr, *Nationalizing the Russian Empire: the Campaign against Enemy Aliens during World War I*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p. 151-2, 220-1.

1988년 아르메니아는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살아온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르메니아에 편입시키거나 독립 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서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의 영역이라고 반박하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현상유지를 주장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양 민족의 갈등이 격화되자, 1989년

[그림]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 Karabakh)의 위치



<http://upload.wikimedia.org/>

1월 소련 최고회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모스크바 당국의 직할통치를 결정했다. 모스크바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련 최고회의는 1990년 1월 15일 아제르바이잔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련군이 직접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바쿠를 공격했다. 이후 모스크바는 1991년 5월부터 소련방 잔류를 희망하는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원했다. 모스크바의 편향적인 정책에 대응하여 아르메니아는 반소, 탈소정책과 반아제르바이잔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즉시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지역에서 전투를 가져왔다. 1991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가 독립을 선포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다. 1991년 카라바흐 지역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국제 분쟁화 되었다. 1992년 2월 말에는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인접 지역을 점령했다. 나히체반(Nakhichevan) 공화국에 공격을 감행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가 계속 나히체반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경 안전을 위해 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터키의 개입으로 인해 분쟁이 국제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러시아를 비롯한 CIS 6개국도 터키 개입을 반대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했다. 양국은 1994년 5월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휴전협정에는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에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국적 평화유지군 파견이 결정되었는데 다국적군 중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²¹⁾ 휴전협정과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정당사국간 무력충돌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동일 분쟁이 국제화 되면서 중재에 나선 국가 및 국제기구(UN, EU, NATO, CSCE 등)들이 증가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더욱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²²⁾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1985~2013년 동안 계속되었고, 동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계속되었다.²³⁾

2008년 2월 25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10여 년 동안 빚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21) Elizabeth Fuller,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p. 16.

22) Jim Nichol,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7-5700, April 9, 2009, pp. 22-23.

23) 우평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년도 HK국내학술회의(2013년 4월 19일) 발표 자료집, pp. 75-95 참조.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UN총회에 제출했다. UN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며 분쟁이 남(南) 카프카스 지역 국가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대표는 UN의 어느 회원국도 아르메니아의 카라바흐 점령으로 생겨난 상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르메니아는 현재 점령중인 카라바흐와 주변지역으로부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주장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양 민족간의 대립은 민족·종교·영토 문제가 얽힌 복합 분쟁이다. 양국간 갈등은 근본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양국의 갈등과 분쟁은 주변국들의 개입을 촉발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자원이 된다. 즉, 회교권의 아제르바이잔은 주변 회교 강국인 이란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아르메니아는 같은 기독교 계통인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국간 갈등과 전쟁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며, 국제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IV. 남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자원과 개입·확산 지정전략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 카프카스 3국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체첸, 다게스탄, 인구세티야, 북오세티야 등 러시아 4개 자치공화국이 위치한 카프카스 지역은 풍부한 유전지대와 카스피 해에서 흑해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송유관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면서 카프카스 전역이 복합 갈등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조지아의 국내 갈등[조지아-압하지야(Abkhazia) 분쟁,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 조지아-아자리아(Ajaria) 분쟁]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의 개입·확산 지정학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남카프카스 지역의 분쟁을 기회로 개입·확산 지정전략을 구사하면서 동일 지역이 거대한 힘의 대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1. 카프카스 기지 확보를 위한 러시아와 미국의 지정전략

소련으로부터 조지아의 독립에 즈음하여,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지역에서 소련 잔류를 희망했다. 조지아 정부가 친서방 정책을 추진했고, 압하지야(Abkhazia)를 비롯한 자치공화국들은 조지아의 일방적인 탈러시아 및 친서방 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조지아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압하지야 자치정부는 단일한 조지아 건설이라는 국가통합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옐친집권기 러시아는 여러 차례 압하지야가 조지아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조지아의 영토적 통일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러시아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러시아가 압하지야의 분리 독립을 지원 혹은 묵인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체첸 문제에 부메랑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조지아 및 압하지야 중 어느 일방을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해 왔다.

조지아는 1990년대 자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국정안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탈러시아 및 친서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²⁴⁾ 조지아 정부의 외교관계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EU와 NATO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3명의 대통령

[감사후르디아(Z.Gamsakhurdia, 1991~1993);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 1995~2003); 사카슈빌리(M.Saakashvili, 2004~2013)]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러시아보다 유럽을 선호했다.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푸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했다.²⁵⁾ 이러한 시기 조지아에서는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가 집권하고 있었다. 세바르드나제(E.Shevardnadze)는 1995 ~ 2003년 11월까지 친미 노선을 걸어왔다. 독재자의 길을 걸어오던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이 국민들의 퇴진 압력에 의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경제문제에 더해, 2003년 11월에 실시된 총선의 부정시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바르드나제의 몰락이 조지아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기회였다. 세바르드나제가 그 동안 친미 노선을 취했을 뿐 아니라 체첸 반군을 비호해 왔기 때문이다. 체첸 반군이 조지아와 체첸의 국경지역에 있는 조지아의 판키시(Pankisi) 계곡에 기지를 만들어 러시아를 집요하게 괴롭혀 왔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체첸 반군을 추적하기 위해 판키시(Pankisi) 계곡에 대한 군사작전을 희망했다. 그러나 세바르드나제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9·11 테러 후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한 것도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렸다.²⁶⁾ 미국 역시 세바르드나제 정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1월 세바르드나제의 사임을 가져온 시민혁명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²⁷⁾ 세바르드나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특정의 역할을 담당한 미국이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조지아에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를 비롯한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2003년 12월 4일자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치야의 보도대로, 조지아에서 신(新)냉전이 시작되었다.²⁸⁾ 조지아의 냉전적 분위기는 조지아 국내 문제에 러시아와 미국 등이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2008년 7월의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C.Rice)가 트빌리시를 방문해 조지아가 NATO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녀는 조지아에게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의도로 NATO 회원국 가입 계획을 수용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S.Lavrov) 외무부 장관은 조지아의 NATO 가입 절차가 물고 올 갈등적 파장을 힘주어 강조하기 시작했다.²⁹⁾

2008년 8월 7월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이 러시아와 조지아간의 전쟁으로 확

24) Г.Т.Моурави,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сс. 130-131.

25) 카프카스지역의 지정학적 의미는 다음을 참조 바람. К.С.Гад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26) 정우량, "그루지야 사태의 이면. 석유패권 둘러싼 美·러 에너지 전쟁," 『월간중앙』 2004년 2월호 (제30권 2호, 통권 339호), p. 294.

27) 폴린 파월(C.Powell) 미국 국무장관은 세바르드나제에게 전화를 걸어 퇴진을 요구했다. 미국은 민심이 떠난 세바르드나제 정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음을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친미 정권을 세우는 한편, 친러시아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되어, 미국이 세바르드나제의 퇴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2003년 11월 23일 세바르드나제가 사임을 결정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을 맡은 부르자나제(N.Burdzhanadze)에게 전화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백악관으로 전화하라. 우리는 즉각 도울 것"이라고 했다. 럼즈펠드(D.Rumsfeld) 국방장관 역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조지아가 기여한 공로를 강조하면서 조지아가 미국의 굳건한 친구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럼즈펠드는 조지아에서 러시아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위의 글.

28) *Известия*, 04 декабря, 2003 г.

29) "Lavrov: Georgia's NATO Membership May Undermine Conflict Resolution," *Civil Georgia*, 10 Jul.2008.

산되었다. 미국이 조지아에 대한 보급물자 지원을 강행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 때 흑해 지역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인식하여 프랑스가 제시한 최종 평화안에 서명하고 8월 23일 러시아가 철군협정에 서명하면서 군대를 철수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인근의 완충지대에 군대를 남긴 것이 협정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카슈빌리(M.Saakashvili)는 NATO를 택했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미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선택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로 부터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조언 고문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을 대비해 조지아군의 부적당한 전투 방식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조지아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발트해 국가들에게 무료로 무기를 공급 받았다. 사카슈빌리(M.Saakashvili)는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압하지야(Abkhazia) 지역을 중앙 통제 하에 예속시키려 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합병하겠다고 주장하는 아자리아(Azariah) 자치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해 강제 진압했다.

2008년 8월 25일 러시아 의회가 조지아로부터 압하지야(Abkhazia) 공화국과 더불어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의 독립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미국의 반발과 함께, UN과 같은 국제기구 는 자치공화국과 조지아 간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희망해 왔다. 2009년 4월 30일 메드베제프 당시 대통령은 크렘린에서 압하지야 및 북오세티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의 현재 국경 보존에 관련된 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2012년 3월의 남오세티야 대통령 선거에서 티빌로프(L.Tibilov)가 당선되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은 2012년 10월 24일 모스크바주의 노보-오가료바(Ново-Огарёво)에서 남오세티야 대통령인 티빌로프(L.Tibilov)와 정상회담을 갖고 남오세티야와 경제 및 사회영역에서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공화국의 하부구조 복원과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³⁰⁾

2013년 11월 사카시빌리(M.Saakashvili)가 퇴임하고 마르그벨라슈빌리(G.Margvelashvili)가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마르그벨라슈빌리(G.Margvelashvili)가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하지만, EU나 NATO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듯하다. 조지아의 친서방화 정책은 카프카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카프카스 지역으로의 지정학적 출구 확보를 위해 조지아내 자치공화국의 독립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독립을 승인했고, 양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면서 조지아를 자극했다. 조지아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EU 국가들 역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OSCE는 카프카스 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해 10이 넘는 기간 동안 중재노력을 해오고 있다.

2. 러시아의 남카프카스 안보라인과 조지아의 운명

2015년 3월 18일 푸틴과 남오세티야의 티빌로프(L.Tibilov) 대통령이 크렘린 궁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의 회동에서 러시아와 남오세티야는 약 7년간의 외교기간에 양자관계 활성화를 위해 80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보를 비롯한 경제 및 사회 영역에서 양자간 파트너십 관계 강화를 담고 있는 <동맹과 통합 조약>(договора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интеграции)에 서명했다. 티빌로프(L.Tibilov) 대통령의 지적처럼, <동맹과 통합 조약>은 단

30)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Осетии Леонидом Тибил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6711>(검색일: 2015년 5월 10일)

순이 2008년 9월 17일 양자간 체결된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규칙>(положение о дружбе, с 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을 구체화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수준의 법적 성격을 지닌 협정으로 격상된 것이다. 러시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지원 차원에서 남오세티야에 430억 루블 이상을 지원했다. <동맹과 통합 조약>에는 국가주권과 안보영역에서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³¹⁾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맹과 통합 조약>의 핵심은 남오세티야의 군사·경제부문을 러시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조약에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의 국경을 보호하고 세관을 통합하며 남오세티야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얻기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경개방과 공무원 임금·연금 인상안도 포함되었다.

러시아와 남오세티야 공화국간 체결된 <동맹과 통합 조약>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마르그벨라슈빌리(G.Margvela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와 체결한 <동맹과 통합 조약>이 주권국의 영토적 통일성 원칙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³²⁾ 미국에서는 젠 사키(Jen Psaki)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조약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지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이 조약이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NATO는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이 조약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러시아와 압하지야의 관계 역시 긴밀해지고 있다. 러시아와 압하지야 공화국의 정상 회동은 2008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1차례 이상 있었고, 정상회담에서 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문제가 논의되었다.³³⁾ 특히, 2014년 11월 24일 푸틴은 소치에서 압하지야 공화국의 라울 하짐바(Raul Khadjimba) 대통령을 만나 양자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양자간 군사·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2008년 9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러시아연방과 하브하지야 공화국간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³⁴⁾에 기초해서, 전체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러시아연방과 압하지야 공화국간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³⁵⁾을 체결했다.³⁶⁾ 2015년 2월 4일 상기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이 서명되었다. 본 조약 제3조에 양자간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 방향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 단일의 안보 및 국방 공간 형성에 관련된 통합군 시스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체약 쌍방 중 일방이 외부로부터 군사 공격을 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³⁷⁾ 상기

31)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Южная Осетия Леонидом Тибил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47876>(검색일: 2015년 5월 10일)

32) <https://www.president.gov.ge/en/>(검색일: 2015년 5월 10일)

33) 압하지야 자치공화국 공식사이트 참조. 대통령 공식사이트(<http://presidentofabkhazia.org/en/>); 정부 홈페이지(http://abkhazia.gov.ge/index.php?lang_id=RUS&sec_id=30); 공식 포털사이트(<http://www.abkhazeti.info/>) 참조.

34) Договоре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35)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36) 본 조약은 러시아 두마에서 2014년 12월 23일 비준되었다. <http://kremlin.ru/acts/news/page/15>(검색일: 2015년 5월 7일)

37) 2014년 11월 24일 소치에서 체결된 <러시아연방과 아브하지야 공화국간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의 원문 검색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kremlin.ru/supplement/4783>(검색일: 2015년 5월 10일)

조약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러시아와 압하지야가 러시아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부대를 창설하여 적의 공격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2014년 11월에 압하지야 공화국과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고, 2015년 3월에는 남오세티야 공화국과 <동맹과 통합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이 민주주의 이식 및 대규모 경제지원을 무기로 조지아 진출을 계속한다면 러시아는 조지아 국내 문제를 지정학 차원에서 접근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지아 정부가 미국에 기울면 기울수록 러시아의 개입확산 지정학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는 1992년 조지아로부터 독립과 함께 압하지야 공화국을 선포했고, 이미 두 차례나 무력 충돌을 겪었다. 남오세티야 역시 1989년 자치주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승격을 요구하면서 정부군과 충돌했으며, 1992년 이래 사실상 조지아와 분리된 상태이다. 러시아가 조지아 국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조지아가 탈러시아 노선을 지속하게 된다면 통일 국가가 유지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조지아 내 3개 자치공화국인 아자리아·압하지야·남오세티야는 모두 러시아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³⁸⁾ 따라서 조지아가 탈러시아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면, 러시아는 조지아 해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한 안보 라인을 조지아와 그 인접지역에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V. 끝맺는 말

브레진스키(Z.Brzezinski)의 『거대한 체스판』에 의하면 유라시아는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투쟁이 계속되는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이다. 그리고 카플란(R.D.Kaplan)은 『타타르로 가는 길』에서 분산성 지역인 동유럽·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을 관찰하면서 동일 지역에서의 갈등구조가 동양사상의 성악설·마키아벨리나 홉스의 현실주의 정치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플란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이 역동적으로 지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목적의식적 관리 그리고 지정학적 행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신중한 운영을 당부한다.

미국은 자신의 안보전선을 북대서양에서 흑해를 지나 카스피 해로 확장시키려 한다.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의 안보라인은 중동부 유럽에서 흑해와 카스피 해를 끼고 있는 카프카스 지역으로 위축되고 있다. 흑해 함대의 모항인 세바스토폴(Sevastopol) 항의 동쪽에 러시아 함대가 정박해 있었지만 NATO와 EU의 동진정책이 계속되었다. 이미 동유럽으로 진출한 NATO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념이 아니다. 흑해를 지나 카스피 해로 자신의 관할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NATO 이름이 수정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NATO 이름으로 동유럽을 삼키면서 동진해 오고 있다. 승자의 특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안보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NATO와 EU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고민은 더해 갔다. 민주주의 이식과 경제지원을 앞세워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러시아가 대응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카프카스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서구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델이 카프카스 지역에서 문

38) 러시아는 아자리아(Ajaria)를 러시아 블록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자리아 주민들의 러시아 방문 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아자리아 주민들은 러시아에 도착하는 즉시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다른 조지아인들은 수도 트빌리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화적 혼란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 유라시아 주변부에서 서구형 모델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러시아의 대응이 주목되었다. 흑해와 카프카스 지역 공간으로 확산되는 게임 참가자(특히, 미국과 러시아)들의 개입·확산성 지정전략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게임 참가자 일방이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흑해와 카스피 해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한다. 지난 냉전기 때 동유럽이 가졌던 지정학적 의미가 동남진하면서 카프카스 지역에 안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카프카스 지역으로 자신의 경제력·정치력·군사력을 투사하면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응하면서 카프카스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모색해야 했다. 카프카스 지역은 ‘유라시아의 발칸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동일의 공간이 지정학적 Pivot area가 되고 있다. Pivot area란 힘을 가진 국제정치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충돌될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유라시아 서남부 Pivot area는 Rimland 공간에 해당된다. Rimland 공간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스파이크맨(N.J.Spykman)의 림랜드 이론(Rimland Theory)에 힘이 실린다.

카프카스 지역으로 향하는 NATO와 EU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조지아는 미국이 유라시아 주변부로 동진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 흑해와 카스피 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행위는 러시아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미국의 지정전략과 러시아의 안보전략이 충돌될 수 있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조지아를 향해 추진하는 지정전략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방어적 수준에서 지정전략을 구사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동부 유럽을 상실했고, 흑해와 카스피해까지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라인을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다. 자신의 영토 공간까지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안보 방어선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감싸면서 그려지고 있다. 더 좁게는 크림반도를 포함하는 흑해와 카스피 해가 최후의 방어선이 된다. 러시아가 더 이상 더 양보할 공간은 없다. 조지아에 미국의 지정전략이 투사된다면, 카프카스 지역이 위태롭게 된다. 조지아가 관리하고 있는 남카프카스 지역으로 유럽식 민주주의가 이식된다면, 그 다음으로 북카프카스 지역에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러시아에게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안보 방어선이 단일의 조지아를 해체시키고 있다.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조지아의 국내 갈등[조지아-압하지야(Abkhazia) 분쟁, 조지아-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분쟁, 조지아-아자리아(Ajaria) 분쟁]에 개입하면서 국가 영토를 분할하고 있다. 조지아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독립시켜 자신의 관할권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국가 분열, 카프카스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가? 미국과 러시아의 과욕이 만들어 놓은 현실인가? 국가 내부의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분열된다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겠지만,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 분단된 것이라면 ‘미약한 힘’을 탓해야 할 것이다. 남카프카스 지역은 개입·확산 지정전략이 구사되는 <거대한 힘의 대결장>으로 당분간 더 임대될 것이다. 임대료는 고스란히 카프카스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참고 문헌

우평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년도 HK국내학술회의(2013년 4월 19일) 발표 자료집.

이영형, 『지정학』 (서울: 엠애드, 2006)

이원복 편역,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정우량, “그루지야 사태의 이면. 석유패권 둘러싼 美·러 에너지 전쟁,” 『월간중앙』 2004년 2월호(제30권 2호, 통권 339호).

S.B.Cohen,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N.Y.: Random House, 1963)

E.Fuller,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C.S.Gray and G.Sloan, *Geopolitics, Geography and Strategy* (London-Portland, or: Frank Cass, 1999)

J.Kohan, "Hastening The End of the Empire, Despite the crackdown in Lithuania, Georgia is intent on independence, even if it is the next on Moscow's hit list," TIME, Jan. 28, 1991.

D.M.Lang, *A Modern History of Georgia*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2).

E.Lohr, *Nationalizing the Russian Empire: the Campaign against Enemy Aliens during World War I*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Jim Nichol,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7-5700, April 9, 2009.

N.J.Spy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Y.: Harcourt, Brace, 1942)

N.J.Spykman, *The Geography of the Peace* (N.Y.: Harcourt Brace & Co., 1944).

E.D.Weitz, *A century of genocide: utopias of race and na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Georgia: Avoiding War in South Ossetia," ICG Europe Report N°159 (26 November 2004); <http://unpan1.un.org/intradoc/groups/public/documents/UNTC/UNPAN019224.pdf>(검색일: 2015년 5월 16일)

"EUMM Says No Evidence of Firing towards S.Ossetia," Civil Georgia, 1 Aug.2009.

"Lavrov: Georgia's NATO Membership May Undermine Conflict Resolution," Civil Georgia, 10 Jul.2008.

К.С.Гад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Г.Т.Моурави,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Т.Пархалина, "Российская внешняяполитика: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Н.Ю.Лапина и др., *Дв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срока В.В.Путина: Динамика перемен: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Москва: ИНИОН, 2008)

В.Ф.Пряхин,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нстве* (Москва: ГНОМ

и Д., 2001)

Договоре о дружб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Абхазия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жной Осетии Леонидом Тибил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6711>(검색일: 2015년 5월 10일)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Южная Осетия Леонидом Тибилловы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47876>(검색일: 2015년 5월 10일)

Известия, 04 декабря, 2003 г.

http://abkhazia.gov.ge/index.php?lang_id=RUS&sec_id=30)

http://gazeta.zn.ua/LAW/zakon_o_yazyke_osnovy_yazykovoy_politiki_ili_zasada.html

<http://kremlin.ru/acts/news/page/15>

<http://kremlin.ru/supplement/4783>

<http://presidentofabkhazia.org/en/>

<http://www.abkhazeti.info/>)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61

<https://www.president.gov.ge/en/>

■ 제 3세션(16:20 -17:40)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전통 및 정치 공간

·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 발표자

현승수 :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에 관한 소고

정재원 :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전통과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과의 관계

· 토론자: 김신규(한국외대), 김정기(한양대)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에 관한 소고

현승수(통일연구원)

1. 서론
2. 정체성과 신념은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조지아 유럽 지향성의 역사적 연원
4. 장미혁명과 유럽 회귀 담론
5. 타자로서의 러시아와 유럽 담론
6. 결론

1. 서론

캅카스의 소민족 조지아인들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명과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소비에트 70년 동안 러시아인은 물론 소련에 속한 유라시아 제민족과 교류했으며 그 이전에는 중동의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기타 주변 무슬림 민족이나 기독교 민족, 캅카스 민족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국가, 국민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조지아에서는 국민/민족 정체성(national/ethnic identities)이 오로지 유럽에만 초점을 맞추어 담론화되며 또 현실 정치와 외교 정책에 반영된다. 조지아의 어디를 가더라도 조지아 국기와 함께 걸려 있는 EU의 깃발을 볼 수 있듯, 유럽-대서양(Euro-Atlantic) 세계로의 제도적 통합만이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현지의 TV나 신문을 볼 때면, 혹은 정치가들이나 학자를 만날 때면 조지아가 유럽 문명의 일부라거나 가장 원초적인 유럽 국가라는 문명론적 담론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지아는 유럽의 일부인가? 왜 아시아는 아닌가?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은 정체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적, 외교적 수사(rhetoric)에 불과한가?

이 논문은 조지아가 유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 국가의 사회질서(social order) 특히 정체성과 신념이 그 나라의 외교 정책과 대외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을 고찰하고, 자아로서의 유럽과 타자로서의 러시아가 조지아 정치 엘리트들의 인식과 담론 속에서 어떻게 표상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장미혁명의 주역인 사카쉬빌리 전 대통령과 혁명 세력이 유럽 지향성을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이용하려 한 흔적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담론이 지배의 정당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되었는지도 밝히고자 했다.

2. 정체성과 신념은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일국의 대외 정책을 규정하고 조건짓는 요소로는 경제나 자원 등 물리적 요인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신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약소국은 가장 강력한 주변국을 의식해 균형 외교를 펼치거나 아예 강대국에 편승하는 (bandwagoning) 전략을 구사한다.(Jervis and Snyder, 1991) 현실주의 이론을 수정하고자 했던 스테픈 월트(Stephen Walt, 1987)는 특정 국가가 최강대국을 대상으로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의식하여 그렇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 위협이란 지리적 근접성, 공격력, 침략 의도 등에 따라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균형 외교와 편승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탈소 국가들에게는 이같은 신현실주의 이론이 적용되기가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Miller, 2006; Wohlforth, 2004) 조지아의 경우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서방의 균형자적 역할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친서방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를 설명하기에도 기존 이론은 불충분하다.(Gvalia, Siroky, Lebanidze & Iashvili, 2013) 기존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조지아는 러시아에 붙어 편승 전략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의존성에 의한 설명으로도 조지아의 외교 노선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으며 2006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경제 제재를 줄곧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조지아를 포함해 탈소 약소국들의 대외 정책과 외교 정향을 연구한 카카치아와 미네사쉬빌리는 일국의 사회질서(social order)에 주목하고 신념과 정체성이 대외정책의 선호(preference)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¹⁾ 사실 이데올로기나 신념, 정체성, 상징 등 비물리적인 요인이 국제관계와 근대국가의 대외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없는데,(Fawn, 2006, p. 7)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능력(capabilities)이 아니라 국가의 선호라는 모라브썩(Moravcsik, 1997)의 주장, 체제 홍보(regime promotion)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의 의도 뒤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밝혀낸 오웬(Owen, 2011)의 연구, 대외정책 분석을 위해 사회질서 개념을 이용한 스킴모어(Skidmore, 1997)의 연구 등이 이미 선행연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킴모어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국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사회질서에 의해 생성되는 이해관계(interests)와 의도(purposes)의 기능이다. 여기서 사회질서란 정치 체제(제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체계(신념), 경제적 생산 및 배분 구조(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또 국가의 선호는 단순히 국가간 경쟁에 의해서만 조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체제는 국가들의 경쟁의 장이라기보다 사회질서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스킴모어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사회질서들 사이의 공존 가능성(compatibility) 정도에 따라 적대감과 우호감이 결정되며, 분쟁은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의도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질서의 선호에 따른 비전(vision) 상의 질적 차이로부터

1) 사회질서란, 인간 관계와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형태를 유지, 계속, 실행하기 위한 사회구조와 사회제도 및 사회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사회질서는 상호작용과 습관의 유형이나 제도의,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이며, 이 사회질서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그 조건이란 재산, 교환, 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형태, 커뮤니케이션 관계 그리고 가치의 이념적 시스템을 포함한다. <http://ja.wikipedia.org/wiki/社会秩序>.

발생한다고 보았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 p. 2)

한편, 위에서 언급한 카카치아와 미네사쉬빌리는 탈소 신생 독립국들의 대외정책을 분석할 때, 상기한 사회질서 이론과 더불어 정체성에 기반을 둔 구성주의적 방법론, 특히 자아와 타자의 연계(self/other nex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사회질서 이론과 정체성 이론(자아/타자)을 조합하면, 자기 정체성과 특정 개체로의 소속감은 공존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사회질서들로부터 기인하며, 반대로 타자란 사회질서들 사이에 인지된 불친화성(incompatibility)에 기인하여 규정된다. 신념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 과정의 프레임과 상황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신념, 타자로부터의 인지된 위협, 사회질서들 사이에 공존가능하다고 인식되는 관계는 모두 대외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 p. 3)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조지아 대외정책에서의 유럽 지향성이 사회질서, 특히 정체성과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자아로서의 유럽과 타자로서의 러시아가 어떻게 인식되고 담론화되는지를 고찰한다. 자아와 타자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방식은 안보와 위협 인식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결국 우호 관계와 적대 관계로 이분화된다.²⁾ 특별히 논문에서는 조지아의 정치, 외교 엘리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조지아 주민들의 유럽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Muller, 2011) 여타 탈소 국가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지아의 정체성 형성도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조지아 유럽 지향성의 역사적 연원

조지아인들이 스스로 유럽 지향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일반적인 담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원래 조지아는 유럽 문명에 속한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들 중 하나였다. 역사를 거치면서 페르시아나 오스만제국 등 주변 무슬림 제국들, 19세기 들어서는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의 지배를 받아 정체성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조지아인들은 이제 유럽인으로서의 원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아 민족에게 유럽으로의 회귀는 문명론적 당위이자 민족의 숙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체성 규명이 그런 것처럼, 조지아인들의 유럽 정체성 혹은 유럽 동일시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특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역사서를 들춰보면 조지아인들이 고대부터 그리스-로마 특히 비잔틴 세계와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이 종교적 정체성이 조지아인들에게 기독교 유럽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유럽 세계는 고대와 중세에도 조지아 엘리트들의 대외 정책 지향에서 중요한 존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Ó Beacháin and Coene, 2014, p. 925)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된 후, 조지아는 유럽 기독교 세계와의 무역과 교류가 단절된 채, 주로 페르시아와 오스만이라는 양대 무슬림 제국의 경합지 또는 완충지대

2) 사회적 위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축되는 것이며, 정체성과 인지된 이해관계는 엘리트와 주민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외교 정책과 행위에 반영된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 pp. 2-3) 국민 정체성이 대외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존스톤(Johnston, 1995)의 주장이나 신념과 정체성이 대외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골드스타인과 케헤인(Goldstein and Keohane, 1993)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념 만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규정하는 것은 신념이라는 것이다.(Gvalia et al., 2013, p. 109)

로서 존속했다. 당시 조지아인들을 유럽 세계와 연결시켰던 유일한 요소는 기독교였는바, 조지아는 이슬람 세계와 접하는 기독교 세계의 최전선에 위치할 뿐 아니라, 자연히 무슬림 ‘타자’(other)에 대해 “기독교도이며 유럽인이고 박해받는 전사(warrior-martyr)”로서 스스로를 표상화했다.(Jones, 2004, p. 91) 18세기 초, 카르틀리(Kartli) 왕국의 군주인 바흐탕(Vakhtang) 4세가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술한-사바 오르벨리아니(Sulkhan-Saba Orbeliani)를 교황과 유럽 군주들에게 파견한 사례나, 1762년 카르틀리-카헤티(Kartli0Kakheti) 왕국의 군주 에레클레(Erekle) 2세가 러시아 제국에 보호를 요청했다가 결국 제정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사례 등은 조지아인들의 외교 정향 속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이 주요 추동 요인이었음을 증명한다.

신화와 전설로 가득한 고중세의 역사는 차치하고, 조지아인들이 자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부터 활발해진 문화 국민주의(cultural nationalism)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러시아에서 공부하던 조지아인 청년들이 유럽의 국민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이를 조지아 본토로 수입했다. 이들을 조지아 역사에서는 테르그달레울니(tergdaleulni)라고 부르는데, 그들 덕분에 19세기 말 조지아에는 민족 정체성과 국민주의 논의가 크게 유행했다. 하지만 초기의 국민주의자들은 조지아 정체성(Georgianness)의 독창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동방 세계와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조지아 국민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일리아 차차바제(ilia Chavchavadze)는 조지아가 ‘서아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Brisku, 2009, p. 52) 유럽 문화가 순수한 조지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³⁾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치스페르한첼니(tsisperkhantselni)라고 불리던 조지아인 식자 그룹이었다. 서유럽 유학파들이 주류를 이루던 동 그룹은 조지아 문화가 서방 문화와 동방 문화의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아시아는 ‘악몽’이요 아시아 문화는 낡고 비대하며 어리석다고 비판하면서 조지아가 유럽 세계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isku, 2009, p. 76)

오늘날 조지아인들은 근대에 들어 스스로의 유럽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형태로 확실히 표현했었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1918년 선포된 조지아민주공화국으로서 동 공화국은 소비에트 적군에게 점령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1921년까지 민주공화국으로서 존속했었다. 조지아인들은 이를 조지아 제1 공화국으로, 그리고 소련 해체로 인해 독립한 이후 현재의 공화국을 조지아 제2 공화국으로 부르며 조지아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1921년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조지아민주공화국이 폐지되고 조지아는 소연방의 일개 공화국으로 편입되었지만 조지아인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비에트 시기 동안 조지아인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독립 이후 연구를 통해 착실히 규명되고 있다. 그들이 자민족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민족어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Blauvelt, 2009)

흔히 2003년 장미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사카쉬빌리 대통령이 조지아 유럽 담론의 선구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의 집권 이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조지아 유럽 담론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카쉬빌리의 전임 대통령인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역시 친유럽적 성향을 보였다. 다만 뉴앙스는 다소 다르다. 독립 조지아의 초대 대통령인 감사후르디아는 반러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평가되며 혹시 재현될 수도 있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비해 유럽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작가 출신인 감사후르디아는 조지아를 유

3) 그러나 차차바제와 그 동료들은 국민과 계몽이라는 유럽의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중요시했다.

럽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순수 조지아성, 또 그 확대된 정체성으로서 코카서스성을 중시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권기인 1990년대 초기에는 EU가 아직 창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통합된 형태의 유럽이 제도로서 존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지아가 유럽 통합체의 일원이라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⁴⁾

한편, 감사후르디아가 쿠데타로 축출된 후 집권한 세바르드나제의 발언 속에서 조지아 유럽 담론을 찾기는 힘들다. 그는 소련 말기인 고르바초프 서기장 집권 시, 소련 외무장관을 역임한 소비에트형 지식인이었으며,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취하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지아공화국 영내에 있는 두 개 분리독립 지역, 즉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지역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급선무라고 판단, 가급적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유럽 지향성을 정책이나 개인적 발언 속에 드러내지 않았다.(Ó Beacháin and Coene, 2014, p. 929)

다만, 세바르드나제 집권 초기인 1995년부터 EU의 대 조지아 지원 정책이 개시됨으로써 대통령과 주변 엘리트들 사이에 유럽에 대한 기대와 지향 의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지아와 EU 간 동반자 관계 및 협력 협정이 논의되면서 조지아 정부는 유럽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바르드나제는 지원 수혜국으로서의 유럽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정체성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상찬하고 그것이 조지아의 모델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이는 발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관리도, 또 러시아와 유럽/서방 사이에서 균형잡힌 외교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4. 장미혁명과 유럽 회귀 담론

조지아 사회에서 유럽 지향성이 정치나 외교와 관련지어 공론화된 것은 2000년대로 들어서는 세기적 전환기였다. 그 선봉에는 ‘조지아시민연합’(Citizen’s Union of Georgia, CUG)이 있었으며 집권당 내부의 젊은 개혁가들로 구성된 동 파벌은 유럽 편입의 꿈을 정식으로 제기함으로써 이후 조지아 국가와 국민 정체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불을 붙였다. “나는 조지아인입니다, 고로 나는 유럽인입니다”라는 유명한 테제를 남긴 국회의장 주랍 쥐바니아(Zurab Zhvania) 역시 CUG에 속한 신에 정치인이었다. 1999년 조지아가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에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은 이들 CUG 세력에게 ‘유럽 회귀’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증명해 준 상징적 성과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혼란스런 조지아의 정국은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이 아닌, CUG 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모면하면서도 세바르드나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국 혼란에 일조하게 되는데, 당시 조지아는 만연한 부패와 경제 위기, 심각한 전력난 등으로 새로운 개혁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2001년 세바르드나제가 CUG를 해산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들 파벌은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반정권 세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세바르드나제 운동의 핵심 테제가 조지아의 유럽 회귀였으며 이는 곧 장미혁명의 테제이기도 했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세바르드나제가 임기 중 취한 대외정책균형조치(foreign policy balancing act)가 강대국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중시한 나

4) 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머지 조지아의 당연한 유럽 정체성 회복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다.(Ó Beacháin and Coene, 2014, p. 923) 당시 조지아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던 부패와 궁핍, 민영화의 부작용 등이 결과적으로는 유럽성 회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카쉬빌리와 혁명 세력의 판단이었다. 더 나아가 독립 이후 탈조지아를 선언한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야의 사실상 독립과 아자라(Adjara)의 '시건방진 태도' 역시 조지아의 국가적 취약성의 결과이고, 따지고 보면 유럽성 회복을 게을리한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⁵⁾ 따라서 부패한 정권을 교체하고 강한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 즉 유럽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실지(失地)와 국민적 자존심 그리고 조지아의 국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Ó Beacháin, 2009) 모든 것은 유럽으로 회귀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카쉬빌리와 장미혁명의 주역들이 과거 체코의 벨벳혁명을 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혁명과 유럽 회귀를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혁명이 본격화된 2003년 11월 21일,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가 조지아 각지에서 수도 트빌리시로 몰려들던 시점에서 사카쉬빌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조지아는 스스로의 존엄과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 스타일의 벨벳과 같이 부드럽고 피를 흘리지 않으며 민주적이면서 범국민적인 혁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은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을 무혈의 방식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또 세바르드나제 정부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에서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엄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되찾고자 합니다.(BBC Monitoring, 2003)

혁명 이후 새로 제정된 국기에서 기독교 전통을 강조한 문양이 강조된 점,⁶⁾ 전국의 주요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EU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점 등은 혁명 정부가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을 시각적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0 여년 간의 집권기 동안 사카쉬빌리가 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은 혁명 세력이 유럽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지아는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략)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럽 나라의 먼 친척도 아니고, 또 역지로 그 나라들과 연계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럽) 문명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입니다.⁷⁾

이 발언이 포함된 연설 속에서 사카쉬빌리는 장미혁명을 통해 조지아인들은 비민주적인 소비에트 과거와 결별하고 보다 밝은 민주주의적 미래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9년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인민들이 소비에트 체제를 버리고 유럽 역사의 주류에 재편입한 것처럼 조지아 또한 같은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역설했다. 그의 말처럼, 조지아의 유럽화는 조지아의 정체성 안에서 러시아/소비에트적 요소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사카쉬빌리는 유럽과 EU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도상에서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5) 아자라의 지역 수장인 아슬란 아바시제(Aslan Abashidze)는 트빌리시 중앙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카쉬빌리는 2004년 아자라를 통합했고 아바시제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6) 취임식에서 사카쉬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깃발은 조지아의 깃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와 관점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비전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Müller, 2011, p. 64)

7) 2009년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즈나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카쉬빌리 대통령이 행한 연설

조지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지아가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조지아는 단순히 유럽의 일개 국가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략) 우리의 완만한 도정은 유럽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럽이 조지아를 목도하고 조지아의 가치를 발견하며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걸음을 디딜 때가 된 것입니다.(Müller, 2011, p. 64)⁸⁾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 그리고 평화를 의미합니다. 유럽의 친구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이 이름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지배와 침략, 13살 먹은 어린 아이를 납치하는 이들, 그들이 부르짖는 이념 그리고 소련을 회복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말입니다. 조지아의 민주적 방식은 승리할 것입니다.

장미혁명 세력은 조지아를 ‘유럽의 기준’에 맞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할 것을 공언했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시장을 지향하고 부패가 없는 국가, 서구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유럽-대서양 세력으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 세력은 EU를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EU를 하나의 롤모델로 보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전임 정권이 무시로 일관하던 EU와의 동반자 및 협력협정을 체결할 의지를 보였다.

혁명에 대한 EU 측의 반응도 빨랐다.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조지아를 포함한 남캅카스 3국 모두에게 새로운 유럽이웃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NP)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EU가 남부나 동부 이웃국가들에 대해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약속 없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Moisio et al., 2013, pp. 748-749) 그런 의미에서 조지아는 EU에게 남캅카스 지역 전략의 실험대였던 것이다.⁹⁾

사카쉬빌리는 집권기 동안 조지아의 모든 것을 선진적인 유럽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국가의 공식문서에는 유럽 지향성과 더불어 유럽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대외정책의 최종 목표임이 명시되었다.(Jones, 2004, p. 98)¹⁰⁾ 부패 척결과 민주화 진척, 경제적 발전 등을 보여주는 국제 지수가 상당 정도 제고된 사실은 유럽 회귀의 성과로서 국내외에 선전되었다. 때문에 사카쉬빌리는 집권 초기, 자신의 개혁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혁명의 수출에 열성적이었다. 장미혁명의 수출은 러시아/소비에트와의 역사를 단절하고 유럽으로의 회귀를 성공시켰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럽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는 실지인 아자라와 남오세티야, 압하지아의 재통합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조지아가 유럽으로 인정받고 EU와 NATO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이 실지 회복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같은 낙관론은 결국 사카쉬빌리로 하여금 유럽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어떤 세력도 불법화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도록 만들었다.¹¹⁾

8) 사카쉬빌리 대통령 취임 연설.

9) 조지아는 EU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NATO와의 협력에 참가했다. 1994년에는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 PfP) 프로그램에, 1999년에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계획 및 검토 프로세스’(PfP Planning and Review Process)에 참여했다.

10) 조지아의 대외정책전략 2006-2009; 국가안보개념, 2005; 2011 등을 참조할 것.

5. 타자로서의 러시아와 유럽 담론

앞 장에서 언급했듯 조지아인들이 국민주의 이념에 눈을 뜬 것은 러시아를 통해서였으며 적어도 볼셰비키 혁명 이전까지 러시아는 조지아인들에게 ‘유럽으로 난 창’이었다. 그러나 조지아 민주 공화국이 소비에트 적군에 의해 붕괴되면서 조지아 사회민주당 엘리트들은 러시아를 더 이상 계몽(enlightment)의 나라로 보지 않았으며 유럽의 일원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Jones, 2004, p. 92) 조지아의 정치학자인 기아 노디아는 이 시점에서 조지아인들이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유럽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구상하게 되었으며 사회 민주주의와 서구 형태의 발전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Nodia, 2010, p. 94) 과거 무슬림 세계와 대치하는 기독교 세계의 일원으로서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20세기에 들어 선진적 유럽과 맞서는 후진적 공산주의의 근원악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러시아는 유럽 담론에서 항구적인 ‘타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지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럽으로의 회귀 담론이 확산될수록 러시아의 ‘타자화’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러시아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요컨대 세바르드나제가 전임 정권의 반러 노선을 수정하고 1993년 CIS에 가입하는 등 러시아에게 ‘통 큰’ 양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조지아 역내 분리주의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2006년 조지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러시아 내 조지아인들을 추방했으며 자원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8월 전쟁은 러-조 양국 관계의 파국을 의미했고 결국 두 나라는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조지아 국민들은 이 전쟁을 유럽(서방)의 가치와 러시아의 가치가 충돌한, 불가피한 갈등이었다고 본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 p. 7)

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에 다소간의 변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였다. 지지도가 하락한 사카쉬빌리의 집권 여당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 UNM)은 2012년 10월 총선에서 야당 연합인 ‘조지아의 꿈’에 패배했고, 결국 이어지는 2013년 10월 대선에서 사카쉬빌리는 조지아의 꿈이 내세운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쉬빌리(Giorgi Margvelashvili)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게 된다.

총선 당시 사카쉬빌리는 비지나 이바니쉬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이끄는 조지아의 꿈을 장미혁명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야말로 크렘린이 추구하는 지정학 음모에 자진해서 불모가 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크렘린은 조지아를 지배하고 조지아가 서방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다시 러시아에 불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적은 지금이야말로 조지아인들에게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우리는 경제 제재와 도발, 폭발과 침략을 겪으면서 실패하고

11) 2005년 2월 10일 의회 연두 교서. 한편, 수적 상대가 되지 않지만 조지아 정계와 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모든 이들이 유럽 지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 당수인 샬바 나텔라쉬빌리(Shalva Natelashvili)가 그 대표적 사례다. 또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카하 벤두키제(Kakha Bendukidze)는 2005년 당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나는 조지아가 공막적인(sclerotic) 유럽 문명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럽의 많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성장세를 죽이게 될 것이다. 유럽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Bolkvadze, et. la., 2014, p. 200) 그가 사카쉬빌리 정권의 경제 개혁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의 발언은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말았다. (중략) 조지아인들은 이제 지쳤을 것이다. 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이용해 (중략) 이 아름다운 나라를 그럴싸한 언변과 뇌물을 이용해 차지하자”고 말이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유럽을 원하며 우리는 NATO를 원한다. 우리는 발전과 더 나은 삶을 원한다.(Civil.ge, 2012)¹²⁾

정권 교체를 이룬 조지아의 꿈 연합의 지도부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 연합 안에는 이라클리 알라사니아(Irakli Alasania)나 다비드 우수파쉬빌리(David Usupashvili) 등 저명한 친서방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일 뿐 유럽 지향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Ó Beacháin and Coene, 2014, p. 935) 또 선거 결과를 놓고 러시아의 승리 운운한 서방 언론들의 태도 또한, 이후 조지아의 외교 정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이나 러시아와 조지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정곡을 빗나간 전망이었다고 생각된다.

선거에서 패한 UNM은 이후에도 유럽 담론과 반러주의라는 틀(frame) 안에서 조지아의 꿈을 공격하고 있는바, 2013년 3월 7일, UNM의 압력에 의해 포괄적이고 초당적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은 조지아의 외교 노선과 정향이 변하지 않을 것, 특히 유럽과 유럽-대서양 기구로의 통합 정책이 국가의 외교 정책 노선의 우선순위를 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해 4월 19일에는 트빌리시 시내에서 조지아의 친EU, 친NATO 노선을 재확인하는 집회도 열렸다. 이 집회에서 UNM의 서기장이자 한 때 총리직을 수행했던 바노 메라비쉬빌리(Vano Meraboshvili)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바니쉬빌리와 그의 휘하에 있는 장관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조차도 감히 조지아가 유럽으로부터 등을 돌리리라는 꿈을 꾸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Civil.ge, 2013)

그러나 조지아의 꿈 소속 하원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는 “활짝 열린 문 앞에서 노크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조지아 국민들의 유럽 지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유로이스트(EuroEast)가 2012년 11-12월 조지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UN이나 NATO와 같은 국제 기구들보다 EU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자국 정부(65%)나 의회(62%), 정당(46%)보다 EU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82%)가 EU와 조지아의 관계를 낙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Ó Beacháin and Coene, 2014, p. 936)¹³⁾

또 현재까지 신정부가 친유럽을 포기하고 친러로 외교 정향을 바꾸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

12) 사카쉬빌리는 러시아가 이바니쉬빌리의 선거전을 돕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Civil.ge, 2012)

13) 다만 또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에 대해 다소 상이한 시사점을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들의 유럽 지향성은 여전히 우세하지만 2009년을 경계로 점차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즈바니아의 언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2011년 63%에서 2013년 54%로 감소했다. EU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9년에는 57%였던 응답자가 2013년에는 49% 낮아졌다. 조지아와 EU 관계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9년 54%에서 2013년 39%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2008년 남오세티야의 영유권을 놓고 벌인 조지아와 러시아의 전쟁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 당시 조지아 군은 바라던 서방 측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사실상 독립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가 결국 EU와 미국에 대해 조지아 국민들이 갖고 있던 열광에 가까운 기대와 희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Bolkvadze, et. la., 2014, p. 200)

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4년 6월 27일, 조지아 정부는 EU와 심화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을 포함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협정이 조지아의 EU 가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지아의 유럽 통합에 대한 의사가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UNM이 보여준 위의 행동들은 집권 연장에 실패한 야당의 발목잡기 이상은 아니며 국제적인 반러 열풍에 편승해 외국으로부터 지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대다수 조지아 국민들의 판단이다.

카카치아와 미네사쉬빌리는 20명의 조지아 정관계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결론적으로 조지아 엘리트들이 외부의 후원자를 얻고자 하는 의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 아닌 서방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이 조지아의 유럽 지향성이라는 대외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 요소는 조지아 엘리트들이 러시아의 사회질서보다 유럽과의 사회질서에서 친화성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EU가 만족할 만한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가 EU와의 통합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나 대러 균형외교 차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Kakachia and Minesashvili, 2015, p. 6)

필자가 인터뷰한 조지아의 학자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한 사랑을 조지아의 대표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이들 가치가 몰개성적이고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적 특징을 갖는 러시아의 가치와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지아 최고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의 가치와 상통하기 때문에, 조지아가 유럽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¹⁴⁾ 또 카카치아 등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자가 인터뷰한 학자들 역시 러시아 푸틴 정권이 추진하는 유라시아주의적 지역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이는 조지아의 기본 가치와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조지아 국민들의 다수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반대하지 않지만 러시아 주도의 통합 프로세스에 참가하거나 조지아의 주권이 침해를 받는 것은 단연코 거부한다는 입장이다.(Navarro, 2013)

6. 결론

대부분의 지역 개념, 정체성 개념이 그러하듯, 무엇이 유럽이고 무엇이 유럽성인가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지아인들이 유럽 민족인지, 조지아가 유럽의 일부인지를 규명하려는 작업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 유럽인들이 바라본 조지아와 조지아인들이 바라본 유럽은 본론에서 분석한 것처럼 분명 지리적,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지향적 개념이라 하겠다. 기아 노디아가 지적하듯, 조지아에서 ‘유럽’과 ‘서방’이라는 개념은 역할 모델이자 당연한 동맹(presumed ally)으로서, 조지아인들에게 정체성의 확대된 틀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Nodia 2010, p. 94)

한편, 오늘날 조지아인들에게 ‘아시아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조지아를 아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치부될 정도다. 유럽 지향성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어 사회 내에 이에 대한 도전이나 반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엘리트들 역시 스스로의 계보를 20세기 초의 ‘치스페르한첼니’에 갖다 대느라 여념이 없

14) 2015년 4월 30일-5월 1일, 트빌리시국립대 블라디메르 파파바(Vladimer Papava) 총장과 조셉 살루크바제(Joseph Salukvadze) 부총장과 필자의 인터뷰.

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담론의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친러파 매국노로 비난받기 일쑤다. 유럽 조지아를 부정하는 행위는 조지아의 번영된 미래를 원하지 않는 이단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카서스성’에 대한 논의도 조지아 사회에서 목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성에 대한 담론에 비하면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오히려 ‘코카서스’라는 지역 개념보다는 ‘흑해 공동체’라는 개념이 더 환영을 받는다.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자주 거론되는 유라시아에 대한 담론 역시 국민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서방, 특히 미국의 대외 담론 속에서 조지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발언자의 의도를 일일이 검증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미국 혹은 유럽 정재계, 언론에서 조지아를 유럽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등장할 때, 이는 다음 두가지 맥락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개혁을 예찬하기 위한 맥락에서, 또 하나는 반러시아적 맥락에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조지아의 ‘유럽성’을 끌어오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최근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U가 요구하는 가입 조건을 조지아가 과연 충족하고 있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5월 17일, 수천명의 조지아정교회 사제들이 반동성애차별 집회에 모인 시민들을 학살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조지아가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당시 경찰은 무력했으며 정치가들도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혹자는 정부가 정교회 사제들의 행동을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U는 이 사건에 대해 우려했다.

그렇다면 그토록 조지아인들이 동일해지기를 바라는 유럽인들은 조지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까? 그 해답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가능성이 결코 크지 않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밀리는 조지아 대중의 유럽 지향성을 “유포리아”(EU-phoria)라고 꼬집으면서 그 유포리아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즉 EU에 대한 거창한 기대와 희망이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술깁 날 아침의 숙취처럼 고통스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Muller, 2011, p. 84)

참고문헌

BBC Monitoring. "Georgia: Opposition Leader Describes Movement as 'Velvet Revolution.'" BBC Monitoring (November 21, 2003).

Blauvelt, Timothy. "Status Shift and Ethnic Mobilisation in the March 1956 Events in Georgia." *Europe-Asia Studies*. Vol. 61.No. 4. 2009. pp. 651-668.

Bolkvadze, Ketevan, Müller, Martin and Bachmann, Veit. "I am Georgian and therefore I am European': Comparing Elite and Public Perceptions of Europe in Georgia, 2003-2013." In Natalia Chaban and Martin Holland, eds. *Communicating Europe in Times of Crisis: External Perceptions of the European Un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pp. 197-219.

Brisku, Adrian. "Albanian and Georgian Discourses on Europe: From Berlin 1878 to Tbilisi 2008." PhD dissertation. Florenc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2009.

Civil.ge. "At UNM Rally Saakashvili Speaks of 'Foiled Provocation'." Civil.Ge (September 9, 2012). <http://www.civil.ge/eng/article.php?id=25195> (접속일: 2015.05.02.).

Civil.ge. "Merabishvili Addresses UNM Rally." Civil.Ge (April 19, 2013). <http://civil.ge/eng/article.php?id=25970> (접속일: 2015.05.02.).

Fawn, R. "Ideology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9. No. 3. 2006. pp. 1-41.

Goldstein, J. and Keohane, R. O. "Ideas and foreign policy: an analytical approach." In J. Goldstein and R. O. Keohane, eds. *Ideas &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Gvalia, G., Siroky, D., Lebanidze, B. and Iashvili, Z. "Thinking outside the bloc: explaining the foreign policies of small states." *Security Studies*. Vol. 22. No. 98. 2013. pp. 98-131.

Jervis, R. and Snyder, J. *Dominos and bandwagons: Strategic beliefs and great power competition in the Eurasian Rim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Johnston, A. I.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pp. 32-64.

Jones, S. "The role of cultural paradigms in Georgian foreign policy." In R. Fawn, ed. *Ideology and national identity in post-communist foreign policies*. London: Frank Cass, 2004. pp.83-110.

Kakachia, K. and Minesashvili, S. "Identity politics: Exploring Georgian foreign policy behavior." *Journal of Eurasian Studies*. XXX. 2015. pp. 1-10.

Lane, D. "Identity formation and political elites on post-socialist states." In D. Lane, ed. *Elites and identities in post-Soviet space*. Abingdon: Routledge, 2011. pp.1-11.

Miller, E. A. *To balance or not to balance: Alignment theory and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Hampshire: Ashgate Publishing Ltd., 2006.

Moisio, S., Bachmann, V., Bialasiewicz, L., dell'Agnese, E., Dittmer, J. and Mamadouh, V. "Mapping the Political Geographies of Europeanization: National Discourses, External Perceptions and the Question of Popular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6. 2013. pp. 737-761.

Moravcsik, A.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 1997. pp. 513-553.

Müller, Martin. "Public Opinion toward the European Union in Georgia." *Post-Soviet Affairs*. Vol. 27. No. 1. 2011. pp. 64-92.

Navarro, L. "Public attitudes in Georgia. Results of November 2013 survey."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2013. <https://www.ndi.org/node/20977> (접속일: 2015.05.11.).

Nodia, G. "Components of the Georgian national idea: an outline." *Identity Studies*. Vol. 1. No. 1. 2010. pp. 84-101.

Ó Beacháin, Donnacha. "Roses and Tulips: Dynamics of Regime Change in Georgia and Kyrgyzstan."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25. No. 2-3. 2009. pp. 199-226.

Ó Beacháin, Donnacha and Coene, Frederik. "Go West: Georgia's European identity and its role i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Nationalities Papers*. Vol. 42. No. 6. 2014. pp. 923-941.

Owen, J. M. *The clash of ideas in world politics: Transnational networks, states, and regime change, 1510-201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President of Georgia. "Today we salute all of Georgia's friends. Georgia is returning to the European family where it belongs." Address by President Saakashvili at Independence Day Parade (May 26, 2006).

Skidmore, D. "Introduction: bringing social orders back in." In D. Skidmore, ed. *Contested social ord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97. pp. 3-34.

Walt, S.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Wohlforth, W. C. "Revisiting balance of power theory in Central Eurasia." In T. V. Paul, J. Wirtz and M.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14-238.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주의와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

정재원(국민대학교)

1. 서론

19세기 남북으로 분단되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된 후에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무슬림 사회의 근대화와 사회 개혁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여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나아가 범투르크주의(Pan-Turkism)에 입각한 제 투르크 민족 공동의 단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자유주의적 근대화 개혁 운동이자 민족주의적 운동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아제르바이잔 근대화 운동은 무슬림 세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다.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이슬람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독특한 근대화의 과제들을 관철해 나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들의 제국 내 무슬림 민족들이 식민지적 상황에 처한 근본적 원인을 무지와 봉건성에서 찾으려 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적 봉건적 후진 이슬람 국가들의 지배이데올로기 보다는 자유주의 등 각종 진보적 사상과 선진적 서구 문화의 통로로서의 러시아의 역할과 존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러시아 자체의 근대화가 궁극적으로 무슬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 사상은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혁명 과정 속에서 한층 더 급진화되어 이들 중 일부는 무슬림 사회 내 반동적 세력에 맞서면서도 제 민족의 평등한 연방 국가를 자임하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볼셰비키 체제를 지지하였다. 이들은 무슬림 사회의 변혁이라는 자신들의 목표가 결단코 사회주의라는 이름 하의 개혁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운동이 급진화되어 점차로 급진적 자유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민족주의적 경향이나 이슬람적 전통을 강조하는 모습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운동은 피억압 민족 입장에서의 해방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 개혁 운동이자 민족 해방적 운동이었다. 볼셰비키와 대립했던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 수립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경로를 따라 현실화된 또 다른 형태의 운동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진보적 성격을 띠었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은 부정되었고, 독특했던 민주주의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결국 소련은 붕괴했고, 소련 시기에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던 민주주의적 개혁과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인

민전선 주도 하에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제 인민전선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좌절되었던 진보적 민족주의와 개혁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되살려 이를 바탕으로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한 위기가 겹치면서 아제르바이잔만의 독특한 전통의 부활은 좌절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후 알리에프 부자의 정권 하에서 석유 자원 개발과 수출을 기반으로 거시적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석유 이권으로 인한 서구 국가들과 자본의 묵인 속에 국내적으로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봉건적인 후견주의가 만연하면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발전은 지체되고 있으며, 오히려 탈소비에트 시기 아제르바이잔에서 특유의 민족주의와 이슬람, 그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거나 왜곡되고 있으며, 이 요소들의 합리적인 조합이 파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민족주의와 종교적 전통,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던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어떻게 소련 시대 말기에 재현이 되었고, 독립 이후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 비서구 무슬림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고, 민족주의와 종교,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의 아제르바이잔 민족 발전의 특성들

이란의 사파비 왕조 멸망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수십 개의 칸국들(Khanate)로 분열되었고, 이후 이 지역의 패권은 러시아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1724년 대부분의 아제르바이잔 영토는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했지만, 표트르 대제 시기인 1723년에 이미 러시아는 바쿠를 점령한 바 있었다. 그 후 1,2차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굴리스탄 조약(1813년), 투르크멘차이 조약(1828년)으로 러시아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영토 전체를 점령하였고, 이란은 남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남북으로 분할되어 각각 러시아화, 페르시아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813년 굴리스탄 조약 체결 이후 제정 러시아령이 된 바쿠는 석유 생산 등에 힘입어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노벨과 로스차일드 등 서구의 석유 관련 대자본의 진출로 19세기 말에 이미 460개가 넘는 유전이 개발되고 인구는 20만이 넘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쿠의 인구 과반수 이상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된 러시아, 아르메니아, 조지아인 등 비무슬림 이주민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석유 기업들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이었고, 각종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 파업과 혁명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자본가나 중산층 시민들도 점차로 비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 계급 모두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 하고 대부분 최하층 노동자이거나 농민 등으로 주변화되어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아직 러시아는 석유 부문 외에는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개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주민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분야는 발전하지 못 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제국 하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대 러시아 시장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 해 바쿠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기도 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석유 분야 외에도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의 성장이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정부의 해외 거주 아르메니아인, 조지아인들의 국내 이주 유도 정책으로 인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불만

은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특히 러시아에 의한 점령 이후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비롯한 무슬림들의 터전이었던 남코카서스 지역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져 예레반과 카라바흐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 등 민족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동시에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수니파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대거 터어키 등지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시아파가 다수를 이루던 남부 아제르바이잔과는 달리, 수니파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이 지역도 시아파가 다수를 이루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 민족들의 이주 등으로 터어키와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무슬림적 전통을 약화시키고, 이슬람 세계와의 연계를 차단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러시아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 조지아인들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들처럼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자국 혹은 자민족의 후진적 상태에 대한 자각과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각종 사회주의적 사상들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점령 하의 북부 아제르바이잔의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통해 유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러시아와 유럽의 대학에서 직접 수학함으로써 각종 급진적 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러시아 제국 내 무슬림들이 주도하는 범이슬람회의를 통해, 다른 일부의 지식인들은 러시아 두마에 무슬림 사회를 대변하는 대표로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고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통일된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열망이 점차로 고조되자 러시아와 페르시아는 남북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통일 및 독립 운동을 저지하는 데에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05년의 러시아 혁명, 1905-1911년의 이란 입헌제 혁명, 그리고 1908년의 청년 투르크 당에 의한 터어키의 공화제 혁명 등은 아제르바이잔 사회에도 급진적 변화의 바람을 불러 왔다. 러시아 혁명과 이란의 입헌제 혁명 과정에서 남북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하였는가 하면, 민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이란의 입헌제 혁명과 터어키 공화제 혁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과의 민족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등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양되었는데, 마침내 1911년 민족주의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무사바트(Musavat: 평등)’당을 비밀리에 창당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내세운 무사바트 당은 1917년 2월 혁명으로 짜르 전제정이 붕괴한 이후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성장했다.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와 더불어 이슬람주의를 내건 무사바트 당은 당시 크게 고조되고 있었던 범투르크주의적 경향보다는 범이슬람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이란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라슬자데가 무사바트에 참여하게 된 이후 당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 바쿠에서는 소수의 러시아인과 아르메니아인들로 구성된 바쿠 코민이 선포되었다. 이에 1918년 3월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바쿠 코민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조직 다쉬나크와 볼셰비키 지휘 하의 적군은 바쿠 시내로 진격, 수천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반대로 영국군의 철수와 오스만 투르크군의 입성이 이루어진 직전의 권력 공백기였던 9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복수극이 일어나 2만 여 명의 양 민족이 학살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1918년 5월에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코카서스 3개 주요 민족들은 ‘트랜스코카서스 연방’을 구성하였으나, 의견 대립으로 각각 독립 국가 수립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아제르바이잔인들도 간자를 수도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공화국이었을 뿐 아니라, 무슬림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었다. 이때부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명칭이 민족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공식 사용되었다. 한편, 남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도 1920년 키야바니를 수반으로 하는 아자디스탄 민주공화국이 별도로 수립되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공화국이 선포되자 아제르바이잔을 미래의 터키 영토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오스만 투르크는 군사력을 동원해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엔베르 파샤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누리 파샤를 아제르바이잔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누리는 공화국과 갈등을 빚었고, 오스만정부는 라술자데 등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터키의 변방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오스만 정부의 개입 정책은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반감을 가져 왔고, 범투르크주의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청년 장교들에 의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던 터키에서도 신생 터키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러시아와의 우호관계가 필요하고, 터키 우선주의적 정책에 따라 과거의 범투르크주의나 범투란주의등이 배격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이 사회주의 러시아의 영향하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오스만 투르크군의 진주로 바쿠 코핀은 붕괴되었지만, 10월에 있는 무드로스 협정에 따라 오스만 투르크군은 바쿠에서 철수하고 11월에 다시 영국군이 바쿠를 점령하게 되었다. 영국군은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사회주의 러시아는 물론 수니파 터키 사이에 시아파 완충국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용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재지배와 아르메니아의 영토 주장 등을 배격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약 9개월 동안의 영국 지배 하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국군이 철수한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운명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적군과 백군간 내전의 영향을 받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1920년 4월 적군의 침공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다. 간자, 카라바흐 등지에서 적군에 저항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지만,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채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정부 내각은 카라바흐에서의 아르메니아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주 병력을 북쪽에 배치하였으나 바쿠 내부에서의 쿠데타로 인해 적군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바쿠를 점령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저항을 의식한 볼셰비키 정부는 처음에는 임시혁명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위원들을 아제르바이잔인들로 구성했지만, 실권은 러시아 공산당 산하의 아제르바이잔 공산당에 있었다. 문제는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내에는 아제르바이잔인은 거의 없고, 주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조지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공산당을 내세운 볼셰비키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반동 등의 혐의로 아제르바이잔 독립 국가의 이상과 아제르바이잔 민족 전통을 약화시키고, 모든 제도를 러시아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간자를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 간자 사단의 반란이 발생하였는데, 5월에 진압되기까지 약 1000 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투 종료 후 피신했던 병력들도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으며, 남은 아제르바이잔 군 전체에 대대적인 숙청작업으로 수많은 장교들도 처형되었다. 이 반란으로 인해 특별히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간헐적인 게릴라전이 10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아제르바이잔 점령 및 연방으로의 편입 정책은 역설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소련의 토착화 정책(korenizatsiya)으로 세속적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증가, 아제르바이잔 민족 문화의 발전 등

과 같은 향후 민족 독립의 토대가 형성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범투르크주의나 범이슬람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를 유도할 필요에서 소련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체성의 확립이 투르크적 정체성과 이슬람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란 내 남 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고, 2차 대전 전까지 이 지역의 적화에 대한 의도를 접지 않아 1945년에는 이 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소비에트화를 시도한 바가 있었다.

3. 아제르바이잔 민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의 진보적/민주적 지식인들의 역할

19세기에 현지 민족 엘리트들에게 제공되었던 러시아식 혹은 유럽식 교육 제도는 아제르바이잔 지식인 계층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초기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초국가, 초민족적 이슬람 정체성, 급진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적 가치와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 투르크적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 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20세기 초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 지식인들은 아제르바이잔 민족 만들기(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 주체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러시아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관료로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기도 했다.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위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속주의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훈련된 기존의 엘리트층을 배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했다.

따라서 제국 내 여타 이슬람 지역들에서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의 관심사는 이슬람 학교, 이슬람 교육 방식의 개혁 등을 포함한 교육 문제에 있었다. 종교교육의 근대화 외에도 문맹률을 낮추고자 하는 대중 교육 자체의 확산 뿐 아니라, 외국어 교육 등을 포함한 커리큘럼의 탈종교화, 서구화, 근대화 추구,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혁신적 노력이 수반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도 타타르인들에 의해 시작된 ‘자디드’ 운동의 아제르바이잔식 운동인 maarifcilik(계몽) 운동이 알리 베이 후세인자데(Ali bey Huseinzade), 아흐멧 아가예프(Ahmet Aghaev) 등이 주도로 활발하게 일어나 확산되기 시작했다. 바쿠에서 압둘라힘 탈렙자데(Abdulrahim Talebzade)의 주도로 자디드식의 세속주의적 교육이 강조된 최초의 무슬림 학교가 설립되기도 했다.

교육 문제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도 범투르크주의와 범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범슬라브주의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제국 내 투르크족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범투르크주의는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를 주도하던 청년 투르크 운동의 주체인 터어키인들과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범투르크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바로 범이슬람주의인데, 이 운동은 오스만 투르크보다는 이란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원칙들을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 바로 범투르크주의 작가인 알리 후세인자데(Ali Huseinzade)가 주장한 구호인데, 그것은 바로 투르크화, 이슬람화, 그리고 유럽화였다. 30. 이 구호는 이후 유명한 범투르크주의 이데올로그인 지야 골갑(Ziya Gokap)에 의해 다시 강조되기도 했다. 한편 범투르크주의에 반대하고 범이슬람주의를 지지하던 대표적인 범이슬람주의 이데올로그인 알리 아가오글루(Ali Aghaoghlu)는 점차로 범투르크주의로 전향하고 이란보다

는 터키 모델이 무슬림 세계를 단결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로 터키나 이란과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경향들과는 달리, 아제르바이잔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1년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이라는 단어가 한 신문에서 사용된 이후 투르크적 특징은 부정하지 않되, 투르크어와는 다른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는 아제르바이잔인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1905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1906년 페르시아와 1908년 터키 양 국가에서의 혁명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후에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근대 정당인 무사바트 당의 지도자가 되는 라술자데는 남부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란의 입헌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반란을 이끈 바 있었고, 악훈자데와 같이 청년 투르크당이 주도하는 터키의 범투르크주의를 지지하는 주요 이데올로기들은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이었다.

아제르바이잔 지식인은 이 시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짜르 전제정에 대한 반대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별도의 아제르바이잔 민족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러시아 제국 내 다른 무슬림들과 연대해서 개혁 혹은 혁명 세력에 합류할 것인지, 합류해서 혁명에 성공한 이후 연방에 남을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진보적인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러시아를 통해 유럽의 선진적 문물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러시아와의 단결이 가져 올 부정적 사태에 대해 우려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독립에 대해 주저한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 거의 모든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운동들은 서구식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들이 주도한 남과 북 아제르바이잔에서 창당된 근대적 정치 정당 모두 이슬람 사회의 대표적인 봉건적 후진성을 상징하는 영역인 여성의 해방이라는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사회는 독특한 합리성에 바탕을 둔 타협적 정치가 발달했는데, 가령 무사바트와 같은 민족주의 정당도 훔마트(Hummat)라는 좌파 조직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 정당 및 단체들은 과격한 급진주의를 배격하는 등 훌륭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결실이 바로 1918년에 아제르바이잔 인민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성립되었던 이슬람 세계 최초의 공화제 국가의 창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바쿠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도시이자 각종 서구로부터의 국제주의적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면, 간자 지방은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간자에서 1905년 아제르바이잔 최초의 보수적 이슬람에 기반한 민족주의 운동 단체 ‘Defai(Defence)’가 발족한 바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했다.

반면 바쿠는 민족주의적 주장에 기반한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들 보다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회주의 조직들과 자유주의적 경향의 조직들이 주를 이루었다. 러시아 좌파 활동가들의 아제르바이잔 무시 경향에 반발하여 1904년에 창설한 훔마트(Hummat)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과 연결되어 있었고, 후에 볼셰비키들을 배출하게 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의 자매 조직에 비해서는 온건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좌파였다. 계급 모순 보다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족 모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낮은 수준의 노동자 계급의식 탓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노동자 계급 단결과 그에 기반한 계급 혁명은 요원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훔마트는 북 아제르바이잔 뿐 아니라, 남 아제르바이잔에서

도 상당한 명성을 누렸고,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양 국가의 공산당 창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훤마트의 주요 활동가들 중 하나가 바로 라술자데라는 점이다. 훤날 무사바트 당의 주요 활동가이자 아제르바이잔 민주 인민 공화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인 라술자데는 훤마트에 대한 탄압으로 이란으로 추방되어 이란에서도 입헌제 혁명 과정에 참여한 바 있었다. 다시 러시아의 압력으로 터키로 추방된 이후 그는 개혁 이슬람과 투르크주의에 기반을 둔 세속주의적 민족주의자로 변신, 귀국 후 무사바트 당의 주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 조직들은 대부분 1905년에 열린 제 1차 러시아 무슬림 회의에 참가한 바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조직들로서 러시아의 입헌민주당과의 연계성을 갖고, 러시아 제국 내 무슬림의 평등한 권리, 러시아의 입헌군주제 국가화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파탈리 칸 코이스키(Fatali Khan Koisky)가 있는데, 그는 이란 내의 코이 칸 집안의 자제로 모스크바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활약하다가 1907년에는 국가 두마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바쿠의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투르크주의적 민족주의 조직인 무사바트가 점차로 도시를 통제해 가고 있었지만, 바쿠는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명당이나 볼셰비키 세력들이 멘셰비키보다 영향력이 큰 도시였다. 특히 러시아, 아르메니아인들로 구성된 사회혁명당 당원들은 지역의 노동자 소비에트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지만, 바쿠 소비에트의 경우 의장은 아르메니아인 볼셰비키인 스테판 샤우미안(Stepan Shaumian)이 점차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해 볼셰비키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현지 주 민족인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훤마트나 무사바트 모두 이들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훤마트는 점차 영향력이 축소되어갔고, 무사바트도 좌파적 경향이 사라지고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보수적 민족주의 조직, 특히 사실상 간자를 지배하고 있던 데파이(Defai)의 후신 정당 투르크 탈집중 정당(Turk Decentralization Party)과의 연대를 강화, 1917년 4월에는 두 당은 통합되었다.

1917년 10월에 치러진 바쿠 소비에트 선거에서 모든 사회주의 조직들을 다 합한 표 보다 무사바트의 득표율이 더 높은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비롯한 무슬림 노동자들과 농민들 뿐 아니라, 지식인층의 적극적 지지의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사회주의 정당들은 선거 무효를 주장했고, 결국 바쿠에서는 무사바트를 비롯 아제르바이잔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장악한 바쿠 두마, 민족 위원회 등과 소비에트 간의 이중권력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 본토에서 볼셰비키 혁명 정권이 수립된 1918년 초부터는 샤우미안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바쿠 소비에트를 장악하였고, 모든 권력이 소비에트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편 아제르바이잔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성과물로서 23개월 간 존재했었던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의 경험은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는 물론 탈소비에트 현대 아제르바이잔 정치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인들의 주도로 무슬림 세계 최초의 공화주의 국가를 선포한 바 있었던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은 스스로 민주주의적 의원내각제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민족, 종교, 계급, 직업, 성별 차이 없이 영역 내 국민들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다.

공화국을 선포한 무사바트를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국민 회의(National Council)를 기반으로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근대적 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제헌의회 선거를 구상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서구 국가들에서보다 훨씬 앞선 매우 진보적인 조치였다는 점이다. 물론 극심한 혼란 속에서 선거는 실시하지 못 했지만, 임시의회는 120석 중 21석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그리고 10석을 러시아인들에게 할당하는 등 역내 소수민족들에게도 의회의원의 자리를 확대하는 데에서 보이듯 진보적인 성격을 강화해 왔다.

무사바트 당이 의석의 2/5를 차지했지만, 우파 정당 ‘이티하드(Ittihad)’, 좌파 정당 ‘흙마트(Hummat)’, 자유주의 정당 ‘아흐라르(Ahrar)’, 그리고 심지어 아르메니아인 조직 ARF과 무소속 의원 등 모두 평균 10석은 차지하고 있어서 연립 정부 구성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표방하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강력한 행정부가 부재했던 것은 극도로 혼란했던 당시 이 지역에서는 심각한 권력의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무엇보다도 소련 뿐 아니라, 영국, 터키 등 외부로부터의 강대국들의 간섭은 위기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회는 145 회에 걸친 회의가 열렸고, 무려 250 개의 법안이 입안되기도 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입법은 매우 활발해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역사 교육 대신 아제르바이잔어와 아제르바이잔 역사 수업을 필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이나 1919년에 바쿠 대학교를 설립한 일 등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북 코카서스 지방에서의 적군과 백군 간 전쟁의 격화 등으로 인해 러시아로의 무역로가 단절되는 등 여러 이유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 혼란과 압박으로 인해 개혁에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특히 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며 근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토지 개혁에 실패한 것은 공화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개혁들을 방해한 것은 씨족(clan)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권력 구조가 여전히 의회라는 제도를 통한 공식 권력 구조보다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서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대지주들은 물론 바쿠의 석유 대자본가들의 저항이 매우 컸다.

4.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 운동의 민주적 부활

일찍이 1960년대에 반정부 세력이 구성되기 시작했던 아르메니아, 조지아와는 달리,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반정부 세력들이 뒤늦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세력의 연합체이자 대표적인 조직인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Azerbaijan Popular Front)’의 결성으로 이어진 중요한 계기는 바로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충돌로 인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고양이었다. 그러나 유사한 무슬림 국가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민족 부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바 있었다.

상대적 유희시기였던 1970년대에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러시아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78년에는 아제르바이잔어를 공화국 공식 언어로 확정짓는 성과를 남겼다. 소련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반정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75년의 헬싱키 협약은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후에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아불파즈 엘치베이(Abulfaz Elchibei) 역시 이러한 반정부 운동 출신으로 수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아제르바이잔 지식인들은 아제르바이잔 민족의 기원, 인근 타민족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잔어, 문화, 민족 전통 등에 관해 다양한 서적들과 논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남 아제르바이잔과의 통일 문제 등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젊은 층에서 아제르바이잔어 구사 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어로만 교육을 받아 오히려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87년에는 ‘Yurd’, ‘Veten’, ‘Canlibel’ 등 아제르바이잔 고유 건축물들의 보존, 해외 투르크 민족들과의 연대 기구 설립, 아제르바이잔 역사 학습 등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문화 단체들이 창립되었고, 이듬해인 1988년 초에는 조금 더 정치적 목표를 내세운 지식인들의 모임인 ‘Varliq’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에는 엘치베이와 사비르 루스탐한리(Sabir Rustamhanli)와 같은 미래의 인민전선 지도자들도 참가했다.

1988년 수만 명이 참가했던 레닌 광장 집회에서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의 주도로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이 집회는 정부의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음을 들어 공산당 지배의 무능함과 부패, 그리고 환경 이슈 등 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리였다. 시위는 바쿠를 넘어 나히체반, 간자 등지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군경과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주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투옥되었지만, 이 대중 시위는 반정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전선체 운동을 조직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 친 아르메니아적인 소련 당국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표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로 넘기려는 전조이자 심각한 주권 침해라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었다. 간자와 같은 지역에서는 소련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공산당사를 분노한 군중들이 포위하고 이들을 지원하러 온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져 저항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등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1988년 말에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민전선의 주요 지도자로 부상한 파나호프는 금속 노동자 출신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소련 당국은 이를 우려하여 그를 체포하고 구금했는데, 그는 그 어떤 인민전선 지도자들보다 훨씬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1988년 11월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 국가 모두에서 심각한 민족 간 충돌이 일어나 약 15만 여 명이 자신의 고국으로 피난을 떠나야 할 정도로 양 민족과 양 국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에 있어서 친 아르메니아적 성향을 보였던 고르바초프와 갈등을 빚었던 헤이다르 알리에프가 1987년 퇴진한 이후 숨가이트와 바쿠에서 반 아르메니아 폭동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독립적인 정치사회단체들과 언론 매체들이 급증한 가운데 저항세력의 주축으로 등장한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은 대중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성장하여 1989년 가을 즈음에는 이제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인정될 정도로 세를 과시했다.

인민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 지식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범투르크주의와 민족주의적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미래의 아제르바이잔 국가상에 있어서는 소수민족과 비 이슬람 제 종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세속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국가라는 데에 커다란 이견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인민전선 구성 조직들은 대체로 1918년에서 1920년 시기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존재했던 소련 이전 시기의 무사파트당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1989년 인민전선은 창립총회를 갖고, 아제르바이잔을 법의 지배에 기초한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들은 민주적으로 개혁된 소비에트 연방 하

에 잔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한 독립 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동시에 인민전선은 '아제르바이잔 인민민주공화국'을 계승할 것을 선언하고, 이 시기 공화국의 국기, 국가, 문장의 복구 및 공화국 선언일인 5월 28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령에서는 역대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언어에 대한 보장 부분은 다소 원칙론적인 언명으로만 제시하고 있었다. 이 창당대회에서 엘치베이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인민전선은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정치 무대에서는 공산당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마침내 1989년 10월 인민전선은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허가되었는데, 동시에 인민전선은 처음으로 중요한 내부 분화를 겪게 되어 점진적인 변화와 독립을 향한 평화적 길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분파와 즉각적이고 비평화적인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주의자들로 분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조직적인 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민전선이 공식 등록하기 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아제르바이잔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지만, 공산당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인민전선이 주도하는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위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종종 청년들이나 난민들을 중심으로 과격화되어 아르메니아인들의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인민전선 지도부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히체반에서는 남 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 통일을 주장하면서 국경 초소나 철조망들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레코란(Lekoran)과 잘랄아바드(Jalal-Abad)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공산당 권력이 붕괴되고 인민전선이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다.

1989년 9월에는 인민전선의 주도로 아르메니아로의 철도를 중단시켰고, 바지로프(Vazirov)를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 정부는 주권 선언을 비롯한 인민전선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합의하고 주권을 선언했다. 이렇게 소련 곳곳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들 중에서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처럼 급속하게 권력을 장악한 지역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전선은 지방 조직들을 통제하는 데에 실패하곤 했는데, 과격분자들인지 혹은 소련 당국에서 진압의 구실로 삼기 위해 심은 프락치들인지 알 수가 없는 청년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카라바흐 지역 내 아제르바이잔인 거주 마을들이 아르메니아인 민병대의 습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이에 분노한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은 국가 평의회를 조직해 아르메니아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부터 피신한 난민들도 지도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아르메니아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민전선은 시위의 폭력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인민전선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폭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0년 1월 13일에서 14일에 이르는 만 이틀 동안 바쿠에서 발생한 반 아르메니아 폭동이 일어났다. 인민전선 지도부는 정부에게 내무부 치안병력 배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고르노-카라바흐로부터 피신한 아제르바이잔 난민들은 아르메니아인 거주지를 찾아다니며 살해와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인민전선은 아르메니아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인민전선의 다양한 노력으로 1월 15일 마침내 폭동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미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바쿠를 떠났고, 질서를 되찾아가는 시점에 소련 중앙 당국은 수천 명의 군대를 나고르노-카라바흐 등 남코카서스 지역에 파견했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쿠였다.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진입할 것이라는 정보에 인민전선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련 당국과 협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침략군처럼 1월 20일 새벽에 대규모 소련군 부대가 탱크를 앞세우고 총을 쏘며 바쿠로 진입해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만 해도 131 명이 사망하고, 774 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민전선 지도자들을 포함한 400 여 명이 체포되었다. 특히 소련군의 첫 목표물은 바로 인민전선 본부였는데, 예고 없이 난입한 소련 군대는 인민전선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을 체포한 뒤, 이러한 군사 작전 수행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발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왜곡해 발표했다.

그러나 소련 중앙 정부의 군 투입 작전은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것으로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정권이 사실상 권력을 상실하고, 지방 곳곳에서도 인민전선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에 위협감을 느낀 소련 중앙 정부의 기획이었다.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위해 일련의 민족 간 폭동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 측면도 있었다. 소련 국방부 장관이었던 드미트리 야조프(Dmitri Yazov)도 소련군의 바쿠 점령은 인민전선의 권력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검은 1월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련군의 바쿠 침공 사건은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으로부터 이탈하고 독립을 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인민전선의 힘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고, 카라바흐 문제로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양되고는 있었으나 심지어 인민전선 내에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완전한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하는 경향은 소수였다. 그러나 1989년 소련군의 조지아의 트빌리시 침공이 공산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추구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면서 반정부 세력을 강화했듯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러시아성으로부터 아제르바이잔식 성으로의 개명 운동을 들 수 있는데, ‘ov’로 끝나는 러시아식 성을 터키식어의 ‘beyli’나 이란식의 ‘zade’로 끝나는 성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소련은 아제르바이잔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바지로프를 경질하고, 공산당 제 1 서기장으로 무탈리보프를 임명했다. 대부분의 지도부가 투옥되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무탈리보프는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충만한 대중의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속도로 아제르바이잔의 이익을 수호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와는 달리, 아제르바이잔 공산당은 여전히 소련 공산당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고, 1990년 가을에 있었던 최고 소비에트 선거에 위 두 국가의 공산당은 참패하고 반정부 세력인 반공산 민족주의 정당들이 승리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탄압과 선거 조작 등으로 공산당이 승리하여 입법부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결과 대중 집회를 통한 인민전선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신연방 조약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신연방 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연방 잔류가 선언되었다. 이에 맞서 인민전선은 실제로는 투표율이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와 인민전선 측 각각 25명씩 50 명으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와는 별도의 조직인 민족 회의(National Council)를 구성하였는데, 무탈리보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실제 권력은 이미 인민전선으로 넘어가 있었다.

마침내 1991년 7월에 있었던 인민전선 대회에서 인민전선의 지도자인 엘치베이는 소련은 붕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진정한 독립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무탈리보프 정권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 즉 남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인민전선은 아제르바이잔의 통일은 아제르바이잔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아제르바이잔 최고 소비에트는 1991년 8월 30일에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적 국가성 회복 선언을 했

고, 이후 12월 29일에 있었던 국민투표를 통해 95%의 지지로 아제르바이잔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독립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5. 탈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 시기의 민주주의 후퇴와 이슬람주의의 부활

무탈리보프를 끌어내리고 엘치베이를 수반으로 하는 인민전선 정부가 출범한 1992년 이후 1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범투르크주의 원칙 하에 반러시아, 친터어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한층 더 격화된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와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 위기, 그리고 후세이노프를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로 야기된 내전 등으로 심각한 정정불안에 시달렸다. 1992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민전선 지도자 엘치베이를 내세운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자들은 19세기 말의 아제르바이잔판 자디드 운동인 maarifcilik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재투르크화 정책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종교의 자유, 특히 해외 이슬람 단체들의 선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크게 완화했다.

아제르바이잔 전통의 부활 과정에는 이슬람의 부활이 필수적이었지만,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 속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세속주의적 원칙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치베이는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것이나 바쿠 대학교에 시아파 이슬람 학과가 설립된 것 등이 상징하듯, 이슬람적인 전통의 부활은 세속주의 정치 세력들에게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수많은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이 터어키 뿐 아니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란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 서점가에는 이란으로부터 수입된 종교 서적이 넘쳐났다.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받아 1987년도에 단지 18개에 불과했던 이슬람 사원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만 230 여개, 비공식적으로 건설된 것이 무려 900 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집권한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Aliyev)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종교 정책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해외 선교 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 소련식 종교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아제르바이잔의 국가 건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갈등, 석유 가스를 매개로 하는 서구 경제와의 연계성 확대 등과 관련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채택된 실용주의적 민족주의는 과도한 범투르크주의로부터 벗어나 아제르바이잔 민족주의로의 선회, 옛 소련 시기의 ‘공식’ 이슬람과 유사한 국가의 이슬람 통제 모델에 입각한 세속주의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련 시대 이슬람 지도자였던 파샤자데(Allahshukur Pashazade)로 대변되는 공식 이슬람을 재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자신감은 비록 그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석유 가스의 수출로 인한 부의 증가에 기인했다.

그러나 2003년 헤이다르 알리에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가 76% 라는 믿기 어려운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05년의 불공정 총선이 실시된 이후 많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절차적인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석유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부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부패와 사회양극화 문제 등으로 고조된 국민들의 불만은 정치적 이슬람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이슬람당(Islamic Party of Azerbaijan)’을 비롯해 ‘Tawbah(Repentance)’나 ‘Gardashlyk(Brotherhood)’과 같은 이슬람 공동체, Fazilyat(Virtue) 당, Hizbollah 등 다양한 시아파 이슬람 정당, 사회조직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Abu Bakr 모스크를 중심으로 하며 체첸 반군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수니파 살라피 그룹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일함 알리에프 시기에는 한층 더 종교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어 2009년에는 새로운 종교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이슬람당을 비롯해 여러 ‘비공식’ 이슬람 조직들과 운동들의 등록을 거부하고 조직의 해산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2005년 총선 당시 아제르바이잔 민주당(Azerbaijan Democratic Party), 아제르바이잔 인민전선당(Azerbaijan Popular Front Party), 그리고 무사바트(Musavat) 등 주요 야당들은 자유(Azaliq)라는 공동 선거 블록을 구성하고 선거에 참가하려 했다.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에서와는 달리, 석유 수출 이익으로 대통령 일가 이하 후견인 관계를 맺고 있던 아제르바이잔 지배 엘리트들은 크게 분열하지 않았고, 반면 야당 세력들은 분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중 동원력도 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의 일련의 색깔혁명 과정을 목도하면서 혁명의 확산에 대해 공포감을 느낀 아제르바이잔 지배 엘리트들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선거 이전의 정권에 의한 탄압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엘마르 후세이노프(Elmar Huseinov)라는 기자 살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반정부적 언론인들에 대한 공격과 체포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 인근 구 소련 국가들 중에서 가장 언론이 정부에 의해 통제가 강화된 국가가 되고 말았다.

한편 언론을 장악한 국가는 야당들과 연결된 청년 조직들을 탄압하면서 거짓 발표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에 반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가령, ‘신 사고(Yeni Fikir)’ 라는 야권 성향의 청년 단체를 이끌고 있던 루슬란 바쉬를리(Ruslan Bashirli)를 체포한 당국은 그가 (색깔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트빌리시로 가서 아르메니아 정보국원을 만나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소위 ‘민주화’ 혁명 지원 자금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방송국은 그 장면을 찍었다는 동영상을 제공받아 방영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 기반을 둔 아제르바이잔 민주주의 지원 기구의 지원과 지령에 따라 움직여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그가 인민전선 지도자인 알리 케르물리(Ali Kerimli)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야권 세력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신 사고 외에도 ‘Yox’, ‘Magam’ 등 몇몇 청년 단체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색깔혁명이 성공한 국가들의 유사 조직들에 비해 대중적 기반이 취약했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에 관심이 없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심각한 분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못 한 데에는 석유 이권으로 인한 서구의 모호한 태도와 그에 따른 지원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었다.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지에서 보였던 적극적인 비판과 사실상의 개입과는 다르게 석유 이권의 상실을 우려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상황에 별다른 비판을 가하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해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 계획인 BTC라인이 조인되었기 때문에 서구로서는 비판을 삼가고 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군 기지가 철수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는데,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대안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선택하려 했고,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한층 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상황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아제르바이잔인들은 권위주의 정권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초국적 석유 메이저 자본은 아제르바이잔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부패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세속주의적 민주주의 야당의 약화를 가져 오고 대안 세력으로서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의 성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 등으로 야기된 민족과 영토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아

제르바이잔 정권은 2005년에 국내의 불만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전환시키려는 고전적인 목적 외에도 영토 문제를 부각시켜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가를 통해 무기 구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군사화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야당을 탄압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등 영토 문제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